연구보고 R323 / 1995. 10

농가경영성과의 사례 연구

수도작, 사과, 시설딸기, 양파, 한우비육농가를 중심으로

이 영 석 책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상업농화가 진행중인 우리의 농업은 이제 세계시장을 무대로 선진국들과 아무런 제한없이 겨루어 나가야 한다.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세계의 여러 농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으로서 확보되며,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에 의해서 좌우된다. 우리 농가들의 생산기술은 농촌진흥청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나 경영기술의 개발과 지도는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은 "꾸준한 개선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꾸준한 개선"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바탕으로 한다. 농가의 경영 개선과 경영 합리화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일부 영농후계자들로 하여금 지난 2년 동안(1993년, 1994년) 매일매일 장부를 기장토록 하여, 그의 농업경영성과를 집계/결산하고, 이를 분석/진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코자 했다. 다만 여기서는 유의선정한 수도작, 과수(사과), 노지채소(양파), 시설채소(딸기), 축산(한우 비육)의 다섯가지 작목들을 전문화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연구를 위해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아끼지 않은 분들과, 특히 이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된 부기장부를 지난 2년 동안 매월 꾸준히 기장해서 보내주신 기장농가들께 감사드린다.

199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3. 연구방법 및 범위 5

제 2 장 농업경영분석의 의의와 선행연구

1. 농업경영분석의 의의 7
2. 선행연구와 최근 동향 8

제 3 장 농가의 장부기장과 분석방법

1. 기본전제와 분석단계 16
2. 농가의 장부기장 24

제 4 장 농업경영성과의 분석 및 진단결과

1. 개 요 30
2. 수도작 농가 32
3. 사과 농가 60
4. 양파 농가 83
5. 시설딸기 농가 101
6. 한우비육 농가 116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 130

부 록

1. 기장양식 137
2. 농가별, 결산기간별 재무제표 151

표 목 차

제 3 장

표 3- 1 기장농가별, 연도별 기장실적 25
표 3- 2 재산대장의 항목별 세부내용 28
표 3- 3 일계부의 구성항목과 세부 기장내용 29

제 4 장

표 4- 1 수도작 농가의 경영개요 33
표 4- 2 수도작 농가의 수익성 지표 35
표 4- 3 수도작 농가의 생산성 지표 37
표 4- 4 수도작 농가의 집약도 지표 38
표 4- 5 수도작 농가의 활동성 지표 41
표 4- 6 수도작 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42
표 4- 7 수도작 농가의 성장성 지표 44
표 4- 8 수도작 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47
표 4- 9 농가별 수도작 경영개요 48
표 4-10 농가별 수도작의 수익성 지표 51
표 4-11 농가별 수도작의 생산성 지표 52
표 4-12 농가별 수도작의 집약도 지표 54
표 4-13 농가별 벼 가마(40kg)당 생산원가 및 순수익 57
표 4-14 사과 농가의 경영개요 61
표 4-15 사과 농가의 수익성 지표 63
표 4-16 사과 농가의 생산성 지표 65

표 4-17 사과 농가의 활동성 지표 66
표 4-18 사과 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68
표 4-19 사과 농가의 성장성 지표 69
표 4-20 사과 농가의 집약도 지표 71
표 4-21 사과 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72
표 4-22 농가별 사과 경영개요 75
표 4-23 농가별 사과의 수익성 지표 77
표 4-24 농가별 사과의 생산성 지표 78
표 4-25 농가별 사과의 집약도 지표 81
표 4-26 농가별 사과 상자(15kg)당 생산원가 및 순수익 83
표 4-27 양파 농가의 경영개요 85
표 4-28 양파 농가의 수익성 지표 86
표 4-29 양파 농가의 생산성 지표 87
표 4-30 양파 농가의 활동성 지표 88
표 4-31 양파 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90
표 4-32 양파 농가의 성장성 지표 91
표 4-33 양파 농가의 집약도 지표 93
표 4-34 양파 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94
표 4-35 농가별 양파 경영개요 95
표 4-36 농가별 양파의 수익성 지표 96
표 4-37 농가별 양파의 생산성 지표 98
표 4-38 농가별 양파의 집약도 지표 99
표 4-39 농가별 양파 kg당 생산원가 및 순수익 100
표 4-40 시설딸기 농가의 경영개요 102
표 4-41 시설딸기 농가의 수익성 지표 103
표 4-42 시설딸기 농가의 생산성 지표 103
표 4-43 시설딸기 농가의 활동성 지표 104
표 4-44 시설딸기 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105

표 4-45 시설딸기 농가의 성장성 지표 107
표 4-46 시설딸기 농가의 집약도 지표 108
표 4-47 시설딸기 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109
표 4-48 농가별 시설딸기 경영개요 109
표 4-49 농가별 시설딸기의 수익성 지표 110
표 4-50 농가별 시설딸기의 생산성 지표 111
표 4-51 농가별 시설딸기의 집약도 지표 112
표 4-52 농가별 딸기 kg당 생산원가 및 순수익 114
표 4-53 한우 비육농가의 경영개요(6개월 기준) 117
표 4-54 한우 비육농가의 수익성 지표(6개월 기준) 118
표 4-55 한우 비육농가의 생산성 지표(6개월 기준) 119
표 4-56 한우 비육농가의 활동성 지표(6개월 기준) 120
표 4-57 한우 비육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121
표 4-58 한우 비육농가의 성장성 지표(6개월 기준) 122
표 4-59 한우 비육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123
표 4-60 농가별 한우 비육 경영개요(6개월 기준) 124
표 4-61 농가별 한우 비육의 수익성 지표(6개월 기준) 125
표 4-62 농가별 한우 비육의 생산성 및 집약도 지표(6개월 기준) ... 126
표 4-63 농가별 한우 비육 두당 생산비 및 순수익 128

그 림 목 차

제 3 장

그림 3-1 농업경영분석의 단계와 과정 23
그림 3-2 재산대장의 구성 2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UR의 타결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내놓았다. 세계는 군사력과 이념간의 경쟁체계로부터 경제력과 기술력간의 경쟁체계로 옮겨가고 있고, NATO, 와르샤와 조약기구, 그리고 국가간의 다양한 군사 및 안보조약은 퇴조하고, EC, NAFTA, APEC, 그리고 새로 설치될 세계무역기구(WTO)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UR은 국가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무차별의 원칙"과 자국산과 외국산의 구분을 없애는 "자국민 대우"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제 겨우 상업농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농업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이미 기업화 되어있는 선진국들의 농업과 아무런 제한없이 겨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은 결국 우리 농가들이 세계 굴지의 농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서 확보된다는 것이다.

농가의 경쟁력은 생산기술과 경영기술의 향상이라는 두가지 부문을 축으로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생산기술은 그동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과 농촌지도소에 의한 지도와 보급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고,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러나 경영기술이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농가에 대한 경영지도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농업경영을 연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르치는 농업경영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이 우리 나라에는 아직 없다. 물론 이는 졸업후의 취업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신품종을 비롯한 새로운 농업생산기술은 매스미디어와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갈수록 그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경영기술은 농가 경영주의 경영훈련, 예컨대 사업적 시각과 사고 등에 대한 훈련과 숙달과 같은 사장(社長)훈련을 필요로 하며, 이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의 농정은 그동안 "농가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이라는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왔다. 우리 농업은 일제→해방→6·25→전후 복구로 이어져 온 농산물 부족시대를 거치면서 "다수확 기술"에 매달렸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득증대," 즉 "농가소득"에 관심이 높아지는 듯 했으나, 그것이 소득작목, 혹은 경제작물 발굴에 촛점을 맞추면서 결국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이라는 "농산물 문제"의 해결에 주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소득 혹은 경제작물을 중시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는 작목의 선택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었으나 중반을 지나면서 차츰 가격파동을 경험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고냉지 채소,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그리고 최근의 대파, 무, 배추에 이르기까지 노지작물을 중심으로 한 가격파동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파동은 근래에 들어서면서 노지작물 뿐만이 아니라 시설원예작목에 있어서도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점차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작목별 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했고 농가의 판매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단순한 농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면서 수지를 맞춰야 하는 경제주체로 발전해 온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곧 오늘날의 농가가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농업경영단위, 즉 농업 경영체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러한 농가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생산기술과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갑작스런 도약"보다는 "꾸준한 개선"을 통해서 이루워지며, 이러한 "꾸준한 개선"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분석과 반성, 그리고 자신들의 취약점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노력이 축적되면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경험과 실적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농가의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물론 농가의 경영 개선이나 경영 합리화의 중요성이나 불가피성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 개선을 논하는 경우도 대개는 "농가(농업 경영체)"를 단위로 했다기 보다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53년 이래 「농가경제조사사업」을 매년 계속해 오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1975년 이래 「농축산물 표준표득」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나 전자는 전반적인 농가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자료를 얻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고 후자는 작목별 소득과 수익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농가 스스로의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가단위의 농업경영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개별적인 농가들에 대한 농업경영 분석 및 진단을 근거로 한 농촌지도사업체제를 확립하고 있고 전산장비와 통신망의 확대 등으로 전산화한 농업경영 진단프로그램과 농가와 지도기관 혹은 전문기관과의 on Line을 바탕으로 한 농업경영 진단 및 지도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농가의 농업경영활동을 파악하고 농업경영의 성과(혹은 실적)를 집계, 결산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위한 방법과 지표가 제시되고 이용된 경우도 있으나 농가의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분석과 진단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특정 농산물이나 생산방

식에 대한 생산비나 경영비, 수익성, 노동력 수요 등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의 「농가경제조사사업」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의 농가, 즉 농업경영체로서의 농가의 농업경영활동과 농업경영성과를 파악,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농가의 농업과 비농업, 가계부문을 망라한 '농가경제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표득」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에 농가들이 실제로 투입, 사용한 경영비와 생산비를 조사, 분석하여 농가의 영농계획 수립과 작목선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가의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농산물 생산에 대한 '표준(Standard)'이나 목표적 성격의 '목표치'를 제시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농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경영 개선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경영체로서의 농가의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여전히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2. 연구목적

따라서 이 연구는 일부 유의 선정한 농가들로 하여금 장부를 기장토록 하고, 이 농가들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기장농가들의 농가의 농업경영체로서의 경영 개선을 위한 농가의 농업경영활동 및 성과를 분석, 진단함으로서 그의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농가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농가의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근거로 한 농가의 농업경영활동과 농업경영성과에 대한 집계와 결산, 그의 분석과 진단에 이용된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식에 관한 검토도 병행함으로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농업경영 분석의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농가의 농업경영 분석은 실천적인 것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농가로부터의 사실기록을 어떻게 얻어내느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 기장교육과 기장지도를 통해서 기장토록 하는 한편 기장된 장부를 농가로부터 되돌려 받아서 이를 집계, 결산,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장농가들은 농업경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고, 농업경영에 의욕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젊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35세 미만(1992년 기준)의 영농후계자 중에서 본인 스스로가 장부를 기장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유의 선정했다.

특히, 이 연구가 농가로부터의 기장을 전제로 하고 성실하고 정확한 기장은 농가 자신의 적극적인 기장의사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농가 자신들의 기장의사를 가장 중요시 했으며, 농가의 기장이 동일한 요령과 기준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농가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했다. 또한 농가의 기장상의 애로사항과 의문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기장양식과 기준, 기장요령 등을 보완, 발전시키는 작업을 병행했으며, 기장농가들과의 이같은 토론과 작업을 통해서 농가는 경영지식의 습득과 훈련의 효과를, 연구자는 경영현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장양식, 기장방법, 그리고 계정 및 항목의 분류 등은 비록 정책자료의 확보나 작목별 수익성에 관한 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농가경제조사사업」과 「농축산물표준소득」, 조합원의 원유 납품가 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낙농경영진단사업」, 국내의 농업경영진단과 관련된 연구결과, 그리고 미국·일본·독일 등의 농업경영진단사업과 연구논문들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이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농업경영 분석의 의의와 기존

의 농업경영진단사업 및 선행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이 연구에 이용된 농가의 장부기장과 분석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제4장에서는 유의선정한 선진농가들의 농업경영성과(5개 작목(수도작, 사과, 양파, 시설딸기, 한우 비육), 13개 농가, 1993 및 1994년도의 18가지 경우)를 분석하고 농가 상호간 및 「농축산물 표준소득」 등의 기존 분석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와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제5장에서는 본 사업에서의 농가의 기장상의 문제점과 향후의 개선방안 및 과제, 선진농가들의 농업경영진단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과제, 그리고 농업경영분석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향후과제를 요약했다. 또한 <부록>에는 본 사업에서 이용한 농가의 기장양식과 농가들의 기장내용으로부터 집계, 결산된 농가별, 결산기간별 재무제표를 수록했다.

제 2 장

농업경영분석의 의의와 선행연구

1. 농업경영분석의 의의

경영 분석은 본래 그 자체로서의 자기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영분석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농업경영 분석의 목적도 농업경영 분석결과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농업경영 분석은 크게 두 가지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 바, 하나는 농가 스스로의 필요이고 다른 하나는 농가 이외의 자들의 필요이다. 전자는 농가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자신에 대한 평가 혹은 그 농가를 지도하고 상담해야 하는 입장에서의 필요이고, 후자는 정책자료나 과세자료를 획득하거나 혹은 농가에 자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의 상환능력이나 신용도를 파악해야 하는 입장에서의 필요를 말한다.

농가 자신의 필요에 의한 농업경영 분석은 농업경영의 궁극적인 목표인 "계속 경영체로서의 존립과 성장·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농가 자신의 필요에 의한 농업경영 분석이 계속 경영체로서가 아니라 농업경영체의 해체(혹은 파산)를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농가의 수지상태나 경영활동보다는 자산의 규모나 구조 등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분석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등 특수한 목적을 갖는다.

농가 자신의 "농업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경영 분석은 "계속 경영체로서의 존립과 성장·발전"이라는 농업경영의 목표(goal)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단기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aim)으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농업경영의 목표(goal)는 理想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농업경영 분석은 단기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경영 분석은 궁극적으로 경영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그것은 실천이 가능한 것이라야 하기 때문에 농가의 농업경영활동과 농업경영성과를 사실대로 파악하여 집계, 결산하고, 이를 분석, 진단하여 그 농가의 취약점 및 개선을 필요로하는 부분과 보다 발전시켜야 할 성장잠재요소들을 찾아내서 이에 대한 처방, 즉 개선 및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여기서 얻어진 정보와 결과들은 농업경영의 보다 현실적인 새로운 계획자료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2. 선행연구와 최근 동향

농업경영 분석은 농업경영학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성격을 갖는다. 농업경영 분석은 농가로부터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바, 농가경제에 대한 조사가 언제 최초로 행해졌는지는 정확치 않으나 대체로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의 Laur(1873~1964)는 부기결과의 통계적 가공을 통해서 농가경제를 계수적으로 표현했고, 러시아의 Tschajanow는 약 40여년간의 소농에 대한 농가경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농경제의 원리(Die Lehre von der bäuerlichen Wirtschaft, 1923」를 펴냈으며, 미국의 G. H.Warren은 1911년에 「경영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Taylor의

주관으로 Black, Tolley, Ezekiel 등과 함께 방대한 농업경영 실증자료의 다원회귀분석결과가 1924년 미국 정부문건[1]으로 발간되었으며, 일본은 1913년에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농가경제조사업[2]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경제적 관점에서의 농업경영 분석, 즉 농가 스스로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경영분석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언제 쯤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독일은 그 시기가 분명치는 않지만 봉건지주제하에서 莊園간 또는 한 莊園의 결산기간별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촛점을 맞춘 "경영분석론(Betriebsanalyse)"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1953년에 농업경영진단론을 농업경영 교과서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도입한 바, 渡邊兵力은 三澤嶽郎, 內山政照, 金澤夏樹와의 공동집필로 「농업경영-이론과 보급」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그는 경영진단의 정의와 함께 경영의 실태를 조사·검토하여(진찰) 그 경영의 결함을 지적하여(판단) 그 개량방법을 제시(처방)하는 3단계를 제시했다.

농업경영진단을 농업경영계획과 관련시켜 접근한 사람은 磯邊秀俊으로, 그는 그의 저서 「농업경영[3]」에서 "농업경영 개선의 기본목표는 생산력을 높이면서 소득을 증가시켜 생활수준을 향상·안정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토지생산력의 증가, 생산능률, 특히 노동능률의 향상, 생활 합리화에의 기여의 3가지 원칙이 경영 전체로서 지속적으로 달성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이 자신의 경영에서 어느 정도나 달성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그의 개선책을 찾아내는 것이 경영진단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57년에는 貝原基介가 「농업경영의 진단과 계획[4]」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농업기술은 하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부분적

---

1) Tolley H.R., Black J.D., Ezekiel M.J.B., 「Input as related to Output in Farm Organization and Cost- and Production Studies」. USDA Department Bulletin No. 1277, 1924.

2) 일시 중단되었다가 1921년부터 다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3) 磯邊秀俊, 「農業經營」, 朝倉書店, 1955의 제9장 농업경영의 계획화에서 언급하고 있음.

4) 貝原基介, 「農業經營の診斷と計劃」, 富民社, 1957.

으로는 현저한 발전을 하였으나 그 기술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경제과학적 기초에 입각하고 있지 않으며, 농업경영학은 농업경영을 진단하고, 그의 목적을 훨씬 유익하게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 위에서 주로 생산경제학의 원리를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1959년 木村直雄은 「농업경영의 진단과 설계[5]」라는 저서를 통해서 농업경영의 목적은 농가의 생활향상이라고 전제하고 "농업경영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기본적 척도를 생활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적"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모두 20개의 경영지표를 설정하고, 이들 지표를 원형의 그라프에 표시함으로서 凹凸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에는 京都大學의 龜谷 是교수를 중심으로 농가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경영지표를 통한 농가간의 비교분석에 대한 연구[6]가 진행되는 등, 농업경영분석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우리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는 1967년 9월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연구소 설립을 전후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농사원(현재의 농촌진흥청)의 경영계 및 농업경영과[7], 농협 중앙회 조사부[8], 대학[9] 등에 의해서 행해졌으나 실태조사와 수익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

---

5) 木村直雄, 「農業經營の診斷と設計」, 文教書院, 1959.

6) 龜谷 是 編著, 「現代農業經營分析論」, 富民協會, 1990.

7) 여기에는 1960년의 「농가경제 기장조사 및 농업노동조사」, 「농작물 수익성 비교조사」, 1961년의 「독농가 농업경영조사」, 「수도 심경다비재배에 대한 경영경제 실태조사」, 1961/62년의 「유휴경사지 개발농장에 대한 경영경제조사」, 1963/64년의 「유휴지 농업경영에 관한 조사」, 「지대별 영농모형에 관한 연구」, 1965년의 「지대별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1966년의 「주요 경제작물의 수익성」, 1966/67년의 「고냉지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 「담배재배에 관한 경영경제적 연구」, 「답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경영경제적 연구」, 「농업지재별 작부체계별 수익성」 등이 속함.

8) 여기에는 1962년의 「경제작물 및 축산물 생산비/소득 조사보고」, 「농업경영실태조사 보고서」, 1964년의 이재한에 의한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요인분석(농업경제.

연구였다.

1967년부터 농업경영연구소가 농업경제연구소로 개편될 때까지인 1972년까지의 연구는 기업적 경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낙농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예를들면 농업경영연구소의 경우 196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지역간의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서울과 성환지역의 낙농 경영에 관한 연구(농업경영연구 A-8, 1967. 8)」, 1967년의 「精農家 농업경영 사례연구, -양잠, 낙농-, (농업경제연구 A-9, 1967. 10)[10]」, 1970년의 「서울근교 낙농 경영개선을 위한 사례분석 연구」, 1972년의 「주요 낙농지대의 낙농경영과 자원이용에 관한 연구(농업경제연구보고 제45호, 1972)」 등을 들수 있다. 이외에도 양잠농가 70호의 기장자료와 청취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양잠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농업경제연구 A-18, 1968. 8)」, 「주요 과수 수익성 분석(농업경제연구자료 제21호, 1972. 4)」, 「영농모형별 소득추정(농업경제연구자료 제25호, 1972. 11)」 등이 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도 「서울근교 낙농경영에 관한 조사보고(1967)」, 「낙농경영조사보고(1970)」, 그리고 농업지대별 농업경영분석의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농업경영의 유형과 지표, -주요 농업지대를 중심으로-, (1969. 12)」가 있다. 특히, 여기서는 전국적으로 우리의 농가유형을 41개 유형으로 나누고, 직접비교법을 전제로 모두 56개 항목의 자료와 지표를 산출, 제시했으며, 농업경영지표는 농가 전체에 대한 "종합경영지표"와 작목별 경영지표에 해당되는 "생산부문별 경영지표"로 나누었고, 각각의 지표는 "최고지표"와 "평균지표"로 나누고 있어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 제7집, 1964. 12)」, 1968년의 「서울근교 낙농경영에 관한 조사보고」 등이 속함.

9) 여기에는 경북대 하병욱 교수의 「주곡식 농업과 주곡 원예 겸업농가의 소득에 관한 연구(농업경제연구 제4집, 1961. 12)」와 「농가경제의 수지균형에 대한 조사(농업경제연구 제5집, 1962. 12)」, 진주농전 김후근 교수의 「농업경영형태별 농업소득의 분석(농업경제연구 제9집, 1967. 9)」 등을 들수 있음.

10) 연간 4회, 1회당 1주일씩의 농가주재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집계, 분석하여 10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와 각 농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제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농가유형의 분류가 지역과 답/전작여부, 답/전작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되지 못하고 단 한차례의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정부의 농가경제조사사업에서 얻어진 농가별 자료를 이용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각 농가들이 자신의 경영성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적 성격의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경영연구소가 농업경제연구소로 개편된 1973년을 전후해서부터는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보다는 정부의 농업정책이나 농촌지도 및 보급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성 혹은 수익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초기에 해당되는 1973/74년에는 「주요 과수 및 서류의 지역별 경영방식 및 생산성(농업경제연구자료 제28호, 1974. 3)」, 「한국낙농의 현황과 경영실태 조사보고(농업경제연구보고 제65호, 1974. 6)」 등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특히, 「한국 낙농의 현황과 경영실태 조사보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의 36개 서울지구 회원농가들이 1971년 4월 1일부터 1973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기장한 영농일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기장자료를 근거로 한 농업경영분석의 국내 최초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업경영분석방법에 관한 논의는 전북대학의 이동호 교수의 「농업경영진단의 제 방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전북대 논문집 자연과학편 제18집, 1976)」이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주성분 분석법에 의한 농업경영진단(농업정책연구 제4권1호,1977. 10)」, 「다변량 분석법의 응용에 관한 고찰(농업정책연구 제5권1호, 1978. 12)」이라는 논문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생산비 산출방식이나 농업경영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경영 개선방안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긴 했지만 농업경영분석에 관한 연구는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후 1987년에 이르러 「비육우 경영농가의 주성분 분석[11]」과 「낙농경영에 있어서의 그 종합지표의 작성과 경영평가에 관한 연구[12]」,

11) 허신행 외, 「농촌경제」, 제10권 제3호, 1987. 9.
12) 김형화, 「농업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1987. 12.

그리고 1989년에는 「사육규모별 한우비육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13]」, 1990년에는 「다변량 분석에 의한 낙농경영의 분석지표 확정과 경영진단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14]」 등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경영 및 농업경영 분석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인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농가의 생산현장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농업경영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듯 했으나 그의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뒤따르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와 경영의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낙농 이외의 분야까지로 그의 영역을 넓혀나가지 못함으로서 큰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농업경영진단사업은 유럽국가들의 경우 중세의 莊園制度로부터 농업경영과 농업경영 분석이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다. 처음에는 莊園내에서의 부문별, 기간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차츰 莊園間, 경영체간의 비교분석으로 발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부터 각 대학의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사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전산장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됨으로서 1980년대 초부터는 경영진단 대상농가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예컨대 하노버(Hannover)대학의 「원예경영연구회(Arbeitskreis Betriebswirtschaft im Gartenbau e.V.)」는 1957년 연방 농림성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농가들에 대한 경영진단사업을 시작했으며, 각각의 농가들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와 유사농가군[15]의 그것과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한 「소견서(Beratungsbrief)」

13) 권오옥, 「농업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1989. 12.

14) 강성해 외, 「농업경영과 농촌개발연구(권택진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1990. 5.

15) 대분류 단계에서 채소, 과수, 화훼, 정원수 원예농가로, 중분류 단계에서 작목군별(예: 절화류, 분화류, 핵과류, 채소류 등)과 시설재배와 노지재배별, 규모별(재배면적, 보유노동력, 조수입), 전문경영과 복합경영별, 직판비율별(직판 75% 이

를 각각의 농가들에게 보내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매년 발간되는 자료집[16]은 실존농가들의 현실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영농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기획자료로서의 신빙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1938년에 京都大學의 大槻正男 교수의 「自計式(京大式) 農家經濟簿」 창안을 계기로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진단사업이 시도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관공서, 농협 등은 물론, 사료회사, 채란 및 계란공급업체 등의 개인기업체 등에서 100여종이 넘는 부기양식이 개발되어 쓰여지고 있을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17]. 「京都大學 農學部 農業簿記研究施設」에서 1934년에 시작된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사업은 농가의 영농부분뿐만이 아니라 가계부분까지를 포함한 "농가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장농가의 숫자도 京都市를 중심으로 한 8개의 농고 졸업생 중에서 선정한 60여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매년 발간되고 있는 「自計式農家經濟簿 記帳結果分析報告書」는 농가번호에 의한 농가별 분석결과와 전체 농가의 평균치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계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상농가의 수가 많지 않으며, 비교를 위한 유사농가군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등 그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농가간의 비교분석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그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는 Cornell 대학의 G.F.Warren 교수를 중심으로 실험농장의 시험성적을 표준으로 농가별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비교분석법을 개발, 제시함으로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특히 농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전산장비의 보급확대를 통해서 더욱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상, 75% 미만) 등으로, 세분류에서 상위 1/3, 하위 1/3, 전체 평균으로 구분된 농가군(유형별 농가군)을 말함.

16) Arbeitskreis Betriebswirtschaft im Gartenbau e.V. Hannover, 「Beratungs- und Informationssystem Gartenbau, Kennzahlen für den Betriebsvergleich」.

17) 정부차원에서의 농가경제 조사사업은 1913년에 시작되어 중단되었다가 1921년부터 다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정책자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우리 나라의 경우 개별적인 경영단위, 즉 각각의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1970년의 「서울근교 낙농경영개선을 위한 사례분석 연구[18]」가 최초의 시도였으나 단 한 차례의 분석에 그쳤다.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농업경영진단사업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1980년부터 50개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낙농농가 경영진단사업」이 유일한 것이다.

18) 젖소 사육두수가 70두와 25두로 각각 다른 두 농가의 경영요소 및 경영성과를 13개의 경영진단지표를 산출, 비교하고, LP-계획모형을 이용, 합리적 자원배분과 적정규모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농가에 소견서를 제시한 연구보고서임.

제 3 장

농가의 장부기장과 분석방법

1. 기본전제와 분석단계

농가들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농가의 농업경영분석은 농가 스스로가 밝힌 농업경영활동과 농업경영성과(혹은 실적)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농가의 장부기장은 그의 기초이자 시작이다. 농가가 자신의 농업경영활동과 농업경영활동의 성과(혹은 실적)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밝히지 않으면 농가의 경영 개선을 위한 농업경영 분석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가의 장부기장을 어느 정도나 기대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1.1. 농가의 기장

농가로부터의 자료 획득, 즉 농가의 기장은 크게 다음의 4가지 관점에서 그의 현실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농가의 기장능력이 여러 계정과 항목들로 구성된 복식부기를 감당할 수 있느냐?이고, 둘째는 지금까지 경험한 기장양식과 기장요령 및 기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통일되

어 있으며, 이에 농가들이 얼마나 숙달되어 있는가?. 셋째는 기장한 결과가 어디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고, 그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농가들의 평가는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의 기장이 매일매일의 습관처럼 정착되어 있는지?가 그것이다.

우선 우리 농가들의 기장능력은 Journal-형식의 가계부나 영농일기의 수준을 넘어서, 원장과 분개장, 그리고 여러 개의 계정과 계정과목으로 구성된 복식부기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농가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복식부기를 쓰게한다면 자칫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자료를 얻게 되고, 이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경영분석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기장은 Journal-형식의 쓰기 쉽고 단순한 형태의 단식부기를 통해서 '있었던 사실'을 분개장과 원장, 그리고 해당 계정을 찾아서 각각 기록하지 않고 단 한번만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되, 그의 결산과 경영진단을 위한 그후의 과정, 즉 계정별 혹은 항목별 분류와 집계부터는 연구진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둘째, 우리 농가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기장양식과 기장요령 및 기준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하여 농협, 새마을운동본부, 사단법인 농업기술자협회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고, 현재 농가들이 기장할 의사만 있으면 기장양식을 구하여 장부를 기장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그의 양식과 기장요령이 각각 다르고 평가방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식과 방법을 매년 택하지 않는 한 매번 혼란이 가중되며, 특히 대부분이 가족경영의 형태로 영농부문과 가계부문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나 거래 혹은 어디까지를 영농부문, 즉 농업경영부문에 포함시키고 어디까지를 영농부문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인지?가 농가마다, 그리고 기장양식을 만들어 보급하는 기관들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이 농가들을 혼란스럽게 함은 물론, 농가들이 기장에 숙달되고, 장부기장을 당연한 경영주의 일과중 하나로 정착시키데 중요한 저해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모든 기장 농가가 동일한 양식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동일한 요령으로 기장토록 하고, 농가들이 직면한 기장상의 어려움과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가졌으며, 이와 병행하여 기장 및 경영과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 바, 모두 3차례였으며, 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ㅇ 1차 교육: "선진농가 경영진단사업 설명회 및 간담회"
  - 일시: 1992. 4. 30. 13:00- 5. 1. 13:00(1박 2일)
  - 장소: 당 연구원 강당 및 베어스 타운(경기 포천)
  - 참석인원: 농가 30명 및 당 연구원의 6개 연구실 실장(생산, 유통, 지역개발, 사회복지, 국제농업실)
  - 주요 행사 및 교육내용: 사업설명, 원장 특강(기술농업시대와 전문농업인), 부원장 특강(UR과 각국의 농업동향), 강의(기장요령, 농업경영과 농업경영개선), 스라이드 교육(네델란드의 첨단 시설원예), 농가와 연구실 실장들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
- ㅇ 2차 교육: "1992년도 선진농가 경영진단사업 보고회 및 간담회"
  - 일시: 1992. 12. 11. 13:00-12. 13:00(1박 2일)
  - 장소: 당 연구원 강당 및 올림픽 유스호스텔(서울 올림픽 공원)
  - 참석인원: 28농가 42명(일부 부부동반) 및 당 연구원의 6개 연구실 실장(생산, 유통, 지역, 개발, 사회복지, 국제농업실)
  - 주요 행사 및 교육내용: 사업보고, 우수기장농카(10농가) 표창, 원장특강(UR과 우리의 각오), 강의(작목선택과 영농계획 수립, 자금관리, 판매전략, 부기기장과 경영분석, 투자와 투자의사결정), 스라이드 교육(화훼 및 시설원예 첨단기술), 농가와 연구실 실장들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
- ㅇ 3차 교육: "1993년도 선진농가 경영진단사업 보고회 및 간담회"
  - 일시: 1993. 12. 10. 13:00-11. 13:00(1박 2일)
  - 장소: 당 연구원 강당 및 경성/백제 호텔(서울 강남구)
  - 참석인원: 28농가 40명(일부 부부동반) 및 당 연구원의 6개 연구실

실장(생산, 유통, 지역, 개발, 사회복지, 국제농업실)

- 주요 행사 및 교육내용: 사업보고, 우수기장농가(10농가) 표창, 원장 특강, 강의(경영개선과 부기기장, 계정과목의 분류와 일계부의 구성, 재물조사 요령과 재산대장 작성요령), 비디오 교육(일본 오이따현의 1촌1품운동 사례 "매실과 밤으로 하와이에"), 농가와 연구실 실장들과의 토론 및 질의응답

셋째, 장부기장 및 그의 결과에 대한 활용도와 필요성에 대한 농가들의 평가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영농후계자나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선발되었던 농가들은 물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했던 농가들은 거의가 최소한 한 차례 이상씩 영농일지나 일계부를 매우 성실하게 기록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들의 기억력을 보완 해주는 정도로 활용될 뿐 기장내용을 집계/결산/분석하여 그의 결과를 경영 개선에 활용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장의 필요성과 그를 근거로 한 경영분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경험한 농가가 거의 없으며, 한 때의 '성실한 기장'이 '경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농가들이 기장하여 되돌려보내준 일계부 내용을 계정별, 항목별 등으로 집계, 결산,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각 농가에 통지, 설명해주고 그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등의 작업을 병행했으며, 그 결과는 매우 호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가의 기장이 매일매일의 경영주의 중요한 일과중 하나로 정착되어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우선 기장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감독이 없고, 오직 스스로의 각오에 의할 뿐 아니라 농번기에는 피곤하고 바빠서 농한기에는 농사일이 불규칙적이어서 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고, 기장을 잊고 넘긴 날짜가 하루 이틀 늘어나게 되면 그의 회복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농가의 자발적인 '매일 매일의 꾸준한 기장'이 정착되기 어렵다. 물론 매일 매일의 꾸준한 기장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농가의 기장을 통상의 1년 단위를 1개

월 단위로 나눔으로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즉, 매월 20일에 다음 달에 기장해야 할 일계부(양식)를 보내주고, 기장된 일계부는 다음 달 초에 반송되도록 하는 '월단위 기장방식'을 택한 바, 이는 농가의 기장중단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일시적으로 기장이 누락되더라도 기억을 되살려 복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2. 집계 및 결산과 분석

또한 우리의 농가 현실은, 한 두가지 작목을 전문화한 전문농과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복합농이 함께 있고, 전문농이라고 할지라도 주력작목이 자주 바뀌는 등 그의 유형이 안정적이지 못한 편이고 농가의 "농업경영활동"이 자신의 농산물 생산이나 판매에 그치지 않고 다른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나 다른 농가의 농작업 수탁 혹은 농작업 참여(농업노임수입 등) 등으로 다양하며 불규칙적인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기장양식과 분석방법을 각각 다르게 해야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기장양식이나 농업경영분석방법을 모든 농가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부문을 축으로 한 분석체계를 택한 바, 하나는 농가, 즉 작목이나 유형을 불문하고, 하나의 '농업경영체'가 달성한 농업경영성과, 즉 '전체 농업경영에 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그안에 포함된 특정부문, 즉 '부문(작목)별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두 부문을 모두 분석함으로서 작목선택이나 작목조합의 적절성 여부와 같은 경영요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가 작목을 전환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부문(작목)별 경영분석만을 추가하거나 바꿔주면 곧바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문(작목)별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은 우리 농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작을 비롯한 과수, 노지채소, 시설채소, 축산의 5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작목으로, 수도작, 사과, 양파, 시설딸기, 한우비육의 5가지 작목으로 제한한 바, 이는 그외의 작목들에 대한 분석도 이상의 5가지 작목

을 기초로 각 작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씩만 수정, 보완하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농가의 농업경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즉 농가의 농업수입과 농업지출은 그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농가의 본업이고 농가의 농업경영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으로부터 기인된 수입과 지출(편의상 '자가생산 농업수입(혹은 지출)'으로 칭하고자 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지만, 농가의 농업경영활동(예:타가의 농작업 참여, 수탁작업, 他家生産 농산물의 취급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편의상 '비생산 농업수입(혹은 지출)'으로 칭하고자 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농자산의 매입/매각과 같은 투자활동이나 영농차입금의 차입/원금상환, 보조금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과 같이, 넓은 의미의 농업경영활동에 속하기는 하지만, '농업경영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농가의 '가계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 즉 농업부문에 속한 '재산적 수입(혹은 지출)'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어떤 농가의 농업경영성과를 분야별, 원인별 등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개선이 시급하더라도 그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 지가 막연해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컨데 한 농가의 '농산물 생산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과다한 이자지출(영농차입금에 대한) 등으로, 그의 전체적인 농업경영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그의 요인과 개선방안은 '비생산 농업지출' 부문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방안은 주로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부문에서 찾아져야 하는 바, 농가의 농업경영성과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될 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취급(대리 혹은 위탁판매 등)하거나, 다른 농가들의 농작업에 참여하거나 농작업 수탁 등의 농업활동이 농업경영성과에 비록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 이외의 농업

활동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해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농업경영활동 및 그의 성과를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자가생산 농업수입(혹은 지출))'과 '그외의 농업경영활동(비생산 농업수입(혹은 지출)),' 그리고 '재산적 수입(혹은 지출)'으로 나누고,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대한 분석과 경영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농업경영활동과 그의 성과는 하나의 동일한 회계년도(혹은 영농년도), 혹은 1 期作 안에서 모두 行해지고, 그의 결과(혹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서, 그의 期別 농업경영성과가 회계(영농)년도, 혹은 期作別로 뒤섞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當年産'과 '前年産'을 구분했다. 다만, 이러한 구분은 수입부문에서 많이 나타난 바, 벼나 양파와 같은 농산물은 전년산 재고가 당년에 판매되었지만, 그의 영농성과는 전년도의 영농활동에 귀속되어야 하고, 그 대신 당년산 재고는 비록 그로인한 '수입의 실현'이 차년도로 이월되지만 당년도의 영농활동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출의 경우는 그의 대부분이 당해년도분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출되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 생산자재와 당년도에서 차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생산자재의 차이가 극히 미미하고, 특히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정과 항목이 훨씬 많아져야 하고, 이는 농가들의 기장과 그의 집계/결산 및 분석작업을 그만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농가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경영분석은 모두 6단계로 구분된 과정을 거친 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의 기장→기장자료의 분류 및 집계→결산 및 집계표 작성→경영지표의 산출→유사농가군, 혹은 표준과의 비교분석→경영개선방안의 제시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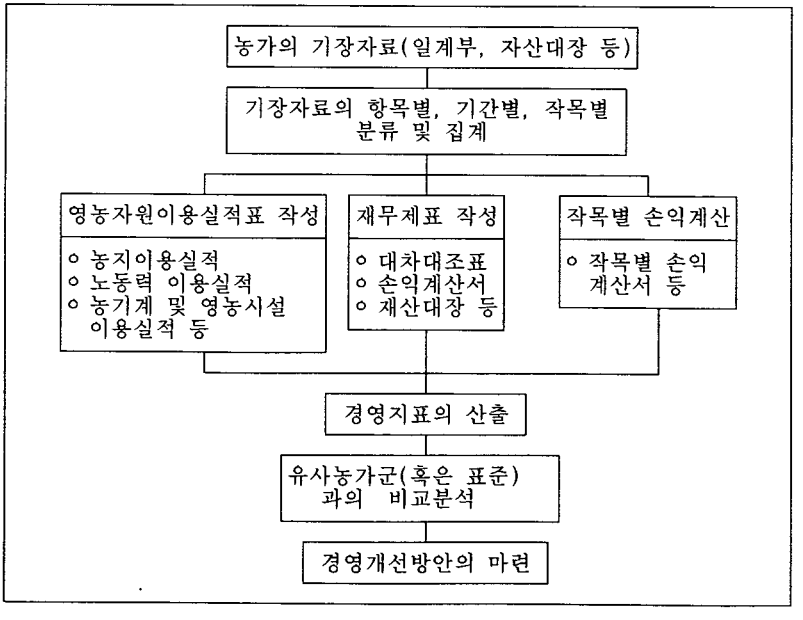
제1단계는 농가의 기장과 기장된 자료의 획득단계로서, 농가는 매년 한 번 작성하는 재산대장과 매일매일 기장해야 하는 일계부를 기장하여 보내주도록 했다. 재산대장(부록 참조)은 매년 초에 영농자산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기록토록 하고, 매일매일의 현물 및 현금거래, 영농물재의 사

용, 농작업 및 농기계 사용 등, 자신의 영농활동은 일계부(부록 참조)에 기장하여 매월 보내주는 방식을 택했다.

제2단계는 이렇게 획득된 기장자료를 항목별, 계정과목별, 작목별, 기간별 등으로 분류하고 집계하는 과정이다. 농업생산의 유기성으로 그의 항목과 계정과목 등이 비교적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의 분류는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농가에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2단계 부터는 연구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제3단계는 이를 근거로 농가의 농업경영성과를 집계하고 결산하는 단계로서, 「영농자원 이용실적표(농지, 노동력, 농기계 및 영농시설 등의 이용실적에 대한 집계표)」의 작성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대장」 등의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재무제표(결산서) 작성, 그리고 「부문(작목)별 손익계산서」 작성이 그것이다.

그림 3-1 농업경영분석의 단계와 과정



제4단계는 이같은 결산서들을 근거로 경영지표를 산출하는 단계로서, 결산서상에 나타난 농가의 경영실적을 그와 유사한 농가들이나, 또는 어떤 표준적 성격의 그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 평가(상대평가)하고 각각의 취약점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표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5단계는 그의 규모나 유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농가들의 지표화된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각 농가의 경영지표들을 비교, 분석, 평가하는 단계로서, 해당농가의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취약한 정도를 찾아내는 단계이다.

제6단계는 제5단계에서 도출된 취약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서, 여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업경영분석에 관한 이론이나 지식뿐만이 아니라 농학과 관련된 재배(사양)기술, 냉난방기술, 토양학, 비료학, 병리학, 농약학, 생리학, 가축 위생학, 기계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보다는, 농가가 그의 개선을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만족하고자 했다.

2. 농가의 장부기장

2.1. 기장농가와 기장 실적

기장농가의 선정은 농업경영과 경영성과의 분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스스로 기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35세 미만의 영농후계자로서 「기장을 희망하는 농가」들 중에서 선정했다. 1990년 초에 1차로 선정한 200여명의 영농후계자들에게 기장 참여 여부를 우편 조회하여 기장을 희망한 62명으로 출발, 1992년 5월부터 기장을 시작했고, 1993년 2월에 그동안의 기장실적이 극히 부진한 27개 농가를 제외시키고 20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55명으로 조정했고, 1994

년 1월부터는 2개월 이상 기장이 중단된 농가들을 그때그때 제외시켰으며, 1994년 12월 말까지 기장을 계속한 농가는 모두 12 농가에 그쳤다.

한편 농가의 지속적인 기장을 독려하고, 기장된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기장내용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기장상의 어려움과 의문사항을 해소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농가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히 집계, 결산, 분석, 진단하기 위해서, 매년 한차례 이상씩 농가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의 개별적인 접촉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기장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집, 검토하여 기장양식을 개선해온 바, 1992년 5월부터 쓰기 시작한 최초의 양식은 재산대장의 경우 1993년 11월에 한차례, 일계부는 1992년 8월과 11월에 각각 수정, 보완되었다.

표 3-1 기장농가별, 연도별 기장실적

농 가 별	1 9 9 2. 5-	1 9 9 3	1 9 9 4
수도작-1	1992. 5~1993. 4	1993. 1~ 12	1994. 1~ 12
수도작-2	1992. 5~1993. 4	1993. 1~ 12	1994. 1~ 12
수도작-3	-	-	1994. 1~ 12
수도작-4	-	-	1994. 1~ 12
사과 - 1	1992. 5~1993. 4	1993. 1~ 12	1994. 1~12
사과 - 2	1992. 5~1993. 4	-	-
사과 - 3	1992. 5~1993. 4	-	-
양파 - 1	-	1993. 3~1994.2	1993. 7~1994. 6
양파 - 2	-	1993. 3~1994.2	
시설딸기-1	-	1993. 3~1994.2	-
시설딸기-2	-	1993. 3~1994.2	-
한우비육-1	1992. 5~10	-	
한우비육-2	-	-	1994. 1~ 6
감자+무우	-	1993. 1~12	1994. 1~12
정원수+약초	1992. 8~1993. 7	1993. 1~12	1994. 3~12
한봉+흑염소	1992. 5~1993. 4	1993. 1~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장실적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즉 처음 기장을 시작한 1992년 5월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6개월 혹은 그 이상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기장하여, 그의 결과를 집계, 결산할만한 경우는 16개 농가에 불과하고, 1년(일부는 6개월)을 기준으로 결산한다면 모두 27개 경우에 불과하며, 이를 요약하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만, 농가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서 농가의 이름을 대신했다. 또한 그중에는 여기서 다루고자 한 5가지 작목 이외의 작목을 주력작목으로 한 농가(3농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주력작목 보다는 자발적인 기장의사를 전제로 기장농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3개 농가의 7가지 경우는 상호간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의 집계 및 결산결과는 본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농가별로 통보해주는데 그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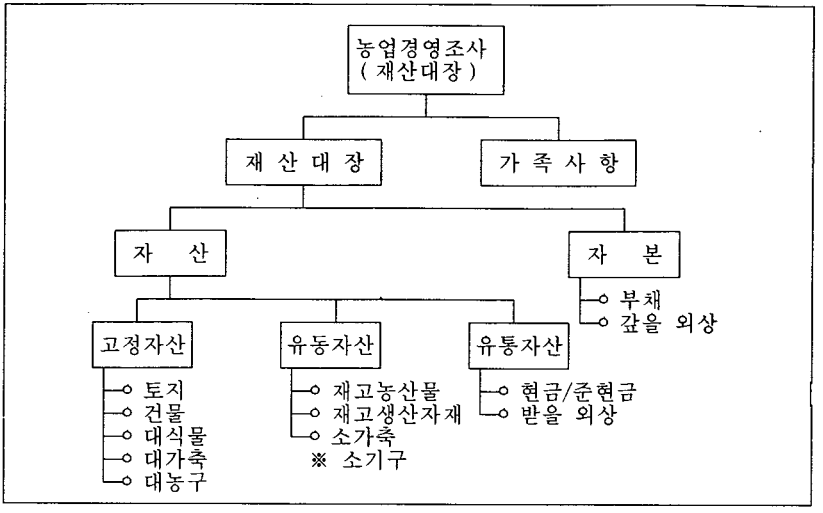
2.2. 재산대장

재산대장은 매년 초에 한번 작성토록 했으며, 영농에 투입, 혹은 이용된 자산, 즉 영농자산에 한해서 작성토록 했다. 재산대장에는 동거가족에 대한 기록(가족사항)을 함께 포함시킨 바, 이는 단순히 동거가족과 노동력을 따로 파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다. 재산대장은 주로 농가가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업경영에 이용, 혹은 투입할 목적으로 갖추고 있는 모든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대장'이라는 부제를 가진 "농업경영조사부"의 구성은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재산대장 양식은 <부록>에 포함시킴).

또한 각각의 항목은 그의 종류, 물량, 규모, 금액 등의 세부적인 항목들로 구성된 바,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만 상당 수의 농가들이 주택이나 대지, 임야, 교육보험 등과 같은 비영농자산을 이에 포함시켰으나, 집계단계에서 이를 제외시킴으로서 농가의 비농업부문에 의한 농업경영부문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기장내용 중, 그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방문이나 전화통화에 의한 본인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때그때 수정, 보완해왔다.

그림 3-2 재산대장의 구성



한편 각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평가액'은 구입가격을 원칙으로 해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구입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장 첫해에 한해서 주변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장토록 했다. 따라서 기장 둘째 해에는 새로 추가되거나 폐기 혹은 매각한 경우와 그의 내구년수를 다시 조정해야 할 정도로 파손 혹은 수리/보수된 경우에 한해서 그의 '평가액'을 다시 기장하고 그외의 경우는 첫해의 '평가액'을 기준하도록 했다.

또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 항목에 있어서의 '향후 사용가능년수(혹은 '향후 경제수령', '향후 경제축령')'에 있어서도 농가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의 경험치를 참고로 농가 스스로가 평가하여 기장토록 했다. 이는 농림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와 현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용년수가 8년으로 되어있는 동력경운기나 고성능 분무기(수도용)를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고, 이앙기는 6년, 콤바인은 8년으로 각각 되어 있는데, 4년 정도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되어 폐기시킨 농가들이 허다하다.

표 3-2 재산대장의 항목별 세부내용

항 목 별	세 부 기 장 내 용
가 족 사 항	관계/성명/연령/노동능력/생년월일/비고
토 지	종류/내용(지번 등)/면적(평)/평가액/통작거리/구입년도/특기사항
건 물	종류/내용(구조 등)/규모(평)/평가액/최초설치년도/ 향후 사용가능년수(추정)/특기사항
대 식 물	작물명/품종/주수/평수/식재년도/평가액/향후 경제수령(추정)/특기사항
대 가 축	종류/품종/자웅/축령/두수/단가/평가액/향후 경제축령(추정)/특기사항
대 농 구	종류/내용(형식, 규격, 제조회사 등)/대수/평가액/구입년도/향후 사용가능년수(추정)/사용연료/특기사항
재 고 농 산 물	종류/내용(품명,품종 등)/생산년도/수량/단가/평가액/특기사항
재고생산자재	종류/내용(품명,규격 등)/구입넝도/수량/단가/평가액
소 가 축	종류/품종/자웅/축령/마릿수/단가/평가액
현 금 / 준 현 금	종류/내용(예금의 명칭 등)/평가액/특기사항
부 채	종류/내용(자금의 명칭 등)/차입년도/현잔액/상환조건/특기사항
받 을 외 상	종류/내용/외상거래처/매출일자/금액/특기사항
갚 을 외 상	종류/내용/외상거래처/매입일자/금액/특기사항
소 기 구	종류/내용(형식,규격,제조회사 등)/수량/평가액/특기사항

2.3. 일계부

일계부는 농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농작업 및 활동과 영농자재 및 산출물의 거래, 영농자원의 이용 등의 모든 농업경영활동과 상황(혹은 실적)을 매일매일 농가들이 기록해야 할 장부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월간영농계획, 경영지 약도, 경지면적 및 재배작물 현황, 가축사양두수의 4가지로 구성된 그 달의 개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매일매일의 일지와 거래 및 농작업에 대한 '일계부' 본래의 부분이다. 각 부분의 구체적인 항목과 세부적인 기장 내용은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다(일계부 양식은 부록에 포함시킴).

표 3-3 일계부의 구성항목과 세부 기장내용

항목별			세부기장내용
월별개황	월간영농계획		일자/주요내용
	경영지 약도		(월초의 현황)
	경지면적 및 재배작물의 현황		(월초의 현황과 변동): 일련번호/지목/면적(평)/소유구분/작물명 변동상황(일자 및 내용)
	가축사양두수		(월초의 현황과 변동): 일련번호/가축명/세부구분/마릿수/변동상황(일자 및 내용)
일계부	영농일기장		월, 일, 요일/날씨/오늘의 특기사항/내일의 계획
	현금/현물거래장		내용(해당작목)/수량/수입/지출/생산물가계소비액(현물평가액)
	영농작업 및 자재사용 기록장	영농물재사용	작목/작업내용/영농물재명(규격,단위 등)/사용량/사용액
		노동력 투입	작목/작업내용/가족노동(남자/여자)/고용노동(남자/여자)/노임합계
		농기구 사용	작목/작업내용 농기계명(규격,성능 등)/자가농기계(시간/기름값) 타인농기계사용료

이러한 기장양식은 '한 건의 거래(혹은 하나의 사항)'를 한번만 기록하는 Journal형식의 단식부기로서 농가, 즉 '자신의 경영활동과 현장을 직접 기록해야 하는 입장'에서 쓰기 쉽고 단순한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양돈농가가 사료를 준 사실은 '영농작업 및 자재사용 가록장'의 "양돈(작목)/사료급여(작업내용)/비육사료(영농물재명)/25kg 2포(사용량)/4,200원(사용액)/1시간(가족노동 남자)"으로 한가지 시실을 하나의 양식 안에서 해당 란에 단 한번만 기록하면 되도록 했다. 이를 복식부기로 기장하려면 최소한 현물거래장(분개장)과 사료장부(원장), 그리고 영농작업(노동력)을 기록하는 장부를 찾아서 각각 기록해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만 실수해도 그의 집계결과가 상호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경우 어느 것을 옳은 것(혹은 기준)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제 4 장

농업경영성과의 분석 및 진단결과

1. 개 요

1992년 5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32개월간의 장부기장 중에서 최소한 1년 이상(한우비육은 6개월)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기장하여 그의 결과를 집계, 결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13개 농가의 20개 경우에 불과하다(표 3-1 참조). 여기서 최소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기장된 경우를 기준한 것은 농가의 농업경영활동이 대부분의 경우 1년을 주기로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과는 물론 그의 재배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 수도작, 양파, 시설딸기도 1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우비육의 경우는 그때그때 한우를 사들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며, 어떤 특별한 주기를 기준으로 거의 비슷한 규모와 방식으로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1년이라는 일반적인 영농주기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다른 어떤 주기를 기준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특히, 본사업에 참여한 한우비육 농가중 6개월 이상 기장을 계속한 농가가 2개 농가에 불과했고 비록 4계절을 모두 경험한 12개월분은

아니더라도 6개월 정도라면 그런대로 분석, 평가할 만 하고 농가의 경영개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계/결산 및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992년 5월부터 1993년 4월까지의 수도작 2 농가의 기장내용은 집계 및 분석에서 제외한 바, 1992년 5월부터 12월까지에 기장된 수도작의 재배면적, 재배품종, 단수 등과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그것이 조금 씩 다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농가가 1994년 12월까지 꾸준히 기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과 농가의 경우는 비록 수령이 1년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사이에 행해진 겨울전정이나 퇴비 시비 등의 작업이 거의 차이가 없고, 특히 1992년 5월부터 1993년 4월까지에 3개 농가가 동시에 기장을 했을 뿐, 그외의 기간에는 단 1개 농가만이 기장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집계, 결산, 분석된 것은 13개 농가의 18개 경우이다.

이러한 18개 경우는 각 농가의 주력작목을 기준으로 수도작농가, 사과농가, 양파농가, 시설딸기농가, 한우 비육농가로 나눈 바, 이는 각각의 농가구조와 농업경영활동이 주력작목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고 주력작목을 달리하는 농가들간의 비교와 평가가 농가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산기간이 서로 같은 경우를 상호 비교, 평가한 바, 이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에 의한 농업경영성과의 차이와 기상조건과 같은 자연환경과 가격 등과 같은 수급상황의 年度別 차이, 즉 '農家 外的인 차이'에 의한 농업경영성과의 차이가 뒤섞이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주력작목이 같고, 둘째는 결산기간(영농년도)이 같은 농가들간의 비교, 분석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주력작목은 같지만 결산기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중 한우비육 농가의 경우는 결산기간에 관계없이 상호 비교, 분석했으며, 1993년과 1994년의 사과에서와 같이 기장농가가 한 농가에 불과하여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농가의 1992년, 1993년, 1994년의 3개년에 대한 상호비교를 통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농가의 농업경영 전체에 대한 분석은, ① 수익성, ② 생산성, ③ 활

동성, ④ 유동성(안전성), ⑤ 성장성, ⑥ 집약도 그리고, ⑦ 영농자원 이용률의 7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부문별 분석은 수도작을 비롯한 농작물의 경우는, ① 수익성, ② 생산성, ③ 집약도, ④ 원가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했다. 한우비육의 경우는 그의 매입 및 매각이 불규칙적이어서 일정한 비육기간이나 단계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의 '비육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 위의 4개 분야에 추가됨으로서 5개 분야가 되었다.

2 수도작 농가

2.1. 농가의 개요

일정기간 이상 꾸준하고 성실히 일계부를 기장하여 그의 농업경영성과를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4개 농가의 6가지 경우다. 그중 2개 농가는 1992년 5월 1일 이후 199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기장해온 농가이고(수도작 농가-1과 -2), 다른 2개 농가는 그동안 몇차례의 시행착오끝에 1994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기장해오고 있는 농가들이다(수도작 농가-3과 -4). 이들의 경영개요를 살펴보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작만을 전문화한 농가-1은 총 18,450평(1993년, 혹은 20,250평(1994년))의 논과 논을 포함한 3억 1,659만원(1993년, 혹은 3억 9,733만원(1994년))의 영농자산, 그리고 1,552시간(1993년, 혹은 1,560시간(1994년))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6,623만원(1993년, 혹은 5,964만원(1994년))의 연간 농업수입을 얻음으로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경작규모가 그의 60% 수준인 11,230평(농가-2) 이하인 다른 모든 농가들은 수도작 이외의 작목을 함께 생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은 최고 5,015시간(농가-3)이 투입되어 농가-1의 3배 이상에 이르지만 연간 매출액은 농가-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경작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경작규모가 클수록 한가지 작목에 대한 전문화 경향이

표 4-1 수도작 농가의 경영개요

경 우 별		경작면적 (평)	경작면적 논면적	노동 시간 (h)	노동 시간 고 용	영농 자산액 (원)	연 간 농업 수입액 (원)	유 형
1993	농가-1	18,450	18,450	1,552	-	316,592,710	66,231,976 (76,231,976)	벼 전업
	농가-2	11,230	11,190	2,546	546	192,364,420	30,706,960 (34,906,960)	벼+한우 +벼창고
1994	농가-1	20,250	20,250	1,560	-	397,331,820	59,643,450 (64,143,450)	벼 전업
	농가-2	11,230	11,190	2,639	157	197,008,570	51,394,805 (58,094,805)	벼+한우
	농가-3	9,790	9,380	5,015	2,193	101,611,400	37,898,860 (42,868,860)	벼+담배 +약초 등
	농가-4	8,510	6,120	4,148	594	671,386,050	49,170,630 (105,970,630)	벼+느타리 버섯

주: ( )안은 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보조금에 의한 수입을 포함한 것임.

두드러진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엿볼수는 있겠으나 그의 分界点이 2만평 내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2. 농가의 농업경영 전체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실적이나 자료만으로는 당해 농가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혹은 지금까지와 같은 구조와 규모만으로는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농가의 농업경영성과를 수익성, 생산성, 활동성, 유동성/안전성, 성장성, 집약도,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의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2.1. 수익성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指標에는 소득이나 자기자본 수익과 같은 절대치 외에도 소득률,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률 등이 이용되며, 이들 指標와의 비교를 위한 당해 농가의 연평균 부채이자율 등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수익성, 특히 그 수익이 어디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냐?(혹은 그 수익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나 여기서 전제로 한 수익 및 수익성은 다음과 같다.

	자가생산 농업수입 + 비생산 농업수입 = 농업수입
-)	자가생산 농업지출 + 비생산 농업지출 = 농업지출
=	농 업 소 득
-)	자 가 노 력 비 평 가 액
=	자 기 자 본 수 익
-)	자 기 자 본 이 자 상 당 액
=	순 수 익

즉,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행해진 농업수입과 농업지출의 차액(농업소득)에는 아직 그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자가노력비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상당액, 그리고 '경영'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농가 자신이 고용노동력에 대해서 지불한 만큼의 자신의 노동력에 대가(자가노력비 평가액)와 농업경영에 동원된,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가 지불되지 않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농가 스스로가 지불하고 있는 연평균 부채이자율 적용)을 除한 것이 곧 농가의 경영활동에 대한 보수라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이들 4개의 수도작농가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소득은 1,488만원(농가-2의 1993년도)에서 최고 5,518만원(농가-1의 1993년도)으로 모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수도작 농가의 수익성 지표

구 분		연 간 소득(원)	자기자본 수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률 (%)	부 채 이 자율(%)
1993	농가-1	55,182,758 (56,737,658)	51,304,008 (52,858,908)	40,067,315 (41,622,215)	83.3 (86.1)	11.3 (18.8)	14.3 (14.8)	4.0
	농가-2	14,884,655 (15,756,361)	12,305,895 (13,177,601)	3,235,665 (4,107,371)	48.5 (52.1)	6.6 (7.1)	1.7 (2.2)	4.9
1994	농가-1	48,526,340 (49,791,530)	44,626,340 (45,891,530)	34,484,432 (35,557,622)	81.4 (83.5)	12.1 (12.4)	9.3 (9.6)	2.8
	농가-2	28,718,806 (29,945,515)	18,458,218 (19,684,927)	7,554,393 (8,781,102)	55.9 (58.3)	9.5 (10.1)	3.9 (4.5)	5.6
	농가-3	17,892,100 (17,420,100)	14,002,833 (13,530,833)	8,456,957 (7,984,957)	47.3 (49.1)	15.9 (15.4)	9.6 (9.1)	6.3
	농가-4	15,291,028 (20,921,028)	6,508,588 (12,138,588)	-30,650,911 (-25,020,911)	31.1 (42.8)	1.1 (2.0)	-5.1 (-4.2)	6.2

주): 1)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 및 자가 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2) 연간소득: 당년산 재고(차기이월), 재산적 수입(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 보조금에 의한 수입), 재산적 지출(영농자산 투자지출, 부채의 원금 상환지출)이 제외됨.
3) 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수입) × 100
4) 자가자본 수익률 = [(자기자본 수익÷(자기자본액+농업지출/2)] × 100
5) 순수익률 = [(순수익÷(자기자본액+농업지출/2)] × 100
6) 부채이자율 = (영농차입금 (지출)이자 ÷ 부채) × 100

그러나 자가 노동력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를 모두 감당한 경우는 3개 농가의 5가지 경우로 농가-4의 1994년도 농업경영실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농가-4의 1994년도의 농업소득은 자가노력비 평가액과 자기자본 이자 상당액(혹은 그중 어느 하나)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 농가의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가 "±0"을 유지만 하기 위해서도 3,065만원의 소득을

더 얻었어야 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529만원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농가를 꾸려가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순수익률이 자신들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농가-2의 1993년(1.7% : 4.9%)와 1994년(3.9% : 5.6%), 농가-4의 1994년(-5.1% : 6.2%)로서 이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그만큼 더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은 농가별 수익성은 이들의 본래의 기능인 자신들의 농산물 생산활동, 즉 '자가생산 농업수입'과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하더라도 그의 수치만 다소 달라질 뿐 상황과 추세는 큰 차이가 없다.

2.2.2. 생산성과 집약도

생산성은 물리적 단위(physical unit)를 기준으로 한 투입량 대 산출물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물리적 단위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산출물이 다양하고, 이들에 대한 물리적 단위도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물리적 단위로 합산하거나 또는 각각의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생산성을 모두 산출하여 비교하는 일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하겠다. 특히, 여기서는 특정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생산성이 아니라 한 농가의 모든 농업경영성과를 산출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물리적 단위를 기준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의 가장 핵심적인 '산출물'인 '농업소득'의 토지, 노동력, 자본에 대한 비율로 그의 생산성을 대신했다.

즉, <표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작면적 평당 소득은 1993년의 경우 농가-1은 2,991원(자가생산 농업소득 기준시 3,075원)으로 농가-2의 1,325원(자가생산 농업소득 기준시 1,403원)의 2.2배에 이르고, 노동시간당 소득에 있어서는 35,556원/시간 대 5,846원/시간(자가생산 농업소득을 기준하면 36,558원/시간 : 6,189원/시간)으로 6배에 이르며, 농가들이 농업경영에 투입한 모든 영농자산액 1원당 농업소득도 농가-1의 경우는 0.17원으로 농가-2의 0.08원의 2.1배에 이르는 등 그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수도작 농가의 생산성 지표

구 분		경지면적당 소득(원/평)	노동시간당 소득(원/h)	영농자산액 1원당 소득	자기자본액 1원당 소득
1993	농가-1	2,991 (3,075)	35,556 (36,558)	0.17 (0.18)	0.21 (0.21)
	농가-2	1,325 (1,403)	5,846 (6,189)	0.08 (0.08)	0.09 (0.09)
1994	농가-1	2,396 (2,459)	31,107 (31,918)	0.12 (0.13)	0.14 (0.14)
	농가-2	2,557 (2,667)	10,882 (11,347)	0.15 (0.15)	0.16 (0.17)
	농가-3	1,828 (1,779)	3,568 (3,474)	0.18 (0.17)	0.25 (0.24)
	농가-4	1,797 (2,458)	3,686 (5,044)	0.02 (0.03)	0.03 (0.04)

주: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이러한 차이는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작면적 평당(혹은 경지 이용면적 1 旬·坪當) 노동시간과 물재비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액의 차이와 수도작의 단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단수의 차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1993년 여름의 이상저온 현상에 의한 수도작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했던 경북 산간에 위치한 농가-2의 수도작 단수는 300평당 벼 418.5kg으로 농가-1의 801.3kg의 1/2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고 자신의 1994년도 단수인 745.3kg의 56.2%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표 4-11 참조).

그러나 <표 4-4>에서와 같이, 농가-2의 단위당 투입도 농가-1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그의 농가-2의 부진한 수익성에 대한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4-4 수도작 농가의 집약도 지표

구 분		노동시간		자가생산농업지출		물 재 비		경지면적당 대농구자산액 (원/평)
		坪 당 (분/평)	甸·坪당 (분/甸坪)	坪 당 (분/평)	甸·坪당 (분/甸坪)	坪 당 (분/평)	甸·坪당 (분/甸坪)	
1993	농가-1	5.1	0.3	496	29.2	214	12.6	671
	농가-2	13.6	0.7	1,292	66.5	367	18.9	795
1994	농가-1	4.6	0.3	489	30.6	213	13.4	530
	농가-2	14.1	0.7	1,910	96.7	1,155	58.5	643
	농가-3	30.7	1.8	1,843	109.6	458	27.0	1,826
	농가-4	29.2	2.3	3,284	254.1	1,606	124.3	4,009

즉, 노동력의 경우 경작면적 평당 연간 13.6분(혹은 경지이용면적 1坪 1甸 當 0.7분)으로 농가-1의 5.1분/평(혹은 0.3분/甸坪)의 2배 이상에 이르고, 물재비는 367원/평 : 214원/평(혹은 18.9원/甸坪 : 12.6원/甸坪), 물재비를 포함한 총 '자가생산 농업지출액'은 1,292원/평 : 496원/평(혹은 66.5원/甸坪 : 29.2원/甸坪)으로 농가-2는 자신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의 투입량이 농가-1에 비해서 적게는 1.7배(물재비)에서 많게는 2.7배(노동시간)가 많았으며, 농가-2는 바로 이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그의 수익성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상조건과 쌀의 수급상황이 4개의 농가에 거의 동일하게 작용했을 1994년의 경우에도 경작면적 평당 소득은 농가-1이 2,396원(자가생산 농업소득 기준시 2,459원)으로 농가-2의 2,557원(자가생산 농업소득 기준시 2,667원)에 약간 뒤지지만 노동시간당 소득에 있어서는 31,107원/시간 : 10,882원/시간(자가생산 농업소득 기준시 31,918원/시간 : 11,347원/시간)으로 거의 3배에 이른다. 이는 그들의 주력작목인 수도작의 收量(표 4-11 참조)이 747.6 kg/300평(농가-1) 대 745.3kg/300평(농가-2)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표 4-4>에서와 같이 농가-2의 단위당 투입이 농가-1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특히 자신의 1993년도 실적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이다. 즉, 노동력의 경우

14.1분/평(혹은 0.7분/旬坪)으로 농가-1의 4.6분/평(혹은 0.3분/旬坪)의 3배(혹은 2배) 이상에 이르고, 물재비는 1,155원/평 : 213원/평(혹은 58.5원/旬坪 : 13.4원/旬坪)으로 5.4배(혹은 4.4배), 물재비를 포함한 총 '자가생산 농업지출액'은 1,910원/평 : 489원/평(혹은 96.7원/旬坪 : 30.6원/旬坪)으로 3.9배(혹은 3.2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2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투입요소의 단위당 투입량이 농가-1에 비해서 여전히 높고, 그의 개선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농가-3과 농가-4는 토지생산성의 경우 경작면적 평당 농업소득이 각각 1,828원과 1,797원으로 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농가-1 및 -2의 2,600원 내외의 수준에는 크게 뒤지고 있고, 노동시간당 농업소득도 각각 3,568원과 3,686원으로 농가-1의 31,107원 및 농가-2의 11,347원과는 월등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가-1은 수도작만을 전문화한 농가이지만 농가-2는 수도작에만 메달리다가 1993년도부터 차츰 한우를 도입하고 있는 농가이고, 농가-3은 수도작 외에 담배와 하수오(약용작물)를, 농가-4는 느타리 버섯을 각각 재배했고, 이들 작목이 수도작에 비해 훨씬 집약적 작목이라는데에 그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 두 농가를 바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농가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혹은 類似한) 類型과 비슷한 규모의 농가를 '類似 農家群'으로 묶고, 그의 경영성과 분석은 동일한 '類似 農家群'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력작목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것을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할 수 없는 한 주어진 경작면적과 노동력, 그리고 자본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類型과 규모를 찾아서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분석은 前期 혹은 當期의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當期 혹은 次期의 농업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중장기적인 경영개선은 통상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분석이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임) 동일한 類型의 농가들간의 비교분석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類似 農家群'을 분류/설정할 수 있을 만한 숫자의 기장농가를 당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類似 農家群'의 분류와 설정에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했고, 농가의 농업경영 전체에 대한 분석과 농산물별 분석을 병행함으로서 類型 및 규모간의 차이에 따른 왜곡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2.2.3. 활동성

농가들의 농업수입의 투입자본에 대한 비율은,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자본회전율의 경우 최고치인 0.37(농가-3)과 최저치인 0.07(농가-4)를 제외하면 0.15 에서 0.21 사이로 영농자산이 1회전 하는데 대체로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회전율은 0.17 에서 0.25로 모든 농가에서 그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바, 이는 농가들이 비록 얼마간의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표 4-6 참조).

한편 농업수입에 대한 농업지출의 비율, 즉 경영자본 회전율은 최저 1.45(농가-4)에서 최고 5.9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경영자본에서 실제로 지불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除한 운전자본 회전율도 최저 1.98(농가-4)에서 최고 7.80(농가-1)로 농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출된 농업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운전자본은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수도작 농가의 활동성 지표

구 분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 전 율	경영자본 회 전 율	운전자금 회 전 율	경영자본 (운전 자금)	자가생산 농업수입
1993	농가-1	0.21 (0.21)	0.25 (0.24)	5.99 (5.96)	7.80 (7.76)	11,049,218 (8,494,218)	65,881,976
	농가-2	0.16 (0.16)	0.18 (0.18)	1.94 (1.91)	2.92 (2.88)	15,822,305 (10,523,805)	30,267,960
1994	농가-1	0.15 (0.15)	0.17 (0.17)	5.37 (5.37)	7.38 (7.38)	11,117,110 (8,087,110)	59,643,450
	농가-2	0.20 (0.26)	0.22 (0.29)	1.73 (2.25)	2.27 (2.96)	22,675,999 (17,257,499)	51,069,805
	농가-3	0.37 (0.35)	0.52 (0.49)	1.90 (1.78)	2.70 (2.53)	19,976,760 (14,029,660)	35,463,860
	농가-4	0.07 (0.07)	0.09 (0.09)	1.45 (1.44)	1.98 (1.97)	33,879,602 (24,843,852)	48,870,630

주: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한 것임.

2.2.4. 유동성 및 안전성

생산제품이나 생산 또는 경영방식 혹은 업종 등의 전환이 얼마나 용이한가?라는 측면에서의 '유동성'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는 농업생산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모든 채무를 당장에 변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의 생산규모(혹은 경영규모)의 축소나 위축 없이, 즉 고정자산의 감축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의 재정적인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전성'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수도작 사례농가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3의 71.8%를 제외하면 8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정자산의

총영농자산에 대한 비율인 고정비율에 있어서도 농가-1의 1994년도의 70.6%를 제외하면 8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안전한 영농자산인 토지자산의 총 영농자산에 대한 비율은 농가-2의 경우만 47.4%(1993년)와 46.3%(1994년)로 1/2에 미치지 못할 뿐 나머지 농가들은 모두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그의 유동성, 즉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반면 재정적 안전도는 1993년의 농가-1과 1994년의 농가-3 및 농가-4의 경우 부채 총액이 유동자산과 유통자산을 合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서 만일 모든 채무를 당장에 변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이 농가들은 경영규모, 즉 생산량의 감소를 뜻하는 고정자산의 감축이 초래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들이 期初 혹은 期末이라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모든 채무를 당장에 변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란 빗잔치나 破産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할수도 있겠다. 그러나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부채규모가 항상 일정수준 이하에 머물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채의 유동÷유통자산에 대한 비율'과 '단기성 부채의 유통자산에 대한 비율은 여전히 농가의 재정상태와 자금관리에 관한 유익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표 4-6 수도작 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구 분		자기자본 비율(%)	고정비율 (%)	토지자산 비율(%)	부채의 유동+ 유동자산 비율	단기성 부채의 유통자산 비율
1993	농가-1	84.9	88.6	83.5	131.9	-
	농가-2	87.4	82.5	47.4	71.8	-
1994	농가-1	88.6	70.6	66.5	39.0	-
	농가-2	88.9	85.0	46.3	73.9	-
	농가-3	71.8	86.2	60.0	203.5	41.0
	농가-4	85.8	87.1	64.1	110.1	2.5

2.2.5. 성장성

농가의 성장여부에 대한 평가는 최소한 2년 이상 계속해서, 그리고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기장한 농가에 있어서 가능하다. 그러나 농가의 투자활동, 투자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상황, 期末 여유자금 등을 통해서 그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다.

1992년 5월 이후 계속해서 기장해온 농가-1과 농가-2의 경우 1994년 1월 1일 현재의 총 영농자산은 1993년 1월 1일에 비해 25.5%(농가-1)와 2.4%(농가-2)씩 각각 증가했고, 자기자본은 그보다 높은 30.9%(농가-1)와 4.2%(농가-2)씩 각각 증가함으로서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그러나 농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인 농업수입(매출액)은 농가-1의 경우 前期에 비해서 9.9%가 감소한 반면 농가-2는 27.5%가 증가했다. 또한 총자산의 증가에 있어서도 농가-2는 고정자산의 증가(5.5%)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지만 농가-1은 총자산 증가율이 25.5%인데 비해서 고정자산의 증가율은 0.1%로, 재고 농산물이나 재고 생산자재를 중심으로 한 유동자산이나 예저금과 적립금이 대부분인 유통자산의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1의 25.5%라는 총자산 증가율이 반드시 '성장'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토지를 제외한 영농자산액(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내구년수가 짧은 농기계의 비중이 큰 농가, 즉 수도작만을 전문화한 농가-1이 15.7%(1993년, 1994년: 18.5%), 수도작+담배+하수오(약초)로 구성된 경종 복합농가인 농가-3이 22.4%로 농가-1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평균 내구년수는 6.4년(1993년, 1994년: 5.4년), 농가-3은 4.5년 임을 알 수 있다(여기서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임). 그러나 내구년수가 상대적으로 긴 건·축·시설물의 비중이 큰 농가들의 감가상각률은 그보다 훨씬 낮다. 즉, 한우사육에 필요한 축사의 비중이 큰 농가-2의 감가상각률은 7.9%(1993년, 1994년: 7.1%)로 그의 평균 내구년수는 12.7년(1993년, 1994년: 14.1년)에 이르고, 느타리 버섯 재배에 필요한 재배

사와 저온저장고 등의 비중이 큰 농가-3은 5.9%로 그의 평균 내구년수가 16.9년으로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수도작 농가의 성장성 지표

단위: %

구 분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감 가 상각률	상각적 립금률	투자 대 매출액	투자 대 감가상각비	기말 여유 자금(만원)
1993	농가-1	-	-	-	15.7	45.8	1.1 (1.0)	29.0	5,478
	농가-2	-	-	-	7.9	31.4	39.6 (34.9)	229.6	637
1994	농가-1	25.5 (0.1)	30.9	-9.9 (-9.5)	18.5	49.8	35.3 (32.8)	694.9	3,278
	농가-2	2.4 (5.5)	4.2	27.5 (68.7)	7.1	32.6	22.6 (15.2)	163.2	2,445
	농가-3	-	-	-	22.4	27.8	8.5 (7.5)	53.8	1,870
	농가-4	-	-	-	5.9	11.8	8.1 (3.7)	44.0	6,808

주: 1) 총자산 증가율의 ( )안은 고정자산 증가율이고, 매출액 증가율의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 한 것이고, 투자대 매출액의 ( )안은 재산적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한 것이고, 여기서 매출액이라 함은 농업수입(조수입)을 말함.

2) 감가상각률=감가상각비/감가상각자산액×100

3) 상각적립금률(감가상각적립금율)=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자산액)×100

4) 투자대 매출액(%)=투자지출액/농업수입×100

5) 투자대 감가상각비(%)=투자지출액/감가상각비×100

6) 기말여유자금=농업소득+감가상각비

감가상각 적립금을 그의 최초 구입(혹은 설치)가격으로 나눈 감가상각적립금률, 즉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사용된 내구년수의 비율은 농가-1의 경우 45.8%(1993, 1994년: 49.8%)로 거의 1/2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활동이 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농가-1은 1994년에 자가생산 농업수입의 35.3%(차입금 차입 등의 재산적 수입을 포함한 총 매출액(총 농업수입)의 32.8%)를 영농자산에 투자했고, 이는 당해년도 감가상각비의 6.9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농가-2의 감가상각적립률은 31.4%(1993년, 1994년: 32.6%)로, 총 내구년수의 1/3 정도가 지났으나 1993년에 자가생산 농업수입의 39.6%(매출액의 34.9%)를 영농자산에 투자한 것(1994년: 자가생산 농업수입의 22.6%(매출액의 15.2%))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3의 감가상각적립금률은 27.8%, 농가-4는 11.8%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4는 1992/1993년에 기존의 파이프 하우스에 보온덮개를 덮은 버섯재배사 외에 판넬식 재배사와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 배지소독을 위한 고압살균기를 설치하는 등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낮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期末 여유자금'은 그의 용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으나 농가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말 여유자금은 기술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에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았으나 지출된 것으로 간주했던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산출된다. 그러나 농가들은 가계와 경영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농가들의 생계는 바로 이 '기말 여유자금'에 의해서 유지되며, 농가들의 가계비 지출은 농가마다 다르지만 농업경영분석을 위해서 가계부문에 대한 수입과 지출까지를 모두 일계부에 기록하기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과 규모가 유사한 농가들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면 설령 가계비가 농가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말여유자금이 많을수록 次期에 投資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농가-1의 1994년도의 활발한 투자 활동은 1993년도의 기말여유자금(5,478만원)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하겠다.

2.2.6.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수도작 농가들의 경지이용률은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7%(농가-3)에서 55.1%(1994년) 사이로 대체로 50% 내외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지이용률은 경지면적에 그의 이용기간(旬=10일)을 곱한 경지이용면적을 연간 가용면적(경지면적 × 36旬)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으로서 수도작에 의한 경지점유기간(경지이용기간)이 통상 180일(18旬)을 넘지 않고 보리나 감자, 양파, 마늘 등의 답리작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로 이용된 자가노동시간의 가용 자가노동시간(=농업종사인 수 × 8시간/일 × 270일/년)에 대한 비율, 즉 자가노동력 이용율은 수도작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농가-1과 농가-2는 5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담배와 하수오(약초), 느타리 버섯이 수도작에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가-3과 농가-4는 87.1%와 82.3%를 각각 차지함으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총 노동시간에 대한 고용노동시간의 비율)도 이들 농가는 각각 43.7%(농가-3)와 14.3%(농가-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농가-2의 1993년도의 경우도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도 2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일부 필지의 도복피해 복구를 위한 벼 묶어세우기 작업으로 인한 것이며, 농가-1에 있어서는 일체의 고용노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고용노동력에 일체 의존하지 않는 농업경영이라는 농가의 경영방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모든 영농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는 수도작만을 전문화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8 수도작 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구 분		경 지 이용률(%)	자가 노동 이용률(%)	고용 노동 의존도(%)	시간당 고용 노력비(원/h)
1993	농가-1	47.2	47.9	0.0	(2,500)
	농가-2	54.2	46.3	21.5	1,289
1994	농가-1	44.1	48.2	0.0	(2,500)
	농가-2	55.1	57.5	6.0	4,134
	농가-3	46.7	87.1	43.7	1,378
	농가-4	50.0	82.3	14.3	2,694

주: 시간당 고용노력비(원/h)의 (2,500)은 농가-1이 실제로 지불한 노임이 아니라 마을의 평균적인 노임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자가노력비 평가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임.

2.3. 수도작 경영성과의 분석결과

2.3.1. 수도작 경영의 개요

사례 기장농가들의 수도작 규모는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게는 4,680평(농가-3)에서 많게는 20,250평(농가-1의 1994년도)으로 농가간의 차이가 적지 않고 수도작에 의한 조수입 규모는 그의 재배면적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배면적이 2만평 수준인 농가-1의 수도작 조수입은 當年産을 기준으로 5,200~5,300만원 내외이고, 1만평 수준인 농가-2는 3천만원 정도(이상저온에 의한 피해가 컸던 1993년은 1,800만원 수준이었음), 5천평 내외라고 할 수 있는 농가-3과 농가-4는 각각 1천만원과 1,500만원 내외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도작에 의한 수입(매출액)이 농가 전체의 농업농업(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게는 27.0%(농가-

표 4-9 농가별 수도작 경영개요

경 우 별		재배면적		노동 시간		수도작 조수입		수도작 지출	
		(평)	임차	(h)	고용	원	%	원	%
1993	농가-1	18,450	-	1,552	-	53,540,000 (5,881,976)	80.8 (99.5)	6,136,904	72.2
	농가-2	11,190	-	1,975	442	17,893,800 (26,103,960)	58.3 (85.0)	3,933,080	37.4
1994	농가-1	20,250	-	1,422	-	52,183,140 (59,643,450)	87.5 (100.0)	5,141,590	63.6
	농가-2	11,190	-	1,904	128	30,381,605 (21,190,805)	77.6 (54.1)	2,915,700	16.9
	농가-3	4,680	1,490	716	224	10,235,000 (9,893,200)	27.0 (26.1)	1,809,240	12.9
	농가-4	6,110	-	645	32	15,206,760 (14,346,000)	30.9 (29.2)	1,350,480	5.4

주: 1) '수도작 조수입'은 당년산(수매, 시판, 자가소비, 차기로 이월된 당년산 재고)을 기준했으며, ( )는 cash flow('전년산 재고'의 당년도 판매를 포함시키고, 차기로 이월된 '당년산 재고'를 제외시킴)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조수입 % = 당년산 조수입÷(자가생산 농업수입-당년산 재고+재산적 수입 이외의 비생산 농업수입)×100

3) 수도작 지출 % = 수도작 지출÷(자가생산 농업지출-감가상각비+재산적 지출 이외의 비생산 농업지출)×100

3)에서 많게는 87.5%(농가-1의 1994년도)로 그의 차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4개 농가는 그의 구성이 농지의 경우 수도작을 위한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기계에 있어서도 수도작을 위한 트랙타, 콤바인, 이앙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도작을 주력작목으로 한 농가'로 간주할 수 있다. 수도작의 매출액 비중은 농가의 의도나 생산작목의 구성보다는 작황이나 수급상황에 의한 가격에 따라서 그의 비중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의 비중이 반드시 몇 % 이상이어야 '수도작을 주력작목으로 한 농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도작에 투입된 노동력은 농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바, 1994년도

의 경우 농가-1은 그의 재배면적이 20,250평으로 농가-2의 11,190평의 1.8배에 이르는데도 투입된 노동력은 1,422시간으로 농가-2의 1,904시간의 75%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차이는 논의 필지 수와 필지별 크기, 그리고 그의 분산정도에 의한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들 농가의 재산대장에 의하면 농가-1은 모두 10개 필지에 필지당 면적이 최소 1,200평에서 최고 3,600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가-2는 필지 수에 있어서는 총 11개 필지로 비슷하지만 그중 5개 필지가 250평에서 360평 사이이고, 나머지 6개 필지중 500평짜리와 600평짜리가 각각 1개로 1,000평 미만의 필지가 모두 7개에 이른다.

한편 수도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물재비, 고용노력비, 위탁작업비, 그리고 임차료 등의 '기타 자가생산 농업(수도작)지출'과 농가의 농업경영체로서의 존재를 위해서 부담해야 할 '관리/유지비'의 수도작 持分(여기서는 수도작 조수입의 농업수입(cash flow 기준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함)을 합한 '수도작 지출'이 농가의 농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농가에서 수도작 조수입의 농업수입에 대한 비율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만으로 이들 농가의 수도작 경영에 있어서의 취약점이나 그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없다.

2.3.2. 수도작 수익성

농가의 수익성을 수도작 경영에 국한시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하나는 생산과 판매가 동일한 회계년도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작 이외의 작목에도 이용되는 농기계나 영농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농업경영체로서의 존속을 위한 부담비용과 같은 관리/유지비의 '수도작 持分'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전자의 경우 '前期(前年産)의 當年度 판매'를 前期(前年度)의 경영성과로 '當年産의 次期移越'을 當期(當年度)의 경영성과로 파악한 바, 그

의 경영개선이 판매나 재고관리 보다는 생산활동 부분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농가 농업경영 전체에 해당되는 '관리/유지비'에 수도작 조수입이 전체 농업수입(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여기에 수도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물재비, 고용노력비, 위탁작업비, 임차료 등의 '직접지출'을 더하여 '수도작 지출'로 간주했다.

사례농가들의 수도작 소득률은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농가-2의 1993년도의 51.7%를 제외하면 농가-1이 84%(1993년, 1994년: 8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농가-2로 71.4%, 농가-4가 65.9%, 농가-3이 64.9%의 순이었다. 그러나 자기자본 수익률과 순수익률에 있어서는 농가-3이 27.7%와 2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소득률이 수입과 지출간의 관계, 즉 소득의 조수입에 대한 비율인데 비해 자기자본 수익률과 순수익률은 수입과 투자자본간의 관계, 즉 자기자본 수익 혹은 순수익의 총 투입자본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이다. 즉, 농가-3의 자기자본 수익률(혹은 순수익률)이 27.7%(순수익률: 21.4%)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평가액(혹은 자가노력비 평가액과 자기자본 이자상당액)을 除한 자기자본 수익(혹은 순수익)이 농가가 수도작에 투입한 자기자본(=자기자본액+수도작 지출×0.5)의 27.7%(순수익률: 21.4%)에 이른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가-4는 고용노력비와 동일한 노임단가를 적용한 '자가노력비 평가액'과 농가 자신들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 '자기자본 이자상당액'을 除한 순수익, 즉 '경영자 보수'가 赤字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곧 경영주 자신의 '경영자 보수'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순수익=0) 수도작에 투입된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그것은 자가노력비 평가액 혹은 이 두가지의 일부 일수도 있음)의 444만원 정도가 포기된 셈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득이 "-"가 아닐 경우 비록 순수익이 "-"라고 하더라도 투입된 자본을 상실하거나 지출된 생산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노동력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를 충

표 4-10 농가별 수도작의 수익성 지표

구 분		수 도 작 소득(원)	자기자본 수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 률(%)
1993	농가-1	44,973,105	41,094,355	30,220,291	84.0	15.1	11.1
	농가-2	9,243,172	7,346,002	2,329,394	51.7	7.2	2.3
1994	농가-1	43,373,322	39,818,322	31,074,125	83.1	12.8	10.0
	농가-2	21,678,412	13,645,564	5,789,290	71.4	9.7	4.1
	농가-3	6,637,793	5,945,918	4,591,362	64.9	27.7	21.4
	농가-4	10,014,529	6,757,660	-4,436,124	65.9	3.7	-2.5

주 : 수도작 소득=수도작 조수입(당년산)-수도작 지출-{(관리·유지비×수도작 조수입의 농업수입 비중)

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농가-4의 경우도 1천만원 정도의 소득에서 325만원 정도의 자가노동력에 대한 대가(자가노력비 평가액)를 除하면 676만원 정도가 자기자본 수익으로 남기 때문에 이미 투입된 자기자본과 이미 지출된 생산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포기한다면, 즉 그의 적용이자율을 "0"으로 간주한다면, "赤字"를 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률은 물론 자기자본 수익률과 순수익률은 높을수록 좋고, 특히 농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순수익률이 "-"인 농가-4는 물론 순수익률이 4.1%로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 5.6%에 미치지 못한 농가-2(1994년도)도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다른 농가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이러한 수익성의 상대적인 열위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를 찾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생산성과 집약도와 생산원가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서 그의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3.3. 수도작 생산성

우선 품종 선택, 생육관리, 적기작업 등의 넓은 의미의 재배기술을 대표하는 지표의 하나인 段收를 살펴보면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저온에 의한 피해가 컸던 농가-2의 1993년도의 경우를 제외하면 농가-1(1993년도)의 벼 801.3kg/300평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1993년도 논벼의 전국 평균인 564kg/10a(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94)의 1.42배에 이른다.

1994년도의 경우는 기상과 가격 등이 동일한 여건하에서 각각의 농가들이 수도작 농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바, 농가-1과 농가-2의 단수는 각각 747.6kg과 745.3kg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농가-3은 705.1kg, 수익성 향상이 가장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농가-4는 624.6kg으로 4 농가중 가장 낮다. 따라서 농가-4는 물론 단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가-3은 단수에 영향을 미치는 품종 선택, 비배관리, 생육관리, 작업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농가-3은 농가-1이나 농가-2의 수도작 경영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만 해도 그의 단수는 현재의 300평당 705.1kg에서 농가-2의 745.3kg(혹은 농가-1의 747.6kg)으로 300평당 40kg 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농가-4는 현재보다 140kg의 벼를 300평당 더 수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표 4-11 농가별 수도작의 생산성 지표

구 분	1993		1994			
	농가-1	농가-2	농가-1	농가-2	농가-3	농가-4
단수(벼kg/300평)	801.3	418.5	747.6	745.3	705.1	624.6
평당 소득(원/평)	2,438	826	2,142	1,937	1,418	1,639
노동시간당 소득 (원/시간)	28,978	4,680	30,502	11,386	9,271	15,526

또한 단수와 수입 및 지출에 의해서 좌우되는 재배면적 평당 소득은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로 826원/평에 그친 농가-2의 1993년도의 경우를 제외하면 농가-1이 2,438원/평(1993년, 1994년: 2,142원/평)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농가-2의 1994년으로 1,937원/평, 농가-4의 1,639원/평, 농가-3의 1,418원/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다음에 살펴보고자 한 가마당 평균 판매가격(표 4-13 참조)과 단수 300평당 지출 생산비와 투입 노동시간(표 4-12 참조)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투입된 노동시간당 소득은 적게는 9,271원/시간(농가-3)에서 많게는 30,502원/시간(농가-1의 1994년도)까지로 그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은 차이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투입된 노동시간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2.3.4. 수도작 집약도

즉, 300평당 투입된 노동시간은 이들 농가가 트랙타, 이앙기, 동력 분무기, 양수기, 콤바인 등의 수도작을 위한 농기계를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1은 22~25시간 수준인데 비해서 농가-2는 51~53시간으로 그의 2 배 수준이고, 농가-3과 농가-4도 각각 46시간과 32시간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부의 1993년산 생산비 조사결과는 40.8h/10a임).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농가들의 농작업에 대한 숙련도나 작업방법 혹은 재배방식의 차이로 모두 설명될 수는 없는 바, 이는 논의 필지 수 및 면적, 필지의 분산정도, 농가에서 논까지의 거리 등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력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나 숙련도의 향상, 작업방법의 개선과 같은 노력은 물론 경지의 교환 및 분합과 같은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나 적절한 노동집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 투입을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동력 투입의 감축이 자가노동력의 절감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서 생산비 절감이나 영농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조방화'만을 의미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력의 절감은 그것이 비록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가 노동력으로 대체될 뿐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력비 지출이 줄어듬으로서 그만큼의 소득증대를 가져온다. 실제로 농가-2는 1993년에 300평당 11.8시간의 고용노동력을 투입했었으나 1994년에는 그의 상당부분을 자가노동력으로 대체하고 고용노동력 투입을 3.4시간으로 줄였고, 그만큼의 고용노력비 절감 등을 통해서 300평당 직접지출을 105,445원에서 76,172원으로 줄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그의 순수익률이 1993년의 2.3%에서 1994년에는 4.1%로 크게 향상되었다(표 4-10 참조)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력 투입은 가능한 한 줄여나가되 그것이 농가가 의도하지 않은 '粗放化'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1을 제외한 다른 3개 농가는 현실적으로 노동력 투입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재비를 비롯한 고용노력비와 위탁작업비, 임차료 등의 기타 지출로 구성된 수도작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농가-1과 농가-2가 1993년의 경우 10만원 내외로 비슷하고, 1994년의 경우는 7만7천원 내외에서 비슷하다. 즉, 두 농가가 공히 2만3천원 정도씩 지출을 줄였다. 그러나 농가-3은 115,977원/300평으로 농가-4의 66,308원/300평의 2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고, 농가-1 및 농가-2보다 50%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표 4-12 농가별 수도작의 집약도 지표 .

구 분	1993		1994			
	농가-1	농가-2	농가-1	농가-2	농가-3	농가-4
노동시간(h/300평)	25.2	53.0	22.9	51.0	45.9	31.7
그중; 고용노동	(-)	(11.8)	(-)	(3.4)	(14.4)	(1.6)
총 지출(원/300평)	139,299	231.920	130,516	233,330	230,590	254,938
그 중;						
- 직접지출	99,787	105.445	76,172	78,169	115,977	66,308
(물재비)	(64,305)	(59,196)	(62,514)	(56,677)	(34,249)	(57,961)
- 관리/유지비	39,512	126,476	54,344	155,161	114,613	188,629
(총지출중 %)	(28.4)	(54.5)	(41.6)	(66.5)	(49.7)	(74.0)

이는 농가-3의 수도작 재배면적 4,680평중 2,000평이 임차지이고, 이에 대한 임차료 916,950원(부록의 수도작 농가-3의 손익계산서 참조)이 다른 농가들과는 달리 더 지출되어야 했던데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300평당 지출된 물재비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수도작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종자, 비료, 농약 등의 물재비의 300평당 지출액은 농가-1이 64,305원(1993년, 1994년: 62,514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가-2의 59,196원(1993년, 1994년: 56,677원), 농가-4의 57,961원, 농가-3의 34,249원의 순이다. 그러나 이를 단수와 관련시켜 단위면적당 물재비 투입액이 많을수록 단수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필지의 토질이나 위치, 기상 변화, 재배품종 등에 따라서 시비량이나 병충해 발생이 다르고, 그것은 동일한 농가 내에서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300평당 34,249원의 물재비 투입으로 300평당 벼 705.1kg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농가-3의 경우가 다른 3개 농가에 시사하는 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농가의 단기적인 노력만으로는 그의 조절이 어려운 관리/유지비에 있어서는 수도작만을 전문화한 농가-1이 300평당 39,512원(1993년, 1994년: 54,344원)으로 총지출액의 28.4%(1994년: 41.6%)에 그침으로서 가장 적고, 느타리 버섯 재배를 병행하고 있는 농가-4가 300평당 188,629원으로 총 지출의 74.0%에 이름으로서 가장 많으며, 이는 농가-1의 거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는 관리/유지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수도작만을 전문화한 농가-1은 그의 장비 및 시설이 수도작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어서 비교적 단순하지만 농가-4는 느타리 버섯 재배를 위한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로 인해서 그의 영농자산 자체가 6억 7천여만원으로 다른 농가들의 1(농가-3)~3억 9천여만원(농가-1)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표 4-1), 그의 상당부분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는 농가-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평짜리 정부양곡 보관창고(1994년 장부가: 5천7백만원)1의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그의 300평당 관리/유지비가 155,161원에 이른다(부록의 수도작 농가-2의 대차대조표 및 부록의 수

도작 농가-2의 손익계산서 참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농가는 다소의 불편이 뒤따르더라도 새로 구입하게되는 농기계와 영농시설에 있어서는 대형보다는 중소형으로 그의 적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300평당 관리/유지비 지출이 114,613원으로 총 지출의 49.7%에 이른 농가-3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2.3.5. 생산원가

벼의 생산원가는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시에 적용하고 있는 가마당 40kg를 기준으로 적게는 16,732원(농가-1의 1994년도)에서 많게는 61,770원(농가-4의 1994년도)으로 농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지출된 생산비는 물론 실제로 지출된 것은 아니지만 비용으로 간주되는 자가노력비와 자기자본 이자뿐만이 아니라 段收의 차이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벼의 가마당 생산비 중에서 농가가 실제로 지출한 생산비는 농가의 농기계 및 영농시설 보유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관리/유지비를 제외할 경우('직접지출'을 말함) 이상저온 피해가 심했던 농가-2의 1993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벼 40kg 가마당 대체로 5천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농가-1은 1993년에 4,981원, 1994년에 4,075원이었고, 농가-2는 피해가 심했던 1993에 10,078원으로 평년의 2배 정도에 이르렀으나(여기에는 段收의 감소가 크게 작용함) 1994에는 4,195원으로 정상을 회복했고, 농가-4도 4,246원으로 5천원을 넘지 않았다. 다만 전체 수도작 재배면적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2천평의 논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해야 했던 농가-3이 6,579원을 지출함으로서 평균적 수준인 4천2백원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재비(재료원가)만을 기준으로 하면 농가-3이 벼 40kg 가마당 1,943원으로 여타 농가들의 3천원 내외 수준의 2/3에 불과하다. 또한 고용노력비는 벼 40kg 가마당 1,302원이 지출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여타의 농가들이 농가-3의 물재 투입수준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3이 고용노동비의 절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고용

표 4-13 농가별 벼 가마(40kg)당 생산원가 및 순수익

단위: 원/40kg

구 분	1993		1994				1993 전국평균
	농가-1	농가-2	농가-1	농가-2	농가-3	농가-4	
생산원가	18,928	39,883	16,732	35,385	20,522	61,770	28,194
지출생산비;	6,953	22,167	6,983	12,522	13,081	16,327	
○ 직접지출	4,981	10,078	4,075	4,195	6,579	4,246	
그중 : -물재비	3,210	5,658	3,072	3,042	1,943	3,712	15,486
-노력비	-	1,760	-	833	1,302	535	
-기타	1,771	2,199	1,003	320	3,334	39	
○ 관리/유지비	1,972	12,089	2,908	8,327	6,502	12,081	
자가노력비평가액	2,982	4,861	2,818	11,558	2,516	10,242	
자기자본이자상당액	8,826	12,855	6,931	11,304	4,926	35,201	12,708
※인건비(노무원가)	2,982	6,621	2,818	12,391	3,818	10,777	8,099
가마당평균판매가	43,457	45,852	41,362	43,715	37,218	47,820	47,820
가마당평균소득	36,504	23,685	34,375	31,193	24,137	31,493	-
가마당평균순수익	24,529	5,969	24,630	8,330	16,696	-13,950	19,626

노력비만으로 농가의 노동력 이용의 적절성 여부를 논할 수 없다. 이는 특히 자가노동력과 대체관계에 있을뿐 아니라 자가노동에 대한 대가는 농가 스스로에게 지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력비와 자가노력비 평가액을 합한 '인건비(노무원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일체의 고용노동력을 쓰지 않은 농가-1이 벼 40kg 가마당 2,982원(1993년, 1994년: 2,818원)으로 3천원 미만에 머물고 있고, 농가-3이 3,818원, 이상저온 피해가 심했던 농가-2의 1993년이 6,621원으로 정부의 1993년산 생산비 조사결과에서의 노력비 8,099원 보다 낮고, 1994년의 농가-2(12,391원)는 그보다 4천여원이, 농가-4(10,777원)는 2천여원이 각각 더 많았다. 그러나 농가-1이 채택하고 있는 작업방식과 숙련도 등을 본받을 수 있다면 농가의 필지구성, 마을의 노임 및 노동력 수급상황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개선의 여지는 상당히 클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농가들의 단기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관리/유지비는 段收가 월등히 낮아짐으로서 상당부분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농가-2의 1993년의 벼 40kg 가마당 12,089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년작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1994년에도 8,327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2는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토지 이외의 고정자산(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의 벼 40kg 가마당 관리/유지비가 12.081원으로 가장 낮은 농가-1의 2,908원(1994년)의 4배에 이르고 있는 농가-4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농가-3에 있어서도 그의 벼 40kg 가마당 관리/유지비가 6,502원으로 가장 낮은 농가-1의 2,908원(1994년)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노력은 농가의 영농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자기자본 이자상당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가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자기자본 비율이 높지 않고 절대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농가-3(4,926원/벼40kg 가마)은 예외로 하더라도 수도작만을 전문화한다고 한다면 농가-1의 7~9만원 수준까지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례농가들의 벼 40kg 가마당 평균 판매가격은 당년산의 차기이월을 제외한 전량이 수매된 농가-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가들이 정부의 추곡수매 단가 47,820원(1993년 및 1994년도 1등품)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확 직후 상당량을 정미소에 출하 해버린 농가-3의 벼 40kg 가마당 판매단가는 37.218원으로 추곡수매 단가에 비해서 가마당 10,602원씩이 낮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은 물론, 특히 농가-3은 보다 높은 판매단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컨대 농가-1이나 농가-2의 1994년도의 판매방식이나 시기별 출하량에 대한 검토 등과 같은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추곡수매가격에 미치지 못한 평균 판매단가에도 불구하고 가마당 평균 판매가격에서 생산원가를 除한 '벼 40kg 가마당 평균 순수익'은, 가장 높은 판매단가를 실현한 농가-4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5,969원

(농가-2의 1993년도)의 黑字를 기록했다. 물론 자가노력비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를 포기한다면 농가-4를 포함한 모든 사례농가들이 가마당 최소한 23,685원의 소득(농가-2의 1993년도)을 실현한 셈이다.

한편 정부가 조사 발표한 1993년산 논벼 생산비는 그의 산출방법과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벼 40 kg 가마당 28,194원으로 농가-3의 20,522원과 농가-2의 35,385원의 사이에 위치한다. 정부가 조사 발표한 생산비는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로 구성되며, 실제로 지출이 행해지지 않고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농가 자신에 귀속되는 자가노력비를 직접생산비의 노력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자가노력비에 적용한 노임단가는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력비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조사 발표한 생산비에서 말하고 있는 '직접생산비'는 여기서의 '지출생산비 + 자가노력비 평가액'과 같다. 정부가 조사 발표한 생산비중 직접생산비는 15,486원/벼 40kg으로, 농가-1(1993년: 9,935원, 1994년: 9,801원)의 1.5배에 이르지만 농가-2(1993년: 27,028원, 1994년: 24,080원)와 농가-4(26,569원)보다는 1만원 이상 적고, 농가-3(15,597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간접생산비'와 여기서의 '자기자본 이자상당액'은 그의 산출방법과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비교가 쉽지 않다. 즉, 정부의 '간접생산비'는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로 구성되고, 토지용역비는 주위 농지의 임차료(혹은 추정 임차료)를 기준으로 해당작물의 조수입이 해당토지로부터의 1년간의 농작물 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부담비율을 곱해서 산출하고, 자본용역비는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연리 10%를, 유동자본에 대해서는 연리 10%에 산출계수 0.5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고정자산은 물론 유동자본에 있어서도 그의 일부(이론적으로는 전부 일수도 있음)가 부채로 충당되어 있고, 그 부채에 대해서 지출한 이자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을 경우 '二重計算'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기자본 이자상당액'은 영농에 투입된 총자본(영농자본)에서 타인자본(부채)을 제외한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수도작에 대해서 當期

에 지출된 생산비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의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를 합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當期에 지출된 생산비에 있어서는 그의 일부가 부채로 충당되었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가 이미 비용으로 계상되었을 경우 이중으로 계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當期에 지출된 생산비'의 1/2은 그의 절대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성의 왜곡도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3 사과 농가

3.1. 농가의 개요

일계부를 최소한 1년 이상 중단없이 기장하여 그의 결과를 집계,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3개 농가의 5가지 경우다. 2개 농가는 기장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1992년 5월 1일부터 1993년 4월 30일까지의 처음 1년간은 성실히 기장했었으나 그후부터 흐지부지되어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집계와 분석이 어렵고(농가-2와 농가-3), 농가-1만이 199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가들간의 비교를 위해서 1992년 5월 1일부터 1993년 4월 30일까지의 영농 실적을 집계, 분석하고, 농가-1에 대해서는 그외에도 年度間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1993년과 1994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농실적을 집계, 분석했다.

우선 이들 3개 농가의 영농규모 및 유형을 살펴보면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농가-1은 총 4천 5백여평의 경지면적중 1천 8백평에 사과나무 1,440주를 경작하고 있고, 그외에도 자두(95주), 감(10주), 모과(6주)로 조성된 1천 5백여평의 과수원과 1,200평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사과를 주력작목으로 한

과수 복합농가'다(부록의 사과농가-1의 대차대조표 참조).

농가-2는 그의 경작면적이 1만 2천 3백여평(그중 3천평은 군유지(하천부지) 장기임차면적임), 그중 사과밭이 6천평(그중 3천평이 군유지(하천부지)임)이고, 사과나무가 모두 4천 2백주로 각각 농가-1의 3배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다. 농가-2는 그외에도 2천 1백여평의 자두 과수원과 논/밭 轉用이 용이한 4천 2백여평의 논에서 수도작은 물론 감자, 양파, 대파 등의 밭작물도 상당한 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사과를 주력작목으로 한 과수 복합농가'로서(부록의 사과농가-2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참조),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고 하겠다.

농가-3은 6천 2백평의 경작면적중 사과밭 3천 7백평에 2천 9백주의 사과나무를 경작하고 있어서 농가-1의 사과 경작규모의 2배에 이르고 있다. 농가-3은 이외에도 2천평의 논농사를 병행하고 있다(부록의 사과농가-3의 대차대조표 참조).

한편 이들 농가의 연간 노동시간과 농업수입액은 대체로 경작규모와 비례하지만 영농에 투자된 자산의 총 규모에 해당되는 농가-3의 영농자산액은 다른 사례농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많다. 이는 농가-3이 도심의 외곽, 즉 도시 인접지역에 위치함으로서 그의 地價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농가는 처음부터 같은 규모의 사과 농가들보다 훨씬 높

표 4-14 사과 농가의 경영개요

경 우 별		경작면적 (평)	경작면적 사 과	노동 시간 (h)	노동 시간 고용	영농 자산액 (원)	연 간 농업수입액 (원)	유 형
1992 5.1 ~ 1993 4.30	농가 -1	4,546	1,800 (1,440주)	2,058	162	147,145,700	19,647,320 (19,647,320)	사과+자두+감등
	농가 -2	12,320	6,000 (4,200주)	5,610	1,177	710,796,500	51,369,700 104,169,700)	사과+자두+벼등
	농가 -3	6,200	3,700 (2,900주)	3,934	2,400	1,408,328.700	24,632,400 (27,632,400)	사과+벼
1993	농가 -1	4,546	1,800 (1,440주)	2,638	170	145.680.020	19,229,220 (19,229,220)	사과+자두+감등
1994	농가 -1	4,546	1,800 (1,440주)	2,477	264	168,362,320	28,051,790 (28,904,290)	사과+자두+벼등

주: ( )안은 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보조금에 의한 수입을 포함한 것임.

은 수익률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地價 외에도 소 입식을 위해 지난 1982년에 신축한 1,020평이나 되는 축사(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음)가 소위 '불필요한 영농자산'의 하나로 높은 수익률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부록의 사과농가-3의 대차대조표 참조).

3.2. 농가의 농업경영 전체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3.2.1. 수익성

'사과를 주력작목으로 한 과수 복합농가'의 농업경영 전체의 수익성은 대체로 부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가-1의 1994년도를 제외한 모든 사례농가들의 순수익률이 농가 자신들이 쓰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부담한 부채이자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1의 1992년도와 1994년도를 제외하면 그의 순수익률이 모두 "-"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농업수입(매출액)에서 농업지출(지출생산비)을 뺀 연간 소득이 黑字이고, 연간소득에서 농가 자신들의 자가노력비 평가액을 除한 자기자본 수익도 黑字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투입한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가 비록 모두 補塡되지는 않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의 일부만 포기된 셈이고, 따라서 자기자본 잠식이 전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赤字'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地價로 인해서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금액이 그만큼 높을수 밖에 없는 농가-3의 순수익률만이 -12.2%로 크게 낮을 뿐 농가-2 및 1993년도의 농가-1은 비록 '-'라고는 하지만 각각 -1.5%와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간 농업소득이 스스로의 생계를 위한 가계비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1992년의 농가-3은 그의 연간소득이 850만원 수준에 그친 바, 만일 가계비 지출이 그보다 많았고, 그렇다고 영농자산을 매각하지는 않았다면 그것은 당해년도의 감가상

각비나 혹은 그동안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감가상각 적립금이 그만큼 轉用되어 지출되어 버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농기계나 영농시설을 새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출될 때까지 '여유자금'의 일종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잠식은 그것이 영농자산의 감축으로 나타날 때까지 쉽게 감지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자기자본 잠식을 뒤늦게 알아차리곤 한다. 이러한 우려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연간소득이 1,300만원 수준에 그친 1993년도의 농가-1에 있어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가-3의 농업소득이 85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은 그의 수입 측면에서 보다는 지출 측면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농가-3의 농업수입은 2,463만원으로 같은 해의 그의 2/3 정도의 경작규모를 가진 농가-1의 1,965만원보다 5백만원 정도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반면에 지출(자가생산 농업지출)은 경작면적 1평당 2,440원으로 다른 두

표 4-15 사과 농가의 수익성 지표

경 우 별		연 간 소득(원)	자기자본 수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 률(%)	부 채 이 자율(%)
1992 5.1 ~ 1993 4.30	농가-1	15,196,249 (12,237,749)	11,263,945 (8,305,445)	5,545,142 (2,586,642)	77.3 (76.2)	8.3 (6.1)	4.1 (1.9)	4.2
	농가-2	33,712,680 (34,044,330)	25,666,785 (25,998,435)	-10,675,643 (-10,343,993)	65.6 (67.7)	3.5 (3.6)	-1.5 (-1.4)	5.0
	농가-3	8,499,030 (9,503,030)	5,601,300 (6,605,300)	-171,913,849 (-170,909,849)	34.5 (38.6)	0.4 (0.5)	-12.2 (-12.1)	12.6
1993	농가-1	13,063,691 (10,820,191)	6,493,875 (4,250,375)	-814,327 (-3,057,827)	67.9 (65.7)	4.4 (2.9)	-0.6 (-2.1)	5.0
1994	농가-1	22,292,450 (19,932,450)	16,759,950 (14,399,950)	9,796,630 (7,436,630)	79.5 (78.7)	9.6 (8.3)	5.6 (4.3)	4.0

주: 1)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2) 연간소득: 당년산 재고(차기이월), 재산적 수입(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 보조금에 의한 수입), 재산적 지출(영농자산 투자지출, 부채의 원금 상환지출)이 제외됨.

농가(농가-1: 979원, 농가-2: 1,744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는 것이다(표 4-20 참조). 이는 곧 농가-3의 부진한 수익성이 지나친 영농자산과 단순히 그에 따른 과다한 자기자본 이자상당액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3.2.2. 생산성

사과 농가의 경작면적 평당 농업소득은 <표 4-16>에서와 같이 농가-3이 1,371원으로 가장 낮고, 1994년도의 농가-1이 그의 3배가 넘는 4,904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농가-3은 그의 농업소득 자체가 850만원으로 극히 저조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가-3을 제외하면 대체로 3천원에서 5천원 사이로 앞에서 살펴 본 수도작 농가들의 평당 2~3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농가들의 노동시간당 소득에 있어서는 농가-3의 경우 시간당 2,160원으로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시간당 평균 고용노력비 1,889원(표 4-21 참조)보다 불과 시간당 271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났고 이는, 특히 그의 총 노동시간의 61%를 고용노동력에 의존했다는 점에서(표 4-21 참조) 매우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노동생산성의 저조는 그의 농업소득 자체가 850만원으로 매우 빈약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경작면적 평당 노동시간이 38.1 분/평으로(표 4-20 참조), 투입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가-1의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농가-1의 1994년의 노동시간당 소득은 9천원으로 주력작목인 사과의 해거리 현상으로 농업소득 자체가 크게 줄어든 1993년도의 4,952원을 제외하면 1992년의 7,384원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생산성 향상은 경작면적(경작면적당 소득)과 자본(영농자산액 1원당 소득, 자기자본액 1원당 소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16 사과 농가의 생산성 지표

경 우 별		경작면적당 소득(원/평)	노동시간당 소득(원/h)	영농자산액 1원당 소득	자기자본액 1원당 소득
1992 5.1 ~ 1993 4.30	농가-1	3,343 (2,692)	7,384 (5,946)	0.10 (0.08)	0.11 (0.09)
	농가-2	3,617 (3,653)	6,009 (6,189)	0.05 (0.08)	0.05 (0.09)
	농가-3	1,371 (1,533)	2,160 (2,416)	0.01 (0.01)	0.01 (0.01)
1993	농가-1	2,874 (2,380)	4,952 (4,102)	0.09 (0.07)	0.10 (0.08)
1994	농가-1	4,904 (4,385)	9,000 (8,047)	0.13 (0.12)	0.14 (0.12)

주: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농업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3.2.3. 활동성

사과농가들의 자본회전율은 수도작에 비해서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자본회전이 가장 빠른 1994년의 농가-1을 살펴보면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자본은 5.9년만에(0.17), 자기자본은 5.6년만에 각각 한차례씩 회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총 농업지출, 즉 경영자본은 1년에 4.9회전, 그중 감가상각비를 除한 실제로 지출이 행해진 운전자금은 1년에 6.6회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간의 비교가 가능한 1992년 5월 1일부터 1993년 4월 30일까지를 살펴보면 농가간의 자본회전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자본은 농가-3의 경우 50년만에(0.02), 농가-2는 14.3년만에(0.07), 농가-1은 7.7년만에(0.13) 각각 1회전씩을 했던 셈이고, 자기자본은 그보다 약간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본 회전율과 운전자금 회전율은 가장 낮은 농가-3의 경우 각각 년간 1.5회와 1.9회, 농가-2의 경우는 각각 년간 2.9회와 4.2회, 농가-1의 경우 각각 년간 4.4회와 5.4회로 그의 차이가 매우 크

표 4-17 사과 농가의 활동성 지표

경 우 별		총 자 본 회 전 율	자기자본 회 전 율	경영자본 회 전 율	운전자금 회 전 율	경영자본 (운전자금)	자가생산 농업수입
1992 5.1 ~ 1993 4.30	농가 -1	0.13 (0.11)	0.15 (0.12)	4.41 (3.61)	5.42 (4.43)	4,451,071 (3,626,231)	16,063,820
	농가 -2	0.07 (0.07)	0.08 (0.07)	2.91 (2.85)	4.16 (4.08)	17,657,020 (12,336,150)	50,301,900
	농가 -3	0.02 (0.02)	0.02 (0.02)	1.53 (1.53)	1.89 (1.89)	16,133,370 (13,009,370)	24,632,400
1993	농가 -1	0.13 (0.11)	0.14 (0.12)	3.12 (2.67)	3.57 (3.06)	6,165,529 (5,387,019)	16,457,720
1994	농가 -1	0.17 (0.15)	0.18 (0.16)	4.87 (4.40)	6.63 (5.99)	5,759,340 (4,232,040)	25,331,790

주: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한 것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농업수입과 농업지출의 농가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고, 이는 또 다시 그들의 경작규모의 현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4천 5백여평을 경작하는 농가-1은 그의 중심소득인 자가생산 농업수입이 1,606만원 선인데 비해 농업지출(경영자본)은 445만원에 불과한 반면 1만 2천 3백평을 경작하는 농가-2의 자가생산 농업수입은 농가-1의 3.1배인 5천여만원 선인데 비해 농업지출은 농가-1의 3.9배인 1,760여만원에 이르고, 6천 2백평을 경작하는 농가-3의 자가생산 농업수입은 2,460여 만원으로 농가-1의 1.5배인데 비해 농업지출은 농가-1의 3.6배인 1천 6백여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비록 주력작목이 사과로 같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활동성 혹은 자본회전율이 어느 수준이어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그리고 단정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농가-1의 경우를 보면 4천 5백여평의 경작지와 1,440주의 사과 등 그의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는 사과의 해거리가 심했던 1993년을 제외하고 1992년에 비해서 그의 활동성이 향상되었고 농가-1과 유사한 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그의 자본회전율이 농가-1에 미치

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농가는 농가-1의 1994년의 자본회전율들을 하나의 경영개선 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4. 유동성 및 안전성

사례농가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모두가 90%를 상회함으로서 부채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매우 건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8). 한편 고정자산의 총 자산에 대한 비율은 농가-1의 경우 74%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가-2(95.4%)와 농가-3(99.3%)은 거의 모든 자산이 고정자산으로 나타남으로서 그의 유동성, 즉 업종이나 작목의 '전환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정자산중에서도 가장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자산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도 농가-1이 60% 내외를 유지할 뿐 농가-2와 농가-3은 90% 내외의 수준으로 사과 복합농가들의 토지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채의 유동+유통자산에 대한 비율은 농가의 부채규모가 모든 채무를 당장에 변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산이나 영농규모의 축소를 우려하지 않을만한 수준인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다. 우선 부채규모가 유동+유통자산 규모를 초과한 농가는 하나도 없고, 농가-1을 제외한 다른 두 농가들은 그의 부채규모가 유동+유통자산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농가-1의 경우는 그의 비율이 1992년의 39.1%에서 1993년에는 28.6%로, 1994년에는 24.5%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환기간 1년 미만의 단기성 부채가 농가의 즉시 동원이 가능한 유통자산보다 많은 농가는 농가-3(122.1%) 하나에 불과하고, 1992년의 농가-1(7%)이 단기성 부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과 복합농가들의 단기성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농가들로부터의 자료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표 4-18 사과 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경 우 별		자기자본 비율(%)	고정비율 (%)	토지자산 비율(%)	부채의 유동+ 유통자산 비율	단기성 부채의 유통자산 비율
1992 5.1 ~ 1993 4.30	농가-1	89.9	74.2	66.7	39.1	7.0
	농가-2	96.1	95.4	88.7	84.9	-
	농가-3	99.4	99.3	95.9	86.7	122.1
1993	농가-1	92.8	74.7	67.4	28.6	-
1994	농가-1	94.8	73.8	58.3	24.5	-

3.2.5. 성장성

농가의 성장여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농가는 1992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일계부를 기장해오고 있는 농가-1로서 사과의 해거리로 수입이 크게 줄었던 1993년에는 1992년에 비해서 총자산과 매출액(농업수입)이 각각 1%(고정자산: 0.5%)와 2.1%씩 줄었으나 꾸준한 부채상환으로 자기자본은 2.1%가 증가했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1993년 대비 총자산(15.6%, 고정자산: 14.3%)과 자기자본(18.1%)과 매출액(45.9%)이 모두 증가함으로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향후의 성장 가능성 및 투자수요에 관한 정보는 농가의 중요한 영농자산의 하나인 농기계 및 영농시설의 노후상태와 그의 앞으로 남은 사용가능기간을 살펴봄으로서 알 수 있는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감가상각비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비율은 농가-2의 11.2%를 제외하면 6~7% 수준으로 그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구연수가 대체로 15년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도작 농가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총 내구년수중 이미 지나가

표 4-19 사과 농가의 성장성 지표

단위: %

경 우 별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 가 율	매출액 증가율	감 가 상각률	상각적 립금률	투자 대 매출액	투 자 대 감가상각비	기말 여유 자금(만원)
1992 5.1 ~ 1993 4.30	농가-1	-	-	-	6.7	37.1	3.7 (3.7)	97.1	1,594
	농가-2	-	-	-	11.2	13.1	131.6 (64.9)	1,270.8	3,903
	농가-3	-	-	-	6.4	35.0	1.8 (1.6)	14.4	1,162
1993	농가-1	-1.0 (-0.5)	2.1	-2.1 (2.5)	7.4	40.9	73.7 (73.7)	1,819.2	1,384
1994	농가-1	15.6 (14.3)	18.1	45.9 (53.9)	5.9	24.6	14.0 (12.0)	256.8	2,382

주: 1) 총자산 증가율의 ( )안은 고정자산 증가율이고, 매출액 증가율의 ( )안은 농가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 한 것이고, 투자 대 매출액의 ( )안은 재산적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한 것이고, 여기서 매출액이라 함은 농업수입(조수입)을 말함.

2) 감가상각률=감가상각비/감가상각자산액×100

3) 감가상각적립금률(상각적립금률)=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자산액)×100

4) 투자대 매출액(%)=투자지출액/농업수입×100

5) 투자대 감가상각비(%)=투자지출액/감가상각비×100

6) 기말여유자금=농업소득+감가상각비

버린 내구년수의 비율, 즉 감가상각 적립금율은 모든 농가에서 40.9%(농가-1의 1993년도) 이하로 앞으로 남은 내구년수가 전체의 1/2 이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농가-1은 1993년에 다용도 승합차를 구입(1천 4백만원, 부록의 사과농가-1의 손익계산서 참조)함으로서 1994년의 감가상각 적립금률은 24.6%로 낮아졌고, 농가-2는 1992년 초의 트랙타 구입(2천 5백만원)으로(부록의 사과농가-2의 대차대조표 참조), 감가상각 적립금률이 13.1%에 그쳤다.

한편 사례농가들의 투자활동을 살펴보면 농가-3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조사된 바, 농가-2는 전업농 육성자금을 바탕으로 1천 4백평의 밭을 구입하는 등(부록의 사과농가-2의 손익계산서 참조), 자가생산

농업수입액(농산물 생산에 의한 매출액)의 1.3배 이상(당해년도 감가상각비의 12.7배)을 투자했고, 농가-1은 1993년에 승합차를 구입하는 등 자가생산 농업수입의 73.7%(당해년도 감가상각비의 18.2배)를 투자했으며, 1994년도에도 점적식 관수시설을 갖춘 330주의 배나무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당해년도(1994년) 자가생산 농업수입의 14%(감가상각비의 2.6배)를 투자함으로서 향후의 성장전망이 그만큼 밝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심에 인접한 농가-3에 있어서의 부진한 투자활동은 보다 넓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 농장을 옮기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의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3.2.6. 집약도

사례농가들의 경작면적 평당 노동시간은 대체로 년간 30~40분 수준인 것으로 조사 됨으로서 수도작 전문농가의 5분 내외(수도작 농가-1), 수도작 중심의 복합영농 농가의 14분 내외(수도작 농가-2)에 비해서(표 4-4 참조) 훨씬 집약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지에 작물이 재배된 기간만을 기준하면(경지이용면적='旬·坪'), 0.8~1.3 분/旬·坪으로 1평의 경지에 10일동안 평균 1분 내외의 노동시간이 투입된 셈으로 수도작 전문농가의 0.3분(수도작 농가-1), 수도작 중심의 복합영농 농가의 0.7분(수도작 농가-2)에 비해서(표 4-4 참조) 훨씬 집약적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한편 경작면적 평당 자가생산 농업지출액은 농가-1의 경우 979(1992년)~1,240(1993년)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농가-3은 2,440원으로 농가-1의 2배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경지가 이용된 기간만을 기준하더라도 31.1~40.1원/旬·坪 : 80.8원/旬·坪으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중 비료나 농약과 같은 물재비는 1992년을 기준할 경우 농가에 따라서 447(농가-1)~942(농가-3)원/평으로 2배 이상 차이가 있고, 농가-1를 기준할 경우 년도에 따라서 447(1992년)~871(1993년)원/평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한두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없다. 이는, 특히

표 4-20 사과 농가의 집약도 지표

경 우 별		노 동 시 간		자가생산농업지출		물 재 비		경지면적 당 대농구 자산액 (원/평)
		坪 당 (분/평)	旬·坪당 (분/旬坪)	坪 당 (분/평)	旬·坪당 (분/旬坪)	坪 당 (분/평)	旬·坪당 (분/旬坪)	
1992 5.1 ~ 1993 4.30	농가-1	27.2	0.9	979	31.1	447	14.2	627
	농가-2	36.1	0.8	1,744	38.9	834	18.6	4,451
	농가-3	38.1	1.3	2,440	80.8	942	31.2	661
1993	농가-1	34.8	1.1	1,240	39.4	871	27.7	589
1994	농가-1	32.7	1.1	1,188	40.1	592	20.0	4,048

이들 3개 농가의 자가생산 농산물의 구성과 규모가 각기 조금씩 다르고 그 해의 기상변화에 따라서 병충해의 발생과 생육상태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병충해 방제와 비배관리 등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2.7. 영농자원의 이용

과수농가들은 비록 과수가 낙엽이 지고 휴면상태에 있는 겨울철에도 경지면적을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한 경지이용율은 그만큼 높다. 즉, 사례농가들의 경지이용률은 그의 사용(이용)기간까지를 포함하면, 83~94.3%로 수도작 농가들의 50% 내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21). 특히, 양파, 감자, 대파 등의 밭작물을 재배한 농가-2의 경지이용률은 94.3%로 년중 일부 면적을 잠시 놀리는 외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심어져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가노동력에 대한 이용률이 82.1%로 매우 높고,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도 21%에 이른다. 특히 농가-2의 자가노동력 이용률이 82.1%라는 것은 그의 부모님과 본인 부부의 노동력을 2.5인으로 간주하고 매일 8시간씩 1년 365일중 270일을 일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라는 점에서 매일 '8시간씩' 대신에 '6.6시간씩,' 2.5인이 270일간 농사일에 종사한 셈이라는 것이다.

표 4-21 사과 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구 분		경 지 이용률(%)	자가 노동 이용률(%)	고용 노동 의존도(%)	시간당 고용 노력비(원/h)
1992 5.1 ~ 1993 4.30	농가-1	88.2	63.5	7.9	2,074
	농가-2	94.3	82.1	21.0	1,815
	농가-3	83.9	47.4	61.0	1,889
1993	농가-1	88.2	76.2	6.4	2,662
1994	농가-1	83.0	68.3	10.7	2,500

주: 자가노동 이용률에는 수탁작업시간을 포함시킴.

농가-1의 경우 그의 자가노동력 이용률은 년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70~80% 수준으로 수도작 농가들의 40~50% 수준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작목인 사과를 주력작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의 영농작업은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등 작업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많은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자가노동력을 100% 이용하지 못하면서도 그의 상당부분을 고용노동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가노동력 이용율이 47.4%에 그친 반면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61%에 이르는 농가-3의 경우는 재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물론 이 농가는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부친이 직접 경영하시던 때부터 일해 온 60대 초반의 노부부가 과수원일의 상당부분을 맡아서 해오던 관례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출된 고용노력비는 연간 약 450만원으로(부록의 사과농가-3의 손익계산서 참조), 시간당 평균 1,889원의 노임을 지출해야 하고, 이같은 과다한 지출이 연간 소득 850만원과 소득율 34.5%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득(표 4-15)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

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출된 노임과 간식비 등을 합한 고용노력비 총액을 고용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평균 고용노력비'는 적게는 1,815원에서 많게는 2,662원으로 농가와 년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노동력 수급이나 품앗이 등의 관습 등과 같은 지역사정, 즉 농가 외적인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녀간의 노임격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노동력의 남녀간의 구성비도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2년 이후 농사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그 지역, 즉 농가 외적인 요인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농가-1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즉, 농가-1의 시간당 평균 고용노력비는 1992년 2,074원, 1993년 2,662원, 그리고 1994년에는 2,500원으로 비록 그의 관찰기간이 3개년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어떤 변화추세를 발견할 수 없다. 물론 보다 정확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력과 지출노임(간식비 등 포함)의 기장과 집계가 남녀로 구분되어야 하겠으나 이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력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임이 상대적으로 비싼 남자 노동력을 가능한 한 여자 노동력으로 대체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3.3. 사과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3.3.1. 사과의 경영개요

이들 3개 농가의 농업경영중 사과만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규모가 각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가-1은 1,800평의 사과밭에 1,440주의 사과나무를, 농가-2는 6천평에 4,200주의 사과나무를, 그리고 농가-3은 3,700평에 2,900주의 사과나무를 각각 재배하고 있다. 사과나무의 樹齡은 각기 차이가 있지만 조성된지 7~8년

이상 25년 미만으로 樹齡에 따른 收量 差異를 전제할 수는 없는 입장들이다. 따라서 이들 3 농가의 규모의 차이는 농가-1의 사과나무 주수를 기준할 경우 농가-2는 농가-1의 3배 정도 농가-3은 농가-1의 2배 정도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사과밭의 면적을 기준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즉, 농가-3은 농가-1의 2배, 농가-2는 농가-1의 3배 정도라는 것이 재배(혹은 경영) 규모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농가-2의 사과밭 6천평은 그중 3천평이 郡 所有의 河川敷地에 조성된 사과밭이고, 이에 대한 임차료가 년간 7만여원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다소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농가-3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의 위치가 도심에 인접해 있어서 그의 토지자산이 그만큼 高價로 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다소 특이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과 경영의 규모와 그의 자산가치의 차이에 해당될 뿐 그것이 경영실적이나 성과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농가-1의 2배에 이르는 사과밭과 사과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3의 투입 노동시간은 농가-1(1992년: 968h, 1993년: 1,113h, 1994년: 790h)의 4배 정도(3.3~4.6배)인 3,648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했는가하면 농가-1의 3배에 이르는 규모의 사과밭과 사과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2는 그의 3배 정도(2.4~3.4배)인 2,670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사과 생산에 의한 조수입에 있어서도 농가간의 비교가 용이한 1992년의 경우 가장 규모가 큰 농가-2가 1,704만원 수준으로 규모가 그보다 작은 농가-3의 1,936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이같은 경향은 사과 지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농가-2는 373만여원인데 비해서 농가-3은 그의 2.6배, 농가-1의 7.4배에 이르는 963만여원으로 그의 수입(매출액 혹은 사과 조수입)과 지출이 사과밭의 크기나 사과 과수의 수 뿐만이 아니라 그외의 경영요소들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농가별 사과 경영개요

경 우 별		사과면적 (평)	사과면적 임차	노동 시간 (h)	노동 시간 고용	사과 조수입 원	사과 조수입 %	사 과 지 출 원	사 과 지 출 %
1992 5.1 ~ 1993 4.30	농가 -1	1,800 (1,440)	-	968	125	5,810,000 (5,810,000)	33.3 (33.3)	1,296,196	35.0
	농가 -2	6,000 (4,200)	3,000	2,670	104	17,042,500 (17,042,500)	32.0 (33.2)	3,732,295	30.3
	농가 -3	3,700 (2,900)	-	3,648	2,334	19,360,000 (59,643,450)	78.6 (100.0)	9,631,770	74.6
1993	농가 -1	1,800 (1,440)	-	1,113	136	8,900,200 (6,600,200)	41.3 (34.3)	2,015,040	37.4
1994	농가 -1	1,800 (1,440)	-	790	133	7,112,930 (2,612,930)	25.4 (9.3)	1,631,950	38.6

주: 1) '사과 조수입'은 당년산(수매, 시판, 자가소비, 차기로 이월된 당년산 재고)을 기준했으며,
2) '사과조수입'에서의 ( )는 cash flow('전년산 재고'의 당년도 판매를 포함 시키고, 차기로 이월된 '당년산 재고'를 제외시킴)를 기준으로 한 것임.
3) '경작면적'에서의 ( )는 사과나무의 주수임.
4) 조수입 % = 당년산 조수입÷(자가생산 농업수입-당년산 재고+재산적 수입 이외의 비생산 농업수입)×100
5) 사과 지출 % = 사과 지출÷(자가생산 농업지출-감가상각비+재산적 지출 이외의 비생산 농업지출)×100

한편 농가-1의 지난 3개년(1992년, 1993년, 1994년)의 사과 농사는 그의 면적과 사과나무의 수는 변화가 없었으나 투입된 노동시간과 조수입, 그리고 지출의 모든 항목이 1992년에 비해서 1993년은 많아졌으나, 1994년에는 1993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3년에는 1992년에 비해서 일도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들여서 조수입도 많이 얻었으나, 1994년에는 1993년에 비해서 일도 적게 하고 비용도 적게 들이고, 조수입도 적게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과의 해거리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1994년의 단수가 300평당 1,040kg(사과 과수 1주당 4.3kg)으로 1993년의 1,958 kg/300평(주당 8.3kg)이나 1992년의 2,050 kg/300평(8.5kg)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친 사실(표 4-24 참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

다. 따라서 농가-1은 이같은 해거리현상에 의한 농업소득의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剪枝, 摘花, 摘果 등의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물론 수확량이 격감되는 해에 수확량이 격감하지 않거나 오히려 많아지는 사과품종이나 사과 이외의 樹種을 도입하는 등의 중장기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거리 현상에 대한 농가 차원에서의 대책은 다른 과수농가들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3.3.2. 사과의 수익성

사과 생산에 의한 조수입에서 사과생산을 위해서 직접 지출된 비용과 농장 전체의 관리/유지비중 사과의 持分에 해당되는 지출(간접비)을 除한 소득은 1992년의 경우 규모가 가장 적은 농가-1이 408만원, 규모가 그의 3배가량인 농가-2가 1,128만원, 그리고 그의 규모가 농가-1의 2배 정도인 농가-3이 675만원으로 대체로 규모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표 4-23). 그러나 사과 소득의 사과조수입에 대한 비율, 즉 소득률을 살펴보면 농가-1의 경우는 년도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7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농가-2도 66.2%에 이르고 있으나 농가-3은 34.9%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농가-3의 이같은 저조한 소득률은 그의 조수입이 그보다 사과밭의 규모가 훨씬 큰 농가-2의 1,704만원보다 많은 1,936만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963만원으로 그보다 규모가 큰 농가-2의 373만원과 비교가 안될만큼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소득에서 자가노력비 평가액을 除한 자기자본 수익은, 최소한 219만원(1992년의 농가-1) 이상을 유지함으로서 자신들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농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자기자본 수익이 사과농사에 투입된 자기자본과 당해년도에 사과 생산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감당한 농가는 농가-1 하나 뿐이다. 이는 곧 농가-1만이 경영주 자신의 '경영보수'를 실현한 셈이라는 것을 뜻한다.

표 4-23 농가별 사과의 수익성 지표

구 분		사과소득 (원)	자기자본 수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 률(%)
1992 5.1 ~ 1993 4.30	농가-1	4,079,074	2,190,754	294,568	70.2	4.9	0.7
	농가-2	11,275,210	6,617,920	-4,502,617	66.2	3.0	-2.0
	농가-3	6,754,792	4,272,646	-135,391,762	34.9	0.4	-12.2
1993	농가-1	6,428,758	4,198,267	1,291,911	72.2	7.2	2.2
1994	농가-1	4,974,712	3,403,825	1,640,374	69.9	7.7	3.7

주: 사과 소득=사과 조수입(당년산)-사과 지출-{(관리·유지비×사과 조수입의 농업수입 비중(%))}

그러나 농가-1의 투입된 자기자본액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즉 순수익률은 농가-1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농가-1은 1992년의 경우 연리 4.2%로 자금을 차입하여(표 4-15 참조) 사과농사를 한 결과 그의 수익률은 그보다 낮은 0.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사례농가들 중에는 사과의 순수익률이 자신들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0'으로 간주한다면 그의 수익률, 즉 자기자본 수익률이 모두 "+"로, 자기자본 잠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3. 사과의 생산성

사과는 경지의 경사도나 토질과 같은 경지여건, 품종, 수형 등에 따라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한 收量 만으로는 그의 생산성과 생산기술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과나무 1주당 收量을 보조지표로 활용한 바, 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농가간의 비교가 용이한 1992년도의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하면 300평당 수확량이 가장 많은 농가-1(2,050kg)이 가장 적은 농가-2(1,704kg)의 1.2배로 그의 차이는 346kg/300평에 이른다. 그러나 사과나무

1주당 수확량은 8.1(농가-2)~8.5kg(농가-1)으로 그의 차이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收量은 농촌진흥청의 1993년산 농축산물 표준소득에서의 10a당 사과 수확량 2,297 kg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져있으나 이것만으로 그의 우열을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재식밀도나 樹型 등에 따른 차이가 단위면적당 收量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992년의 경우 농가-1은 사과밭 평당 2,266원(혹은 사과나무 1주당 2,833원)씩의 소득을, 농가-2는 평당 1,879원(혹은 주당 2,685원)씩의 소득을, 농가-3은 평당 1,826원(혹은 주당 2,329원)씩의 소득을 각각 얻음으로서 농가-1이 가장 앞섰고 농가-3이 가장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농가의 수입 측면(사과 평균 판매가격)보다는 지출 측면(생산원가)의 차이에서 기인한 바, 농가-1의 사과 평균 판매가격은 15kg/상자당 7,085원으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농가-3은 12,025원으로 농가-1의 1.7배나 되었으나 사과생산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직접지출은 15kg/상자당 농가-1이 1,581원, 농가-2가 1,643원인데 비해서 농가-3은 그의 3배가 넘는 7,829원이었다(표 4-26 참조).

표 4-24 농가별 사과의 생산성 지표

구 분		1992. 5. 1~1993. 4. 30			1993	1994	1993 농축산물 표준소득
		농가-1	농가-2	농가-3	농가-1	농가-1	
수확량	kg/300평	2,050	1,704	1,958	1,903	1,040	2,297
	kg/주	8.5	8.1	8.3	7.9	4.3	-
소득	원/평	2.266	1,879	1,826	3,572	2,764	5,371
	원/주	2.833	2,685	2,329	4,464	3,455	-
노동시간당 소득 (원/시간)		4,214	4,223	1,852	5,776	6,297	4,738

주: 1993 농축산물표준소득이란 농진청의 1993 농축산물표준소득(1994년 발간)의 전국 평균을 말함.

한편 농가-1의 년도별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이 1994년도의 단위면적당 수확량(혹은 사과 주당 수확량)이 1993 및 1992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일 것이다. 즉, 1994년은 해거리가 심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기준할 경우 1994년의 평당 및 주당 소득이 1993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1992년 보다는 높고, 노동시간당 소득에 있어서는 지난 3개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거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과 하나하나를 고급화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던 봉지씌우기를 도입했고, 상품성이 뒤떨어진 사과들이 비록 비싼 값은 아닐지라도 1994년부터는 사과쥬스 등의 가공용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과 상자당(15kg) 평균 판매가격이 17,098원으로 전례없이 높았고, 지출 생산비도 봉지씌우기를 위한 고용노력비(해거리로 인해서 열린 사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 4-22에서와 같이 총 소요노동시간은 790시간으로 오히려 가장 적었음)와 봉지값 등이 추가됨으로서 사과 상자당(15kg) 3,923원에 이름으로서 1992년의 1,581원이나 1993년의 2,647원에 비해서 크게 많아졌기 때문(표 4-26 참조)이라고 할 수 있겠다.

3.3.4. 사과의 영농집약도

년간 사과나무 1주당 투입된 노동력을 살펴보면 농가간의 비교가 가능한 1992년의 경우 농가-1과 농가-2는 각각 40.3분과 38.1분으로 40분 내외에 그치고 있으나 농가-3은 75.5분으로 그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농가-3이 사과에 봉지를 씌웠다가 가을에 이를 벗겨줌으로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 노동시간이 그만큼 많다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고용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61%(전체 소요 노동력의 39%만이 자가 노동력이라는 것을 뜻함. 표 4-21 참조)에 이른다는 사실도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작업에 대한 열의나 작업속도 등에서 자가 노동력이 고용 노동력에 앞선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

가-1의 1994년도의 경우도 봉지씌우기를 도입했지만 투입된 노동력은 주당 32.9분으로, 1993년의 46.4분이나 1992년의 40.3분보다 오히려 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4년은 해거리가 심했던 해로서 주당 收量이 4.3kg으로 1993년의 7.9kg이나 1992년의 8.5kg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표 4-24) 열매의 숫자가 적고, 이에 따라 봉지작업의 노동력 수요도 그만큼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과수 1주당 당해년도에 지출된 생산비는 농가-1의 경우 년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500원 내외(1,202~1,716원)이고, 농가-2도 1,374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농가-3은 4,346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나 된다. 이는 지출 생산비의 모든 항목, 즉 물재비와 물재비를 비롯한 직접지출, 감가상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유지비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마찬가지다. 물재비는 1,801원으로 농가-1의 692원이나 농가-2의 829원의 2~3배, 직접지출은 3,321원으로 농가-1의 900원이나 농가-2의 889원의 3.7배 이상, 관리/유지비는 1,025원으로 농가-1의 302원이나 농가-2의 485원의 2~3배에 이른다.

매년 사과생산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직접지출은 당해년도의 기상이나 작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항목에 따라서는 예컨대 기상과 관련된 병충해 방제 관련비용이나 작황, 즉 열린 사과의 갯수와 관련된 과일봉지와 포장재료에 대한 수요와 관련된 비용, 그의 봉지 및 수확작업 수요와 관련된 비용 등이 있다. 그러나 해거리와 같은 큰 폭의 수확량 변화가 없는 한 큰 차이는 없을 수록 좋고, 특히 매년 줄여나갈 수 있을수록 좋다. 그러나 농가-1의 직접지출은 1992년의 900원에서 1993년에는 1,399원으로 크게 늘었고, 해거리가 심하여 收量이 절반 가량이나 줄어든 1994년에도 1,133원으로 1993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감가상각비와 이들 농기계 및 영농시설의 수리, 보수, 운전에 소요되는 지출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유지비는 그의 절감이

표 4-25 농가별 사과의 집약도 지표

구 분	1992. 5. 1. ~ 1993. 4. 30			1993	1994
	농가-1	농가-2	농가-3	농가-1	농가-1
노동시간(분/주)	40.3	38.1	75.5	46.4	32.9
총 지출(원/주)	1,202	1,374	4,346	1,716	1,485
그 중;					
- 직접지출	900	889	3,321	1,399	1,133
(물재비)	(692)	(829)	(1,801)	(1,100)	(871)
- 관리/유지비	302	485	1,025	317	352
(총지출중 %)	(25.1)	(35.3)	(23.6)	(18.5)	(23.7)

그만큼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지출의 절감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직접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출항목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세분화할수록 분석 및 진단이 복잡해진다는 어려움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료, 농약, 포장재료 등을 내용으로 한 물재비와 고용노임과 간식비 등으로 구성된 노력비(고용노력비를 말함), 위탁작업비, 임차료, 수수료 등과 같이 물재비나 인건비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비목을 합한 '기타 직접지출'의 3가지로 구분하는 선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3.3.5. 사과 생산원가

어떤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사과의 생산원가는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의 자산 및 자본의 구성과 같은 그의 변경이 쉽지 않은 구조적 여건과 收量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방식과 기술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컨대 농가간의 비교가 가능한 1992년산 사과의 생산원가는 <표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1이 사과 15kg/상자당 6,726원, 농가-2는 9,484원, 농가-3은 96,119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농가-1이라고 하더라도 기상과 작황이 매년 똑같지 않기 때문에 1992년에는 6,726원, 1993년에는 9,993원, 그리고 1994년에는 13,155원으로 각각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각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농가 외적 조건하에서 각 농가들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과를 생산,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물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한 농가를, 노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한 농가를 목표로 각각 노력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보다 낮은 지출을 유지했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의 농업경영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과 15kg/상자당 96,119원으로 가장 비싸게 생산한 농가-3에게는 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 9,484원을 생산원가로 한 농가-2의 생산방식과 물재비 및 노동력 투입 수준이 하나의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가-2는 그의 생산원가가 농가-1보다는 높지만 고용노력비와 인건비(노무원가)는 각각 77원과 2,127원으로 농가-1의 342원과 2,645원보다 각각 낮기 때문에 물재비, 기타 직접지출, 관리/유지비 등을 농가-1의 그것만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농가-1은 농가-2의 고용노력비와 인건비 수준을 목표로 경영개선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노력만으로는 그의 개선이 어려운 자기자본 이자상당액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관리/유지비는 중장기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영농자산의 처분(매각, 특별상각 등), 농기계 및 영농시설의 규격 및 성능의 적정화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생산원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15kg/상자당 평균 12,025원에 판매한 농가-3의 판매전략과 방식은 농가-1과 농가-2의 경영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4-26 농가별 사과 상자(15kg)당 생산원가 및 순수익

단위: 원/15kg

구 분	1992. 5. 1 ~ 1993. 4. 30			1993	1994	1993년산 표준소득
	농가-1	농가-2	농가-3	농가-1	농가-2	
생산원가	6,726	9,484	96,119	9,993	13,155	-
지출생산비;	2,111	2,539	7,829	3,246	5,140	5,411
○ 직접지출	1,581	1,643	5,982	2,647	3,923	
그중 : -물재비	1,215	1,533	3,244	2,081	3,014	
-노력비	342	77	2,738	408	765	1,786
-기 타	24	33	-	158	144	
○ 관리/유지비	530	896	1,847	599	1,217	
자가노력비평가액	2,303	2,050	1,542	2,930	3,776	4,722
※인건비(노무원가)	2,645	2,127	4,280	3,338	4,541	6,507
자기자본이자상당액	2,312	4,895	86,748	3,817	4,239	
상자당 평균판매가	7,085	7,501	12,025	11,690	17,098	15,900
상자당 평균 소득	4,974	4,963	4,196	8,444	11,958	10,489
상자당 평균순수익	359	-1,983	-84,094	1,697	3,943	

주: 1993년산 표준소득(농진청 농축산물표준소득)은 '10a당'을 '15kg당'으로 환산한 것이며, 공란은 표준소득이 밝히지 않은 항목임.

4 양파 농가

4.1. 농가의 개요

기장농가중 양파 재배농가는 2개 농가에 불과했고, 그중 한 농가(농가-1)는 1993년 3월 1일부터 1995년 2월 현재까지 일계부 기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다른 한 농가(농가-2)는 1993년 3월 1일부터 기장을 시작했으나 1994년 2월 이후부터는 기장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993

년 3월부터 1994년 2월까지를 하나의 결산년도로 하여 두 농가의 농업경영 성과를 상호 비교, 평가하는데 그쳐야 했다.

그러나 양파 재배의 일반적인 작형이 매년 가을에 파종, 정식하여 겨울을 낸 다음 그 이듬해의 5~6월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의 결산연도 설정이 쉽지 않다. 특히, 양파를 다년간 재배해온 양파 재배기술이 이미 전문적인 수준에 이른 농가라고 할지라도 양파의 재배여부는 물론 그의 재배규모나 품종 등이 매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연도의 시작과 끝의 설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 택한 결산연도인 1993년 3월부터 1994년 2월까지의 경우 기장을 시작한 3월에는 이미 지난 해 가을에 파종, 정식했던 양파가 밭에서 자라고 있는 시기이고, 그것이 5~6월에 수확되어 그때부터 그 이듬해 봄철까지 저장, 출하되는가하면 9~10월에는 그 이듬해에 수확, 출하할 양파를 파종, 정식하여 밭에서 월동시킨 후 이듬해 5~6월에 수확되기 때문에 각각의 재배규모가 다를 경우 양파에 대한 정확한 경영성과가 파악되기 어렵다. 농가-1의 경우도 1993년 3월 현재에는 이미 심어져있던 양파가 2,080평이었고, 그해 6월에 이를 수확하여 출하했지만 그해 9월에 파종하여 10월에 정식한 양파는 1,960평으로 120평이 적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기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농가-1에 한해서 지난 해(1992년)에 파종된 양파가 수확되어 버리고 내년(1994년)에 수확할 양파의 파종을 위한 준비가 가능한 1993년 7월 1일부터 그의 수확이 완료된 1994년 6월 30일까지를 결산기간으로 한 농업경영성과를 함께 결산, 분석했다

사례농가들의 경작규모는 3,090~4,290평으로 전국적인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1의 경지 소유규모는 논 2,230평에 불과하고(부록의 양파농가-1의 대차대조표 참조), 그 이상은 임차지다. 양파 재배면적은 농가-1의 경우 1993년산 2,080평, 1994년산 1,960평으로 2천평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농가-2의 경우는 1993년산이 400평에 불과하지만 1,200평의 논과 2,420평의 밭에서(부록의 양파농가-2의 대차대조표 참조) 매년 마늘과 양파를 번갈아가며 재배해온 농가다. 또한 이 농가는 1992년

표 4-27 양파 농가의 경영개요

경 우 별		경작면적 (평)	경작면적 임차	양파 시간 (h)	양파 시간 고용	영농 자산액 (원)	연 간 농업수입액 (원)	유 형
1992 3 ~ 1993 2	농가 -1	3,090	2,080	1,640	345	103,403,380	19,650,640 (27,798,280)	벼+노지 전작
	농가 -2	3,620	400	4,578	629	148,007,220	20,015,520 (20,015,520)	벼+시설/ 노지채소
1994	농가 -1	4,290	1,960	1,355	215	110,000,000	19,340,500 (25,940,500)	벼+노지 전작

주: 1) ( )안은 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보조금에 의한 수입을 포함한 것임.
2) 1994년의 농가-1은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를 회계년도로 한 것임.

여름에 재배시설현대화 지원자금을 받아 500평짜리 현대화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시설채소 전문농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부록의 양파농가-2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참조), 그의 첫해인 1993년의 투입 노동시간은 4,578시간으로 농가-1의 3배 정도에 이르는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도작 → 양파 → 수도작 → 양파의 작부체계를 주축으로 한우 1~2마리와 양봉, 염소 등을 곁들인 농가-1과 시설채소+수도작+밭작물 형태의 경종 복합경영 농가인 농가-2를 동일한(혹은 유사한) 유형의 농가로 간주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양파 생산의 경영성과와 실적을 상호 비교하여 각각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의 농업경영 전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상호간의 비교보다는 전작을 중심으로 한 농가들의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양파에 대한 부문별 분석에서는 두 농가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췄다.

4.2. 농업경영 전체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4.2.1. 수익성

이들 농가의 수익성은 <표 4-28>에서와 같이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만 "0"으로 가정한다면 조수입에서 모든 지출된 생산비와 자가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除하고도 적게는 23만원(농가-2)에서 많게는 7백여만원(농가-1)까지의 자기자본 수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까지를 除한 순수익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순수익률은 1993년 3월부터 1994년 2월까지의 경우 농가-1은 1.9 %, 농가-2는 -3.6 %, 1993년 7월부터 1994년 6월까지의 농가-1은 -0.6 %로 자신들의 부채 이자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들 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경작규모가 3~4천평 수준인 이들 사례농가들의 연간 소득은 850~950만원에 그쳤고, 이는 월평균 70~80만원에 해당된다. 이 농가들의 소득율은 45% 내외로 농업 조수입의 절반 이상이 비용으로 지출되어버린 셈이며, 이같은 소득률은 수도작 농가들의 70-80%, 사과 농가들의 70%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표 4-28 양파 농가의 수익성 지표

경 우 별		연 간 소 득 (원)	자기자본 수 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수 익률(%)	순수익 률(%)	부채이자 율(%)
1992 3 ~ 1993 2	농가-1	9,530,577 (7,564,597)	7,177,562 (5,211,582)	1,515,574 (-450,406)	48.5 (49.8)	9.0 (6.5)	1.9 (-0.6)	7.1
	농가-2	8,506,173 (9,056,173)	231,478 (781,478)	-5,091,111 (-4,541,111)	42.5 (45.2)	0.2 (0.6)	-3.6 (-3.2)	3.8
1994	농가-1	9,291,220 (5,560,430)	7,137,418 (3,406,628)	-600,424 (-4,331,214)	48.0 (41.9)	7.6 (3.6)	-0.6 (-4.6)	8.2

주: 1)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2) 1994년의 농가-1은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를 회계년도로 한 것임.

3) 연간소득: 당년산 재고(차기이월), 재산적 수입(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보조금에 의한 수입), 재산적 지출(영농자산 투자지출, 부채의 원금상환지출)이 제외됨.

4.2.2. 생산성

이들 농가의 경작면적 평당 소득은 2~3천원 수준으로 수도작 농가들과는 비슷한 편이나 사과 농가들보다는 대체로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29). 그러나 노동시간당 소득은 500평의 비닐하우스 농사를 포함해서 모두 4,578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된 농가-2의 경우는 1,858원으로 농가-1의 5,811원 및 6,857원에 비해서는 물론 수도작 농가나 사과 농가들의 그것에 크게 뒤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들 농가가 농업경영에 투입한 총 영농자산액 1원당 소득은 0.06~0.09원으로 그의 1/10인 0.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가들의 영농작업 대행이나 수탁 등에 의한 '비생산 농업수입'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농가 자신의 순수한 농산물 생산활동만을 기준할 경우 그의 생산성은 그보다 더 낮다(표 4-29의 ( )안의 수치를 말함).

표 4-29 양파 농가의 생산성 지표

경 우 별		경작면적당 소득(원/평)	노동시간당 소득(원/h)	영농자산액 1원당 소득	자기자본액 1원당 소득
1993 3 ~ 1994 2	농가-1	3,084 (2,448)	5,811 (4,613)	0.09 (0.07)	0.14 (0.11)
	농가-2	2,350 (2,502)	1,858 (1,978)	0.06 (0.06)	0.06 (0.07)
1994	농가-1	2,166 (1,296)	6,857 (4,104)	0.08 (0.05)	0.12 (0.07)

주: 1)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2) 1994년의 농가-1은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를 회계년도로 한 것임.

4.2.3. 활동성

이 농가들의 투입자본에 대한 매출액(자가생산 농업수입)의 비율, 즉 자본회전율을 살펴보면 <표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수도작 농가나 사과 농가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총 자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0.14~0.19로 대체로 0.20 이상인 수도작 농가들보다는 약간 낮고, 0.17 이하인 사과농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자본 회전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당해년도의 비용, 즉 경영자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1.74~1.94로 2.0을 넘는 경우가 없었으나 사과 농가와 수도작 농가들에 있어서는 4.8~6.0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경영자본 중에서 실제로 지출이 행해지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除한 운전자금에 대한 매출액 비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은 큰 차이가 없다. 즉, 이들 농가의 운전자금 회전율은 2.46~2.78로 2.5 내외인데 비해서 사과 농가와 수도작 농가들은 각각 6.6 및 7.5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표 4-30 양파 농가의 활동성 지표

경우별		총 자 본 회 전 율	자기자본 회 전 율	경영자본 회 전 율	운전자금 회 전 율	경 영 자 본 (운전 자금)	자가생산 농업수입
1993 3 ~ 1994 2	농가-1	0.19 (0.15)	0.29 (0.22)	1.94 (1.50)	2.67 (2.07)	10,120,063 (7,347,820)	15,184,420
	농가-2	0.14 (0.14)	0.15 (0.15)	1.74 (1.74)	2.46 (2.46)	11,509,347 (8,139,287)	20,015,520
1994	농가-1	0.18 (0.12)	0.24 (0.16)	1.92 (1.32)	2.78 (1.91)	10,049,280 (6,948,470)	13,284,500

주: 1)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한 것임.
2) 1994년의 농가-1은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를 회계년도로 한 것임.

4.2.4. 유동성 및 안전성

한편 이들 농가의 자기자본 비율은 농가-1의 경우 65.9%(1993. 3. 1)와 74.3%(1993. 7. 1)로 70% 내외, 농가-2는 90.1%로 수도작 농가나 사과농가들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영농자산중 토지자산의 비율도 65% 내외의 수준으로 다른 농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고정자산의 총 영농자산에 대한 비율, 즉 고정비율은 90% 내외로 사과 농가들의 75% 수준이나 수도작 농가들의 70.6~88.6%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동자산의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고농산물이 밭작물을 주력작목으로 한 농가들에 있어서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다(부록의 양파농가의 대차대조표 참조).

그러나 부채의 유동+유통자산에 대한 비율은 모든 경우가 100%를 초과함으로서 모든 부채가 당장 상환되어야 할 경우 고정자산의 일부가 처분되지 않을 수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다만 농가-2는 부채총액과 유동+유통자산 총액이 거의 같은 101%로 큰 위험이 없고, 농가-1의 경우도 그의 비율이 454.8%(1993. 3. 1)에서 221.8%(1993. 7. 1)로 낮아졌고, 자기자본 비율도 65.9%(1993. 3. 1)에서 74.3%(1993. 7. 1)로 높아짐으로서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1의 부채총액은 비록 거의 대부분이 농지 구입자금, 후계자 육성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의 중장기 정책지원자금이라고 하더라도 1993년 3월 1일·현재 3,530만원, 1993년 7월 1일 현재 2,823만원으로 자기자본의 1/2(총 영농자본의 1/3) 수준이고(부록의 양파농가-1의 대차대조표 참조), 이에 대한 이자지출만도 1993년 3월 ~ 1994년 2월까지의 기간중에 250만원 1993년 7월 ~ 1994년 6월까지의 기간에 232만여원에 이른다(부록의 양파농가-1의 손익계산서 참조).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많은 금액의 이자지출은 농가-1의 소득률이 48% 내외, 순수익률이 1.9% 및 -0.6%에 그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이상에서와 같은 일정한 싯점을 기준으로 한 부채와 자산의 비교는 바로 그 조사시점에서의 재무구조나 재정적 건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표 4-31 양파 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경 우 별		자기자본 비 율(%)	고정비율 (%)	토지자산 비 율(%)	부채의 유동 + 유통자산 비율	단기성 부채의 유통자산 비율
1993 3 ~ 1994	농가-1	65.9	92.5	65.2	454.8	94.9
	농가-2	90.1	90.2	69.3	101.0	18.0
1994	농가-1	74.3	88.4	63.2	221.8	6.0

주: 1994년의 농가-1은 1993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한 것임.

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그의 경영활동이 반복되는 '계속경영체'의 '매 주기마다 반복되는 재무구조 및 재정적 건전도의 파악'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2.5. 성장성

前期 대비 성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가-1의 경우는, 1993년 7월 1일 현재의 영농자산액이 1993년 3월 1일에 비해서 6.4% 증가했고, 그중 고정자산은 1.7%가 증가했으며, 자기자본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20.1%를 기록함으로서 불과 4개월 사이에 상당한 自家調達에 의한 增資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가-1은 1993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까지의 사이에 107평의 논과 한우(번식우) 1마리, 그리고 1톤 트럭을 구입하는데 560여만원을 지출(투자)했으나(부록의 양파농가-1의 손익계산서 참조), 부채는 같은 기간중에 3,530만원에서 2,823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듬으로서(부록의 양파농가-1의 대차대조표 참조), 투자지출과 부채감축의 財源이 스스로의 농가소득에 의해서 충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3년 7월 1일~1994년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은 1993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까지의 그것에 비해 1.8%가 줄어들었고, 이는 같은 기간중의 소득률이 48.5%에서 48.0%로, 자기자본 수익률이 9.0%에서 7.6%로, 순수익률은 1.0%에서 -0.6%로 바뀌는, 각종 수익성 지표의 악화로 이

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가농산물 생산에 의한 농업수입만을 기준한다면 매출액 감소율은 12.5%에 이름으로서 훨씬 심각하다. 다만 농가-1 자신의 노동력에 비해서 경작면적이 적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겨울철에는 이웃의 양파 저장고나 사과 농가로부터 작업을 수탁 혹은 대행을 계속해오고 있고, 이로부터 얻어진 '비생산 농업수입(수탁작업/농업노임)'이 1993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451만여원, 1993년 7월 1일~199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605만여원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한 매출액 감소율 12.5%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32 양파 농가의 성장성 지표

단위: %

경 우 별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매출액 증가율	감 가 상각률	상각적 립금률	투자 對 매 출 액	투자 對 감가상각비	기말 여유 자금(만원)
1993 3 ~ 1994 2	농가 -1	-	-	- (-)	9.8	19.2	28.7 (20.3)	203.6	1,517
	농가 -2	-	-	- (-)	10.9	20.2	- (-)	-	1,188
1994	농가 -1	6.4 (1.7)	20.1	-1.8 (-12.5)	11.2	21.2	24.5 (18.3)	152.9	1,239

주: 1) 총자산 증가율의 ( )안은 고정자산 증가율이고, 매출액 증가율의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 한 것이고, 투자대 매출액의 ( )안은 재산적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한 것이고, 여기서 매출액이라 함은 농업수입(조수입)을 말함.

2) 1994년의 농가-1은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를 회계년도로 한 것임.

3) 감가상각률=감가상각비/감가상각자산액×100

4) 감가상각적립금률(상각적립금율)=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자산액)×100

5) 투자대 매출액(%)=투자지출액/농업수입×100

6) 투자대 감가상각비(%)=투자지출액/감가상각비×100

7) 기말여유자금=농업소득+감가상각비

한편 이들 농가의 년간 감가상각비의 감가상각 자산액에 대한 비율(감가상각률)은 10% 내외로 그 장비들의 내구년수는 대체로 10년 안밖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가상각 적립금률이 20% 수준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와 영농시설물들의 내구년수의 1/5 정도가 지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래를 위한 투자활동에 있어서는 1년전에 500평짜리 현대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가-2은 전무했으나 농가-1은 매출액의 25% 내외, 그리고 당해년도 감가상각비의 1.5~2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연간소득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기말여유자금'은 아직 그의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에 해당되는 바, 농가-2가 1천 2백만원 정도, 농가-2가 1천 2백만원 및 1천 5백만원 수준으로 그의 규모가 가계비 충당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매우 빠듯할 것으로 생각된다.

4.2.6. 집약도

양파를 포함한 밭작물 중심의 사례농가들의 재배면적 평당 노동시간은 <표 4-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지 전작의 형태인 농가-1은 20~30 분/평·년 수준인데 비해 500평의 비닐하우스를 가진 농가-2는 75.9 분/평·년으로 2배 이상에 이른다. 이는 수도작 전문농가의 5분 안밖의 수준보다는 월등히 많지만 농가-1은 대체로 30분 내외인 사과 농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경지가 실제로 사용된 기간에 한정하여 살펴보면(왜냐하면 농작업의 거의 모두가 경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거나 그의 준비나 마감을 위해서 경지가 조작(이용)될 때 행해지기 때문에) 농가-1은 연간 평균 10일동안 1평당 0.5~0.9분씩 노동력이 투입된 셈(0.5~0.9 분/旬·坪)이지만 농가-2는 2.6 분/旬·坪으로 그의 3배 가까이나 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500평의 비닐하우스 농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두 농가간의 비교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겠다.

한편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자가생산 농업지출'

은 양파 재배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1의 경우 경작면적 평당 년간 1,800~2,400원 선으로 수도작 전문농가의 천원 미만의 2~3배에 이르지만 그중 물재비만을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수도작 전문농가가 연간 300~400원/평인데 비해 농가-1은 521~665원/평으로 그의 차이가 '자가생산 농업지출'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하나는 '자가생산 농업지출'의 비목별 구성비이고, 다른 하나는 경지이용률의 차이이다. 먼저 농가-1은 양파를 주력작목으로 한 전작 복합농가로서 그의 노동집약도가 수도작 전문농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19~31.8 분/坪·年 對 5.1 분/坪·年), 이로 인한 고용노동 의존도(표 4-34)와 이에 대한 노임 지출의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지가 1년에 6~7개월 정도만 이용되는 수도작 전문농가의 연간 경지면적 평당 자가생산 농업지출액과 경지 이용률이 그보다 높은 양파를 주력작목으로 한 전작농가인 농가-1의 그것과의 상호간의 단순한 평면적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수도작 전문농가의 연간 경지면적 평당 자가생산 농업지출액은 실제로는 '연간'이 아니라 '6~7개월간'인 반면에 농가-1의 그것은 그의 경지이용률이 97.8~98.4%로(표 4-34), 거의 '연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경지이용기간에 한정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1坪1旬(10일)당으로 계산하면 농가-1은 50.9~70.1 원/旬·坪으로 수도작 전문농가의 50원이나 사과농가들의 40원 내외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4-33 양파 농가의 집약도 지표

구 분		노동시간		자가생산농업지출		물 재 비		경지면적당 대농구자산액 (원/평)
		坪당 (분/평)	旬·坪당 (분/旬坪)	坪당 (분/평)	旬·坪당 (분/旬坪)	坪당 (분/평)	旬·坪당 (분/旬坪)	
1993	농가-1	31.8	0.9	2,466	70.1	665	18.9	3,305
	농가-2	75.9	2.6	3,027	105.4	1,253	43.6	1,850
1994	농가-1	19.0	0.5	1,800	50.9	521	14.7	2,075

주: 1994년의 농가-1은 1993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한 것임.

4.2.7.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이들 농가의 경지이용률은 <표 4-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높다. 농가-1의 경지이용률은 97.8~98.4%로 1년중 8일(1993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 혹은 1993년 7월 1일~1994년 6월 30일 : 6일)을 제외한 357일간(1993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 혹은 1993년 7월 1일~1994년 6월 30일: 359일간) 경지가 이용되었다. 이는 수도작 → 양파(혹은 마늘) → 수도작 → 양파(혹은 마늘)가 반복되는 작부체계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농가-1의 자가노동력 이용률은 61.2~64.6%로 농가-2의 91.4%와 큰 차이를 보인 바, 농가-2는 500평의 비닐하우스를 함께 경영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특히, 자가노동력 이용률 91.4%는 경영주 본인 부부의 노동력 1.5인이 지난 1년간 매일 7.3시간씩 270일동안 일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이 일시에 행해져야 할 노지의 대파, 쪽파, 무 등의 수확/출하작업, 시설재배의 고추, 오이 등의 정식작업 등을 위해서 전체 노동시간의 13.7%인 629시간의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했다(표 4-27).

반면 농가-1은 그의 작부체계가 수도작 → 양파(혹은 마늘) → 수도작의 반복으로 단순하여 소요 노동력의 시기별 안배(按配)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가노동력 이용률이 높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물의 생육단계에 고정되어 있는 영농작업을 하루 이틀 사이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그만큼 높게하는 요인이 된다.

표 4-34 양파 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구 분		경 지 이용률(%)	자가 노동 이용률(%)	고용 노동 의존도(%)	시간당 고용 노력비(원/h)
1993 3 ~ 1994	농가-1	97.8	61.2	21.0	1,817
	농가-2	70.1	91.4	13.7	2,095
1994	농가-1	98.4	64.6	15.9	1,889

주: 1) 1994년의 농가-1은 1993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한 것임.
2) 자가노동 이용률에는 수탁작업시간을 포함시킴.

4.3. 양파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4.3.1. 양파의 경영개요

사례농가들의 양파 재배면적은 농가-1의 경우 1,960~2,080평으로 2천평 내외에서 안정적이며, 그의 조수입 비중은 39.4~54.4%, 지출 비중은 28~34.4%로 상당히 큰 편이다. 반면 농가-2의 양파 재배면적은 400평(1993년산=1992년 파종분)에 불과하고 그의 조수입 비중은 9.2%, 지출비중은 8.3%로 농가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농가-2는 전국적인 마늘/양파 주산지의 마늘/양파 생산농가로서 매년 마늘/양파의 재배여부와 재배규모가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농가-2의 양파재배 400평을 단순한 부업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표 4-35).

표 4-35 농가별 양파 경영개요

경 우 별		양파재배면적		노동 시간		양파 조수입		양 파 지 출	
		(평)	임차	(h)	고용	원	%	원	%
1993	농가-1	2,080	-	813	203	10,718,200	54.4	3,482,273	34.4
	농가-2	400	-	405	36	2,056,000	9.2	950,589	8.3
1994	농가-1	1,960	-	553	135	14,538,500	39.4	2,811,430	28.0

주: 1) 경우별의 1993은 1993. 3. 1~1994. 2. 28, 1994는 1993.7.1~1994. 6. 30을 결산기간으로 한 것임.

2) -'양파 조수입'은 당년산(수매, 시판, 자가소비, 차기로 이월된 당년 재고)을 기준함.

3) 조수입 % = 당년산 조수입÷(자가생산 농업수입-당년산 재고+재산적수입 이외의 비생산 농업수입)×100

4) 양파 지출 % = 양파 지출÷(자가생산 농업지출-감가상각비+재산적지출 이외의 비생산 농업지출)×100

4.3.2 양파의 수익성

양파 조수입에서 양파재배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지출 생산비와 농장 전체의 관리/유비지중 양파의 지분(조수입 비중을 기준함)을 除하고 얻은 소

득은 농가-1의 경우 724~1,173만원, 그리고 그의 조수입에 대한 비율, 즉 소득률은 67.5~80.7%(소득률)로 수도작의 70~80%, 사과의 70% 내외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농가-2는 그의 재배규모가 400평에 불과하여 110만원의 소득을 얻는데 그쳤고, 소득률도 53.8%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소득에 포함된 자가노동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 즉 자가노력비 평가액과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除한 순수익은 농가-1의 경우 298(1993년산)~791(1994년산)만원으로 농가-1은 자신의 경영능력에 대한 대가로 1993년산에 있어서는 298만원을, 1994년산에서는 791만원을 각각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그의 총 투입자본(영농자본)에 대한 비율, 즉 순수익률이 7.5(1993년산)~22.9(1994년산)%로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연평균 이자율 7.1(1993년)~8.2(1994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8 참조). 이는 곧 연리 7.1%(혹은 8.2%)짜리 자금을 투입하여 그보다 높은 수익률, 즉 7.5%(혹은 22.9%)의 순수익률을 달성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농가-2의 경우는 비록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를 "0"으로 간주할 경우 "적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파 재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 보다는 나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순수익률이 -2.4%로 자신의 경영능력에 대한 대가는 차치하더라도 자가노동력과 자기자본(혹은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한 대가 조차도 충분히 보상받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그의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4-36 농가별 양파의 수익성 지표

구 분		양파소득(원)	자기자본 수익(원)	순 수 익(원)	소득률(%)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률(%)
1993 3 ~ 1994	농가-1	7,235,927	5,824,387	2,982,509	67.5	14.6	7.5
	농가-2	1,105,411	182,911	-309,600	53.8	1.4	-2.4
1994	농가-1	11,727,070	10,748,114	7,910,384	80.7	31.1	22.9

주: 1993은 1993. 3. 1~1994. 2. 28, 1994는 1993. 7. 1~1994. 6. 30을 결산기간으로 한 것임.

4.3.3. 양파의 생산성

양파의 300평당 수확량은 <표 4-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6천 kg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한 생산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농가-1의 평당 소득과 노동시간당 소득은 1993년산의 경우 각각 3,479원과 8,900원이었으나 1994년산은 각각 5,983원과 21,206원으로 1993년의 그것보다 각각 1.7배와 2.4배나 더 많다. 이는 양파의 가격이 매년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바, 1993년산의 kg당 평균 판매가격은 251.3원이었으나 1994년산은 374.1원으로 그의 1.5배나 되었었다(표 4-39 참조).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격의 차이는 단순한 작황이나 수급상황의 차이 뿐만이 아니라 농가의 출하시기와 방법, 그리고 출하시기별 출하량 등의 차이, 즉 '농가의 선택 여하'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하지만 段收가 비슷하고 결산기간이 같은데도 평당 혹은 노동시간당 소득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면, 그중 일부가 농가의 출하시기 및 방법, 출하시장 등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의 상당부분은 물재비, 노임, 고용노동력 등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와 같은 농가 내부의 경영여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993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농가-1은 평당 3,479원의 소득을 얻음으로서 평당 2,764원의 소득을 얻은 농가-2에 비해서 25.9%가 많고, 노동시간당 소득은 농가-1이 8,900원으로 농가-2의 2,729원의 3.3배나 된다. 이 경우는 그의 kg당 평균 판매가격이 251.3원(농가-1) 對 250.1원(농가-2)로 거의 같기 때문에(표 4-39 참조) 비록 그의 출하시기나 방법, 출하시장 등이 달랐었다고 하더라도 수입부문에서의 차이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투입물재비와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과다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표 4-37 농가별 양파의 생산성 지표

구 분	1993. 3. 1~1994. 2. 28		1994	1993 농축산물 표준소득
	농가-1	농가-2	농가-1	
단 수(kg/300평)	6,153	6,165	5,948	5,723
평당 소득(원/평)	3,479	2,764	5,983	2,572
노동시간당 소득 (원/시간)	8,900	2,729	21,206	4,737

주: 1) 1994의 결산기간은 1993. 7. 1~1994. 6. 30임.
2) 1993 농축산물표준소득은 농진청(1994년 발간)의 1993 농축산물 표준소득의 전국평균을 말함.

4.3.4. 양파의 영농집약도

즉, 1993년 3월 1일~1994년 2월 28일까지의 양파 재배면적 1평당 노동시간과 물재비 등의 지출 생산비 투입량을 살펴보면 <표 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1은 23.5분의 노동시간과 259원의 물재비를 포함 1,674원의 지출 생산비를 투입한 반면 농가-2는 60.8분의 노동시간과 926원의 물재비를 포함, 2,376원의 지출 생산비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농가-2는 농가-1보다 노동시간은 2.6배, 물재비는 3.6배, 지출 생산비는 1.4배를 각각 더 투입했으며, 농가-2는 그만큼 경영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농가-1의 경우 그의 1993년산과 1994년산을 비교하면 물재비 투입이 259원/평에서 270원/평으로 약간 늘었을 뿐 전체적인 지출 생산비와 노동력 투입을 그보다 더 줄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투입의 감축이 段收의 감소를 가져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1993년산의 단수는 6,153kg이었으나 1994년산의 단수는 5,948kg으로 3.3%가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2의 경영개선은 그의 노동력과 지출 생산비의 투입을 현재보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8 농가별 양파의 집약도 지표

구 분	1993. 3. 1~1994. 2. 28		1994	1993 농축산물 표준소득
	농가-1	농가-2	농가-1	
노동시간(분/평)	23.5	60.8	16.9	32.6
총지출(원/평)	1,674	2,376	1,434	1,256
그 중;				
- 직접지출	485	1,316	431	-
(물재비)	(259)	(926)	(270)	(-)
- 관리/유지비	1,189	1,060	1,003	-
(총지출중 %)	(71.0)	(44.6)	(69.9)	(-)

주: 1994년의 결산기간은 1993. 7. 1~1994. 6. 30임.

4.3.5. 양파의 생산원가

양파의 kg당 생산원가는 농가와 년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농가-1의 경우는 1993년산이 181.4원이었던데 비해 1995년산은 段收가 그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170.5원으로 낮아졌지만 농가-2의 경우는 287.8원(1993년산)으로 같은 기간중의 농가-1의 181.4원의 1.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9).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농가-1의 경우 양파 kg당 물재비는 13원 내외(12.7(1993년)~13.6(1994년)원), 고용노력비는 10원 내외(11.0(1993년)~8.1(1994년)원), 그리고 농장 전체의 관리/유지비중 양파 지분이 55원 내외(58.0(1993년)~50.6(1994년)원)로 감가상각비를 포함 실제로 지출이 행해진 지출생산비는 78원 내외(81.7(1993년)~72.3(1994년)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를 kg당 평균 판매가격에서 除한 'kg당 소득액'은 169.6(1993년)~301.8(1994년)원에 이른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농가-1의 실제로 지출이 행해진 고용노력비와 지출이 행해지지 않은 자가노력비 평가액을 합한 인건비, 즉 노무원가는 kg당 44.1(1993년)~33.3(1994년)원으로 물재비 12.7(1993년)~13.6(1994년)원의 3.5(1993년)~

2.4(1994년)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양파가 매우 노동집약적 작물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농가-1의 'kg당 소득액'으로부터 자가노력비 평가액과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모두 除하고 남은 'kg당 순수익'은 69.9(1993년)~203.6(1994년)원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94년산의 순수익 203.6원/kg은 그의 생산원가가 170.5원/kg이었고, 그의 kg당 평균 판매가격이 374.1원/kg이었다는 점에서 판매는 생산원가의 2.2배의 가격으로, 순수익은 생산원가의 1.2배를 기록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39 농가별 양파 kg당 생산원가 및 순수익

단위: 원/kg

구 분	1993. 3. 1~1994. 2. 28		1994	1993 농축산물 표준소득
	농가-1	농가-2	농가-1	
생산원가	181.4	287.8	170.5	-
지출생산비;	81.7	115.7	72.3	65.8
○ 직접지출	23.7	64.1	21.7	
그중 : -물재비	12.7	45.1	13.6	
-노력비	11.0	19.0	8.1	26.1
-기타	-	-	-	
○ 관리/유지비	58.0	51.6	50.6	
자가노력비평가액	33.1	112.2	25.2	38.9
※인건비(노무원가)	44.1	131.2	33.3	65.0
자기자본이자상당액	66.6	59.9	73.0	
kg당 평균 판매가	251.3	250.1	374.1	200.5
kg당 평균소득	169.6	134.4	301.8	134.8
kg당 평균순수익	69.9	-37.7	203.6	

주: 1994의 결산기간은 1993. 7. 1~1994. 6. 30임.

반면 농가-2의 경우는 양파 kg당 생산원가가 287.8원으로 평균 판매가격 250.1원보다 37.7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관리/유지비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농가-1보다 많았다. 즉, 양파 kg당 물재비는 45.1원으로 농가-1의 3.6배, 고용노력비는 19원으로 농가-1의 1.7배, 인건비(노무원가)는 131.2원으로 3.0배 등이다. 이는 곧 농가-2의 경우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5. 시설딸기 농가

5.1. 농가의 개요

시설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로서 꾸준히 1년 이상 일계부를 기장한 농가는 1993년 2월에 추가로 선정한 2개 농가로서 경작면적은 3,650평 對 3,230평, 딸기 재배면적(비닐하우스)은 1,300평 對 1,100평으로 비슷하고(표 4-40), 재배시기는 9~10월에 정식하여 이듬해 2~3월부터 5~6월까지 수확하여 2농가가 같다. 다만 농가-1은 딸기에 대해서 유기자연농법을 택하고 있고 딸기 뒷그루로 비가림 오이재배가 이어지는 반면 농가-2는 딸기 뒷그루로 수도작(비닐하우스를 걷어내고)이 이어진다는 점이 각각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영농에 투입된 총 자산인 영농자산액은 1억 2천여만원으로 두 농가가 비슷하지만 연간 농업 노동시간은 농가-1이 4,443시간으로 농가-2의 3,145시간보다 훨씬 많고, 고용노동시간은 농가-1이 1,556시간으로 농가-2의 336시간의 5배 가까이에 이른다. 또한 농업조수입은 농가-1이 4천 3백여만원으로 농가-2의 2천 3백만원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가 더 많다. 이는 보다 많은 시간을 일한 농가가 보다 많은 수입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40 시설딸기 농가의 경영개요

경 우 별		경작면적 (평)	경작면적 시설면적	노동 시간 (h)	노동 시간 고용	영농 자산액 (원)	연 간 농업수입액 (원)	유 형
1993 3.1 ~	농가 -1	3,650	1,300	4,443	1,556	121,307,050	43,344,975 (57,344,975)	벼+시설 채소
1994 2.28	농가 -2	3,230	1,100	3,145	336	120,166,070	22,904,780 (30,904,780)	벼+시설 딸기

주: ( )안은 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보조금 등에 의한 수입(재산적 수입)이 포함된 것임.

5.2. 농업경영 전체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5.2.1. 수익성

농가-1과 농가-2의 수익성은 매우 대조적인 바, 농가-1은 매우 양호하고 농가-2는 매우 부진하다. 농가-1은 그의 농업소득이 1,760만원, 여기서 자가노동에 대한 댓가를 除한 자기자본 수익이 1,271만원, 여기서 또 다시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除하고 남은 순수익, 즉 자신의 경영능력에 대한 대가가 760여 만원에 이르러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 5.2%보다 높은 7.9%의 순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농가-2는 그의 농업소득이 313만여원에 불과하여 자가노동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중 어느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고 그의 순수익률은 자신의 부채 이자율 8.3%는 커녕 -10.0%로 극히 저조했다. 특히, 이 농가의 소득 313만여원은 그의 가계비조차도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자기자본 잠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같은 경우 실제로는 지출이 행해지지 않은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와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성 자금인 감가상각 적립금이 轉用됨으로서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상황이 한해에 그치지 않을 경우 자기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농가-2는 그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4-41 시설딸기 농가의 수익성 지표

경우별		연 간 소 득(원)	자기자본 수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 률(%)	부채이자 율(%)
1993 3 ~	농가 -1	17,607,626 (20,206,115)	12,713,122 (15,311,611)	7,658,802 (10,257,291)	40.6 (46.6)	13.1 (15.8)	7.9 (10.6)	5.2
1994 2	농가 -2	3,139,637 (3,649,030)	-1,905,327 (-1,395,934)	-11,219,261 (-10,709,868)	13.7 (17.5)	-1.7 (-1.2)	-10.0 (-9.5)	8.3

주: 1)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2) 연간소득: 당년산 재고(차기이월), 재산적 수입(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 보조금에 의한 수입), 재산적 지출(영농자산 투자지출, 부채의원금 상환지출)이 제외됨.

5.2.2. 생산성

경작면적 평당 농업소득액은 <표 4-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1의 경우 4,824원으로 사과농가와 양파 농가의 3천원 내외, 수도작 농가들의 2~3천원선보다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시간당 소득은 3,963원/h으로 양파농가의 6천원 내외, 사과농가의 8천원 내외, 수도작 전문농가의 3만원 내외에 비해서 훨씬 낮다. 이는 딸기재배 자체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뿐만이 아니라 그의 기계화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반면 농가-2의 경우는 경작면적 평당 972원, 노동시간당 998원으로 농가-1의 1/5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표 4-42 시설딸기 농가의 생산성 지표

경 우 별		경작면적당 소득(원/평)	노동시간당 소득(원/h)	영농자산액 1원당 소득	자기자본액 1원당 소득
1993 3 ~	농가-1	4,824 (5,536)	3,963 (4,548)	0.15 (0.17)	0.25 (0.29)
1994 2	농가-2	972 (1,130)	998 (1,160)	0.03 (0.03)	0.04 (0.04)

주: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 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5.2.3. 활동성

영농에 투입된 총 자본에 대한 자가생산 농업수입의 비율, 즉 총 자본회전율은 <표 4-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1의 경우 0.36으로 0.20 안밖인 수도작 전문농가나 양파농가 0.15 수준인 사과농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자가생산 농업수입의 당해년도 지출 생산비인 경영자본에 대한 비율은 1.68로 수도작 전문농가의 5.5, 사과농가의 4.0, 그리고 양파농가의 1.9보다 낮다. 또한 경영자본에서 실제로 지출이 행해지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운전자금에 대한 농업조수입의 비율은 1.96으로 수도작 전문농가의 7.5나 사과농가의 6.0, 그리고 양파농가의 2.7보다 낮다. 이는 시설딸기가 조수입도 많지만 생산비 지출도 많은 편에 속하는 작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농가-2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의 회전율이 농가-1보다 낮았으며, 이는 영농에 투입된 자본이나 당해년도의 지출생산비가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가생산 농업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 농가-1의 자가생산 농업수입이 4천 3백여만원인데 비해서 농가-2의 그것은 2천여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4-43 시설딸기 농가의 활동성 지표

경우별		총 자 본 회 전 율	자기자본 회 전 율	경영자본 회 전 율	운전자금 회 전 율	경영자본 (운전 자금)	자가생산 농업수입
1993 3 ~	농가 -1	0.36 (0.36)	0.62 (0.62)	1.68 (1.68)	1.96 (1.96)	25,737,349 (22,086,349)	43,324,975
1994 2	농가 -2	0.19 (0.17)	0.26 (0.23)	1.16 (1.06)	1.58 (1.45)	19,765,143 (14,457,843)	20,894,780

주: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한 것임.

5.2.4. 유동성 및 안전성

농가-1의 자기자본 비율은 57.9%로 42.1%가 차입자본에 의존하고 있고, 부채총액이 유동+유통자산 총액의 5.7배에 이르며,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성 부채도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유통자산액의 1.3배를 넘고 있어서 재정적 안전성이 그만큼 불량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고정자산의 총 영농자산에 대한 비율, 즉 고정비율은 92.7%, 토지자산 비율은 72.0%로 업종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가-2의 경우도 그의 유동성과 안전성이 농가-1의 그것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다. 우선 부채비율이 25.4%로 전체 영농자산의 3/4이 자기자본이라는 점에서 1/2을 약간 상회하는 농가-1보다 양호하고, 부채총액이 유동-유통자산의 4.6배로 농가-1의 5.7배보다는 양호하다고 하겠지만 단기성 부채가 유통자산의 2.3배로 1.3배인 농가-1보다 불리하다. 또한 고정비율과 토지자산 비율도 각각 94.5%와 73.4%로 농가-1의 92.7%와 72.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러한 차이만으로 업종전환의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지면적이 3천평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젊은 후계자 농가로서 예컨대 농가-1은 1993년에 439평의 논을 구입하는 등 그의 영농투자 총액이 22,317,800원에 이르렀고(부록의 시설딸기농가-1의 손익계산서 참조), 농가-2는 한우 4두를 구입하는 등 12,406,850원을 투자하는 등(부록의 시설딸기농가-2의 손익계산서 참조), 매우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의 상당부분이 차입자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다.

표 4-44 시설딸기 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경우별		자기자본 비율(%)	고정비율 (%)	토지자산 비율(%)	부채의 유동+ 유통자산 비율	단기성 부채의 유통자산 비율
1993 3 ~ 1994 2	농가-1	57.9	92.7	72.0	569.7	134.9
	농가-2	74.6	94.5	73.4	463.3	225.8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2의 경우처럼 연리 8.3%짜리 자금을 차입하여 순수익률 -10.0%, 혹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0%"로 간주하더라도 그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1.7%로 여전히 "-"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금차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5.2.5. 성장성

이들 농가의 기장이 1년간에 불과하여 그의 성장여부를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투자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즉, 두 농가가 모두 연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영농부문에 투자했다. 농가-1은 자신의 자가생산 농업수입의 51.5%를, 농가-2는 54.2%를 각각 영농투자지출에 사용했다. 농가-1은 439평짜리 논과 1톤짜리 트럭을 구입하고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장을 신축하는 등에 2,231만여원을 지출했고(부록의 시설딸기농가-1의 손익계산서 참조), 농가-2는 한우 송아지 4두와 1톤짜리 트럭을 구입하고 관정을 포함한 비닐하우스의 수막재배를 위한 시설 및 보온덮개 개폐기 설치 등에 1,240만원을 지출했다(부록의 시설딸기농가-2의 손익계산서 참조).

또한 이같은 투자규모는 당해년도 감가상각비의 6.1배(농가-1)와 2.3배(농가-2)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상유지'보다는 '확대발전'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자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감가상각률은 농가-1의 경우 14.5%로 그의 내구성 자산의 잔여 내구년수가 평균 6.9년인데 비해서 농가-2는 20.9%로 4.8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적립금율도 농가-1은 감가상각 자산의 본래의 값의 32.3%인데 비해서 농가-2는 40.0%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농업조수입에서 실제로 지출이 행해지지않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농업지출을 除한 기말여유자금은 농가-1의 경우 2,126만원으로 농가 스스로의 가계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겠지만 농가-2의 경우는 845만원에 불과하여 가계비의 충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45 시설딸기 농가의 성장성 지표

단위: %

경우별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 가 율	매출액 증가율	감가 상각률	상각적 립금률	투자 대 매 출 액	투자 대 감가상각비	기말 여유 자금(만원)
1993 3 ~ 1994 2	농가 -1	-	-	- (-)	14.5	32.3	51.5 (20.3)	611.3	2,126
	농가 -2	-	-	- (-)	20.9	40.0	54.2 (40.1)	233.8	845

주: 1) 투자 대 매출액의 ( )안은 재산적 수입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한 것이고, 여기서 매출액이라 함은 농업수입(조수입)을 말함.
2) 감가상각률=감가상각비/감가상각자산액×100
3) 감가상각적립금률(상각적립금율)=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자산액)×100
4) 투자대 매출액(%)=투자지출액/농업수입×100
5) 투자대 감가상각비(%)=투자지출액/감가상각비×100
6) 기말여유자금=농업소득+감가상각비

특히, 그안에 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 53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영 전반에 걸친 수지균형을 위한 보다 세심한 돈(자금)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2.6. 집약도

시설딸기 농가들의 주요 영농자원 투입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집약적이다. 우선 경작면적 평당 년간 노동시간은 두 농가가 비슷한 수준인 바, 73.0(농가-1)~75.9(농가-2)분으로 사과 농가와 양파농가의 30분 내외의 2배에 이르고 수도작 전문농가의 5분에 비하면 무려 14~15배에 이른다. 작물 재배를 위해서 경지가 이용되는 동안에만 작업이 행해진다는 관점에서 그의 이용시간이 함께 고려된 경지이용면적 1坪 1旬(10일간), 즉 旬·坪을 기준하면 농가-1은 3.1분, 농가-2는 2.6분으로 1분 내외인 사과농가나 양파농가의 3배 정도 0.3분인 수도작 전문농가의 10배 정도나 된다.

표 4-46 시설딸기 농가의 집약도 지표

구 분		노동시간		자가생산농업지출		물 재 비		경지면적당 대농구자산액 (원/평)
		坪 당 (분/평)	旬·坪당 (분/旬坪)	坪 당 (원/평)	旬·坪당 (원/旬坪)	坪 당 (원/평)	旬·坪당 (원/旬坪)	
1993 3 ~ 1994 2	농가-1	73.0	3.1	6,334	267	3,809	160	463 (17,500)
	농가-2	75.9	2.6	3,027	105	1,253	44	1,850 (15,000)

주: ( )안은 재배시설면적 평당 재배시설 자산액(원/평)임.

그러나 또한 당해년도의 지출생산비인 자가생산 농업지출액과 그중 물재비 지출은 두 농가간에 큰 차이가 있다. 경작면적 평당 년간 자가생산 농업지출액은 농가-1이 6,334원인데 비해 농가-2는 3,027원으로 농가-1의 48% 수준이고, 경지이용면적 旬·坪을 기준하더라도 농가-1은 267원인데 비해 농가-2는 105원으로 농가-1의 39% 수준에 그쳤다. 그중 물재비에 있어서는 그의 격차가 그보다 심하다. 즉, 농가-1은 경작면적 평당 년간 3,809원을 투입한데 비해 농가-2는 그의 33% 정도인 1,253원을 투입했고, 경지이용면적 旬·坪 당 농가-1은 160원을, 농가-2는 그의 27% 정도인 44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두 농가의 작부체제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가-1은 딸기의 후작으로 오이를 재배함으로서 여전히 집약적 작물로 이어지지만 농가-2는 딸기에 이어 수도작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5.2.7. 영농자원의 이용

이들 농가의 경지이용률은 66.0(농가-1)~83.3(농가-2)%로 수도작 전문농가의 50% 내외보다는 높지만 98% 수준인 양파농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자가노동력 이용률은 86.7(농가-2)~89.1(농가-1)%로 수도작 전문농가의 50%, 양파농가의 65%, 사과농가의 70%보다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만만치 않은 바, 농가-1은 전체 소요노동력의 35%를, 농가-2는 10.7%를 각각 고용노동력에 의존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47 시설딸기 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구 분		경 지 이용률(%)	자가노동 이용률(%)	고용 노동 의존도(%)	시간당 고용 노력비(원/h)
1993 3 ~ 1994 2	농가-1	66.0	89.1	35.0	1,695
	농가-2	83.3	86.7	10.7	1,796

5.3. 시설딸기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5.3.1. 시설딸기 경영개요

농가-1은 1,300평의 비닐하우스에 1,730만원의 지출생산비와 1,464시간의 고용노동력을 포함해서 총 3,556시간의 노동력을 투입, 딸기를 생산·판매하여 총 3,337만원의 조수입을 얻었고, 농가-2는 그보다 200평이 적은 1,100평의 비닐하우스에서 1,520만원의 지출 생산비와 2,902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딸기를 생산, 2,030만원의 조수입을 얻었다. 또한 이들 농가에 있어서의 딸기에 의한 조수입은 전체의 75.8(농가-1)~88.7(농가-2)%, 지출은 67.2(농가-1)~76.9(농가-2)%로 명실상부한 '주력작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8 농가별 시설딸기 경영개요

경우별	시설딸기 재배면적		노동시간		딸기 조수입		딸기 지출	
	(평)	임 차	(h)	고용	원	(%)	원	(%)
농가-1	1,300	-	3,556	1,464	33,371,375	75.8	17,299,221	67.2
농가-2	1,100	-	2,902	336	20,307,880	88.7	15,194,035	76.9

주: 1) 조수입 % = 당년산 조수입÷(자가생산 농업수입-당년산 재고+재산적수입 이외의 비생산 농업수입)×100

2) 딸기 지출 % = 딸기 지출÷(자가생산 농업지출-감가상각비+재산적 지출 이외의 비생산 농업지출)×100

5.3.2. 딸기의 수익성

딸기에 의한 소득은 농가-1이 1,607만원으로 농가-2의 511만원의 3배 이상이며, 딸기 소득률에 있어서도 농가-1은 48.2%로 농가-2의 25.2%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농가-1은 자가노동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를 除하고도 920만원의 순수익, 즉 자신의 경영능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딸기 농사에 투입된 자기자본의 14.4%로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 5.2%의 2.8배나 되는 것이다.

반면 농가-2는 딸기에 의한 소득 자체가 농가-1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기 때문에 자가노동과 자기자본(혹은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한 보수(혹은 그의 일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 물론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기한다면, 즉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0"으로 간주한다면 자가노동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고도 50만원의 자기자본 수익이 남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가-2의 순수익률 -7.7%는 농가-2 스스로가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이자지출액이 252만원에 이르고(부록의 시설딸기농가-2의 손익계산서 참조), 그의 년평균 이자율이 8.3%(표 4-41 참조)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특히 농가-2는 부채 총액 3천여만원의 26.2%인 8백만원이 사채라는 점에서(부록의 시설딸기농가-2의 대차대조표 참조), 예컨대 상환조건이 그보다 유리한 부채로의 전환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표 4-49 농가별 시설딸기의 수익성 지표

구 분		딸기소득 (원)	자기자본 수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률 (%)
1993 3 ~ 1994 2	농가-1	16,072,154	12,528,306	9,203,550	48.2	19.6	14.4
	농가-2	5,113,845	505,309	-7,011,690	25.2	0.6	-7.7

5.3.3. 딸기의 생산성

300평당 딸기 수확량은 농가-1의 경우 2,812kg으로 농축산물 표준소득의 전국평균 2,698kg보다 4.2% 정도가 많은데 비해 농가-2는 2,602kg으로 3.6 % 가량이 적다. 그러나 재배면적 평당 소득은 두 농가가 모두 농축산물 표준소득의 전국평균이 12,489원에 미치지 못했다. 농가-1은 12,363원/평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농가-2는 4,649원/평으로 전국평균의 37.2%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경향은 노동시간당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바, 농가-1은 노동시간당 4,520원으로 농축산물 표준소득의 전국평균 4,595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농가-2는 1,762원으로 그의 37.6% 수준에 불과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두 농가의 평당 및 노동시간당 소득의 차이가 그의 段收의 차이 보다 훨씬 큰 격차를 보인 것은 이들 농가가 실현한 딸기의 kg 당 판매단가가 농가-1은 2,614원이었던데 비해서 농가-2는 1,992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한 판매단가의 차이는 판매방식이나 판매처 등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딸기의 품질에 의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50 농가별 시설딸기의 생산성 지표

구 분	1993. 3. 30~1994. 2. 28		1993 농축산물 표준소득
	농 가 - 1	농 가 - 2	
단 수(kg/300평)	2,812	2,602	2,698
평당 소득(원/평)	12,363	4,649	12,489
노동시간당 소득 (원/시간)	4,520	1,762	4,595

주: 1993 농축산물표준이란 농진청(1994년 발간)의 1993 농축산물표준 소득의 딸기(촉성)의 전국평균을 환산한 수치임.

5.3.4. 딸기의 영농 집약도

영농 집약도는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의 적정수준을 정확히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에서도 두 농가의 딸기 재배면적 평당 물재비 투입은 <표 4-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1이 8,282원인데 비해서 농가-2는 그의 80% 수준인 6,585원에 그침으로서 큰 차이를 보인바, 어느 농가의 투입수준이 더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농가-1과 농가-2의 딸기 kg당 판매단가가 2,614원 對 1,992원으로 그의 比가 1.3에 이르는 큰 차이는 두 농가간의 딸기 품질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물론 段收의 차이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두 농가간의 단수의 차이는 2,812kg 對 2,602kg으로 그의 比가 1.08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재배면적 평당 투입 노동시간도 농가-1은 164.1분인데 비해 농가-2는 158.3분으로 일손도 적게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1의 재배면적 평당 물재비 및 노동력 투입을 줄이는 것보다는 농가-2의 그것들을 오히려 농가-1의 수준으로 높힘으로서 딸기의 품질 향상을 기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1과 같은 높은 판매가격을 실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표 4-51 농가별 시설딸기의 집약도 지표

구 분	1993. 3. 30~1994. 2. 28		1993 농축산물 표준소득
	농 가 - 1	농 가 - 2	
노동시간(분/평)	164.1	158.3	163.1
총 지출(원/평)	13,307	13,813	7,485
그 중;			
- 직접지출	10,221	7,509	
(물재비)	(8,282)	(6,585)	
- 관리/유지비	3,086	6,304	
(총지출중 %)	(23.2)	(45.6)	

주: 1993 농축산물표준소득이란 농진청(1994년 발간)의 1993 농축산 물표준소득의 딸기(촉성)의 전국평균을 환산한 수치임.

또한 단기적으로는 그의 개선이 어렵지만 관리/유지비의 감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농가-2의 재배면적 평당 관리/유지비는 농가-1(평당 3,086원)의 2배 정도인 6,304원씩이 발생된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농가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갖춰진 농기계와 영농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그의 수리/유지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의 딸기 지분(持分)만을 감축하거나 딸기 만을 중심으로 그의 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그러나 농가-2의 농기계 보유 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농가-1은 1,300평의 비닐하우스 농사와 2천평 정도의 수도작을 경영하면서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연무기를 가지고 있고(=대농구: 169만1천원, 부록의 시설딸기농가-1의 대차대조표 참조), 수도작의 상당부분을 위탁작업에 의존했다(=위탁작업비: 72만원, 부록의 시설딸기농가-1의 손익계산서 참조). 반면 농가-2는 1,100평의 비닐하우스와 1,750평 논농사를 하면서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을 확보하고 있음으로서(=대농구: 867만5천백원, 부록의 시설딸기농가-2의 대차대조표 참조) 물론 이앙기와 콤바인에 의한 수탁작업을 통해서 201만원에 이르는 수탁작업 수입을 얻기는 했지만 그의 감가상각비가 530만7천3백원(비닐하우스 및 창고(5평)에 대한 감가상각비 포함, 부록의 시설딸기농가-2의 손익계산서 참조)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농기계 보유수준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3.5. 딸기의 생산원가

딸기의 kg당 생산원가는 농가간에 큰 차이가 있는 바, 농가-1은 1,983원인데 반해서 농가-2는 그보다 44.4%가 더 많은 2,864원에 이른다. 그러나 그중 추산을 통해서 생산비로 간주되었고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출되더라도 농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자가노동과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를 除한 '지출 생산비'는 농가-1이 1,419원인데 비해서 농가-2는 그보다 12.3%가 더 많은 1,593원으로 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나 딸기 생산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있어서는 딸기 kg당 농가

표 4-52 농가별 딸기 kg당 생산원가 및 순수익

단위: 원/kg

구 분	농가-1	농가-2	1993 표준
생산원가	1,983.0	2,863.7	
지출생산비;	1,419.4	1,592.7	832.3
○ 직접지출	1,090.2	865.8	
그중 : -물재비	883.4	759.3	
-노력비	206.8	73.8	158.4
-기타	-	32.7	
○ 관리/유지비	329.2	726.9	
자가노력비평가액	290.8	483.1	596.8
※인건비(노무원가)	497.6	556.9	755.2
자기자본이자상당액	272.8	787.9	
kg당 평균 판매가격	2,613.6	1,992.4	2,221.0
kg당 평균소득	1,194.2	399.7	1,388.7
kg당 평균순수익	630.6	-871.3	

주: 1993 표준이란 농진청(1994년 발간)의 1993 농축산물표준소득의 딸기(촉성)의 전국 평균을 환산한 수치임.

-1이 1,090원인데 비해 농가-2는 866원으로 농가-1의 79.4%에 불과하다. 그중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등의 물재비는 딸기 kg당 농가-2가 759원으로 농가-1의 883원의 86%, 고용노력비는 74원으로 농가-1의 207원의 35.7%에 그쳤으나 농가-1에는 없는 임차료 등의 기타 직접지출이 농가-2는 33원이 있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관리/유지비는 딸기 kg당 농가-2가 727원으로 농가-1의 329원의 2.2배나 된다.

이러한 두 농가의 딸기 생산을 위해서 지출된 생산비 1,500원 내외의 수준은 농축산물 표준소득의 전국평균(촉성)의 경영비 832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이다. 이는 조사방식과 일부 비목의 산출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는 농가 스스로가 매일매일 기장한 일계부를 근거로 한 개별 농가의 집계결과이고, 농축산물 표준소득은 농촌지도소의 전문가들에

의한 청취조사 결과를 작목별·작형별로 집계, 평균한 결과다. 또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의 경영비 안에는 대농구와 영농시설에 대한 상각비와 修理費, 임차료, 기타요금 등이 포함된 중간재비와 고용노력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출생산비'와 그의 내용은 같지만 일부는 산출방법이 다르다. 즉, 딸기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물재비, 노임, 위탁작업비, 임차료 등) 이외의 비용(감가상각비, 전화/통신료, 유류/윤활류, 소모성부품(소모품)/수선비 등)에 있어서, 여기서는 당해 농가의 농업조수입에서 해당작목의 조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 '관리/유지비'로 분리했으나 농축산물표준소득에서는 작목별 이용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그의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딸기 kg당 인건비, 즉 추정된 생산원가인 자가노력비 평가액과 실제로 지출이 행해진 고용노력비를 합한 인건비는 498원(농가-1) 對 557원(농가-2)으로 재배면적 평당 투입노동시간이 오히려 많은 농가-2(158.3분, 농가-1 : 164.1분, 표 4-51 참조)가 더 많은 바, 이는 시간당 평균 고용노력비의 차이(1,796원, 농가-1 : 1,695원, 표 4-47 참조)에서 기인하다고 하겠다.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농가-2가 788원으로 농가-1의 273원의 2.9배에 이른 바, 이는 농가-2의 자기자본 비율(74.6%, 농가-1 : 57.9%, 표 4-44 참조)과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8.3%, 농가-1 : 5.2%, <표 4-41> 참조)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기 때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차이로부터 농가-2는 가능한 한 시간당 노임이 저렴한 노동력으로의 대체(예: 남자 → 여자, 고용 → 품앗이 등)와 이자율이 낮은 부채로의 전환 혹은 이자율이 높은 부채의 최우선적인 상환 등과 같은 경영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kg당 평균 판매가격에서 지출 생산비를 除한 kg당 평균소득은 농가-1이 1,194원인데 비해 농가-2는 그의 1/3 정도인 400원에 불과하며, 그의 차액이 kg당 794원에 이른다. 이는 두 농가간의 지출생산비 차이가 1,419원 對 1,593원으로 kg당 173원에 불과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같은 차이는 kg당 평균판매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가-1은 kg당 평균 2,614원씩을, 농가-2는 1,992원씩을 각각 실현했다. 이러한 차이는 판매방식

이나 판매시장 등의 판매전략의 차이와 생산된 딸기의 上級品 比率의 차이 등에서 그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段收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품질의 차이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농가-1은 유기자연농법을 택하고 있고, 퇴비작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유기자연농법에 의한 産物이라는 商品 差別化와 품질 향상을 통해서 그만큼 높은 판매가격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농가-2의 경영개선 방안에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6. 한우비육 농가

6.1. 농가의 개요

한우비육 농가중 2개 농가만이 6개월 이상 기장을 계속했고, 그것도 한 농가(농가-1)는 1992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장한 후 중단했고, 다른 한 농가(농가-2)는 199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기장했다. 그러나 이들 두 농가는 모두 그때그때 소를 샀다가 그때그때 소를 파는 형태의 한우비육 농가들로 6개월간의 기장내용만을 집계, 분석하더라도 그의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성과의 평가와 취약점 도출, 그의 경영개선방안 마련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농가-1은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3,400평의 논을 가지고 일부는 수도작, 일부는 생강 → 건고추의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평균 23두의 한우를 비육하고 있다. 반면 농가-2는 중부 산간의 오지 마을에서 논 1,600평과 밭 1,000평을 가지고 자기식량과 마늘 → 콩의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평균 60.7두의 한우를 비육하고 있다(표 4-53). 여기서 말한 농가-1의 23.4 두/반년(농가-2: 60.7두/반년)이란 소를 사고 판 날짜와 두수를 기준으로 날짜별 사육두수를 구하고, 이를 合算한 延 飼育頭數 4,302 두/일(농가-2: 10,979 두/일)를 181일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서 지난 반년간 농가-1은 매일 23.4

두를, 농가-2는 60.7두를 각각 비육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두 농가간의 한우비육의 형태는 부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농가-1은 그때 그때 소를 사고 팔지만 그중 일부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초임을 시킨 다음에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농가-2도 농가-1과 같이 그때그때 소를 사고 팔지만 20여두의 번식우를 통해서 송아지를 생산, 비육하기도 한다는 차이가 있다. 즉, 농가-1의 경우는 그의 한우를 파악함에 있어서 판매를 기다리는 商品, 즉 재고농산물로 파악되고(부록의 한우비육농가-1의 대차대조표 참조), 농가-2는 번식우의 경우 고정자산의 대동물로, 비육중인 송아지 및 중소는 재고농산물로 각각 파악된다는 것이다(부록의 한우비육농가-2의 대차대조표 참조).

한편 농업경영에 투입된 노동시간은 한우 사육규모가 농가-2의 38.6%에 불과한 농가-1의 경우 2,154시간으로 농가-2의 1,067시간의 2배 가량이 되는 바, 이는 농가-1의 밭작물인 고추가 농가-2의 마늘에 비해 훨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농가의 반년간의 농업조수입은 모두 1억원을 상회하는 바, 농가-1은 1억 2천 3백만원, 농가-2는 1억 2백만원에 이른다.

표 4-53 한우 비육농가의 경영개요(6개월 기준)

경우별	경 작 면 적		노동 시간		영농 자산액	농업 수입액	유 형
	(평)	두/반년	(h)	고용	(원)	(원)	
농가-1	3,400	23.4	2,154	503	228,164,000	123,251,000	한우+벼+전작
농가-2	2,600	60.7	1,067	27	150,560,000	101,946,700	한우+벼+전작

주: 농가-1은 1992. 5. 1~10. 31까지의 기장자료를 근거로 했고, 농가-2는 1994. 1. 1~6. 30까지의 기장자료를 근거로 했음.

6.2. 농업경영 전체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6.2.1. 수익성

그러나 그의 상당부분이 소 구입비(종축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출 생산비를 뺀 농업소득은 <표 4-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1은 1천 8백여만원, 농가-2는 911만여원으로 그의 수익성이 특별히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지출생산비 뿐만이 아니라 자가노동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고 난 순수익이 농가-1의 경우 752만 6천원, 농가-2가 346만 천원으로 경영주의 경영보수를 상당수준에서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결과가 반년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의 각 농가가 영농에 투입한 총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 즉 순수익률은 농가-1의 경우 5.4%로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 6.3% 보다 낮고, 농가-2의 3.9%도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 4.5% 보다 낮다는 것이다.

표 4-54 한우 비육농가의 수익성 지표(6개월 기준)

농가별	농 업 소득(원)	자기자본 수 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 률(%)	부 채 이 자율(%)
농가-1	18,342,625 (16,506,875)	16,248,513 (14,412,763)	7,525,889 (5,690,139)	14.9 (13.6)	11.7 (10.4)	5.4 (4.1)	6.3
농가-2	9,115,500 (7,385,500)	7,489,980 (5,759,980)	3,461,195 (1,731,195)	8.9 (7.4)	8.4 (6.4)	3.9 (1.9)	4.5

주: 1)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2) 농업소득: 당년산 재고(차기이월), 재산적 수입(영농자산매각, 영농차입금, 영농보조금에 의한 수입), 재산적 지출(영농자산 투자지출, 부채의 원금 상환지출)이 제외됨.

6.2.2. 생산성

경작면적 평당 소득은 농가-1이 5,395원으로 농가-2의 3,506원의 1.5배 정도에 이르지만 한우비육 농가에 있어서의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 생산성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표 4-55). 특히, 두 농가가 모두 볏짚을 조사료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사료를 전량 구입사료에 의존하고 있고, 飼料圃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간당 소득은 8천 5백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두 농가가 거의 같다. 이같은 수준은 가장 기계화가 앞선 수도작 전문농가의 3만원/h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사과농가의 7~8천원보다는 약간 높고, 양파농가의 6천원이나 시설딸기 농가의 4천원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표 4-55 한우 비육농가의 생산성 지표(6개월 기준)

농가별	경작면적당 소득(원/평)	노동시간당 소득(원/h)	영농자산액 1원당 소득	자기자본액 1원당 소득
농가-1	5,395 (4,855)	8,516 (7,663)	0.08 (0.07)	0.08 (0.08)
농가-2	3,506 (2,841)	8,543 (6,922)	0.06 (0.05)	0.07 (0.06)

주: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 수입 및 자가생산 농업지출)만을 기준한 것임.

6.2.3. 활동성

그때그때 소를 사고 파는 형태의 한우비육 농가의 6개월간의 경영 및 운전자금 규모는 1억원 안밖으로 농가-1의 6개월간의 재산적 지출을 제외한 모든 농업 지출액(경영자본)은 1억 490만원 그중 실제로 지출이 행해지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1억 375만원에 이르며, 농가-2의 그것은 각각 9,283만원과 8,864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경영 및 운전자금의 6개월간의 회전율은 1.1~1.2로 연간 2.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도작 전문농가의 5.5(경영자본) 및 7.5(운전자금), 사과농가의 4.5(경영자본)

표 4-56 한우 비육농가의 활동성 지표(6개월 기준)

농가별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 전 율	경영자본 회 전 율	운전자금 회 전 율	경영자본 (운전자금)	자가생산 농업수입
농가-1	0.54 (0.53)	0.56 (0.55)	1.17 (1.15)	1.19 (1.17)	104,908,375 (103,757,540)	121,149,000
농가-2	0.68 (0.66)	0.79 (0.77)	1.10 (1.07)	1.15 (1.12)	92,831,200 (88,646,200)	99,726,700

주: ( )안은 농가 자신의 농산물 생산활동에 의한 것(자가생산 농업수입)만을 기준한 것임.

및 5.5(운전자금)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총자본에 대한 농업조수입의 비율은 0.54(농가-1)와 0.68(농가-2)로 수도작 전문농가와 양파농가의 0.2, 사과 농가의 0.15, 시설딸기 농가의 0.36보다 월등히 높다.

이처럼 총 자본의 회전이 빠르다는 것은 자본 회수기간이 그만큼 빠르다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 한차례의 실수 만으로도 그의 피해가 엄청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합한 것인가?가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농가들로부터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동일한 유형의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본회전율을 그 시대 혹은 그 사회의 여건이 허용하고 있는(혹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적절한 수준의 그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6.2.4. 유동성 및 안전성

이들 농가의 자기자본 비율은 <표 4-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96.3%(농가-1)와 85.6%(농가-2)로 비교적 높은 편이고, 특히 부채 총액의 유동+유통자산에 대한 비율이 각각 26.8%(농가-1)와 36.5%(농가-2)로 모든 부채를 당장에 해결해야 할 처지가 되더라도 경영규모를 좌우하는 고정자산의 감축 위험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57 한우 비육농가의 유동성/안전성 지표

농가별	자기자본 비율(%)	고정비율 (%)	토지자산 비율(%)	부채의 유동+ 유통자산 비율	단기성 부채의 유통자산 비율
농가-1	96.3	86.1	81.1	26.8	23.1
농가-2	85.6	60.6	19.9	36.5	614.7

한편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고정자산의 비율은 농가-1이 86.1%로 수도작 전문농가를 비롯한 여타의 농가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농가-2의 그것은 60.6%로 다소 낮은 편이다. 또한 농가-2의 토지자산의 비율은 19.9%로 농가-1의 81.1%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낮다.

특히, 농가-2의 자산구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9,121만원의 고정자산 중 토지자산은 3천만원, 축사 및 창고 1,800만원, 23두의 번식우 4,14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의 45% 정도에 해당되는 번식우 23두는 사실상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의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부록의 한우비육농가-2의 대차대조표 참조). 이는 곧 번식우가 그의 특성상 농가의 고정자산(대동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한우비육농가에 있어서는 고정자산 비율(고정비율)보다는 토지자산 비율이 그의 유동성을 잘 대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반면 농가-2의 상환기간 1년 이하의 단기성 부채는 그의 유통자산 총액의 6.1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축협으로부터의 양축자금 5백만원과 영농자금 84만원으로 이자율이 낮은 정책지원자금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유통자산이 비록 현금 및 예저금 95만원이 전부라고는 하지만 33마리의 중소와 송아지를 재고농산물로 하고 있는 유동자산이 5,84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부록의 한우비육농가-2의 대차대조표 참조).

6.2.5. 성장성

6개월간의 기장자료만으로 이들 두 농가의 성장여부를 판별할 수는 없다.

표 4-58 한우 비육농가의 성장성 지표(6개월 기준)

단위: %

농가별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 가 율	매출액 증가율	감 가 상각률	상각적 립금률	투자 대 매 출 액	투 자 대 감가상각비	기말 여유 자금(만원)
농가-1	-	-	-	20.0	34.6	5.2	555.3	9990
농가-2	-	-	-	13.7	27.5	3.2	78.4	586

주: 1) 감가상각률=감가상각비/감가상각자산액×100(1년간을 기준함)
2) 감가상각적립금률(상각적립금률)=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적립금+감가상각자산액)×100(1년간을 기준함).
3) 투자대 매출액(%)=투자지출액/농업조수입×100
4) 투자대 감가상각비(%)=투자지출액/감가상각비×100
5) 기말여유자금=농업소득+감가상각비

다만 이들 농가가 확보하고 있는 축사, 창고, 농기계, 영농시설 등이 얼마나 낡았는지? 그의 투자활동은 얼마나 활발한지? 차기 투자여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즉, <표 4-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1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구년수(=1÷감가상각율)는 5년, 농가-2는 7.3년으로 대체를 위한 투자수요는 농가-1이 그만큼 빠르다고 하겠다. 또한 감가상각 적립금비율도 농가-1이 34.6%로 농가-2의 27.5%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농가-1의 경영기반이 농가-2보다 그만큼 더 오래된 것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그의 투자활동은 농가-1이 농가-2 보다는 앞서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농가-1의 투자지출액은 매출액(농업조수입)의 5.2%,. 당해년도 감가상각비의 5.6배로 농가-2의 3.2%와 0.8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비록 6개월간의 결산이지만 기말여유자금은 농가-1이 990만원(년 1,980만원), 농가-2가 586만원(년 1,172만원)으로 거기서 가계비를 除하면 차기의 투자여력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이들 두농가가 次期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의 재원은 차입자금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6.2.6. 집약도

한우비육 농가들에 있어서는 그의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이나

물재비 지출액 등이 갖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하겠다. 물론 이들 두 농가가 3,400평(농가-1)과 2,600평(농가-2)의 경작지를 함께 경영하고 있으나 한우 비육에 투입된 노동력과 물재비까지를 포함시킨 소위 농가의 농업경영 전체에 대한 집약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우비육 부문에 있어서의 집약도(표 4-62 참조)가 그의 경영성과의 파악과 경영개선 방안의 마련에 더 큰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6.2.7. 영농자원 이용률

농가-1은 경지와 자가 및 고용노동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 <표 4-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지이용률은 50%로 농가-2의 47.4%와 큰 차이가 없지만 자가노동력 이용율은 76.4%로 농가-2의 32.1%의 2배,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도에 있어서도 농가-1은 23.4%로 농가-2의 2.5%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차이는 두 농가간의 작부체계의 차이에서도 비롯되었지만 결산기간의 차이에 기인한 바가 그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가-1은 노동집약적 작목중 하나인 고추를 생강의 뒷그루로 재배했을 뿐 아니라 그의 결산(기장)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었던데 비해 농가-2는 전년도 가을에 심었던 마늘을 수확하고 그의 후작으로 콩을 파종하기 위한 준비 작업 정도만 행해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가노동력 이용율을 가능한 한 높이고 고용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극히 일반적인 지적만이 가능할 뿐이다.

표 4-59 한우 비육농가의 주요 영농자원 이용률

농 가 별	경 지 이용률(%)	자가노동 이용률(%)	고용노동 의존도(%)	시간당 평균 고용노력비(원/h)
농 가-1	50.0	76.4	23.4	1,268
농 가-2	47.4	32.1	2.5	1,563

6.3. 한우비육의 경영성과 분석결과

6.3.1. 한우비육의 경영개요

이들 두 농가의 한우비육 부문만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6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농가-1은 6개월의 결산기간중 期初의 한우(중소) 4두(재고농산물, 부록의 한우비육 농가-1의 대차대조표 참조)를 시작으로 총 42두를 매입, 39두를 매각했으며, 이는 각각의 사육일자를 합산할 경우 4,302두를 하룻동안 사육한 셈이고, 이를 182일로 나누면 23.4두를 지난 6개월간 사육한 셈이이다. 또한 농가-1은 이를 위해서 744시간의 노동력과 8,114만원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매출액은 8,970만원이었고, 이는 이 농가의 총 농업조수입의 69.7%에 해당된다.

농가-2는 결산기간중의 매입두수가 40두로 농가-1의 42두에 비해서 2두가 작을 뿐 그외의 모든 부문에서는 농가-1보다 더 크고 많다. 사육규모는 60.7 두/반년으로 농가-1의 2.6배에 이르나 투입노동시간은 904시간으로 농가-1의 1.2배에 그치며 한우비육을 위한 지출생산비도 8,311만원으로 농가-1에 비해서 2.4%가 많을 뿐이다. 또한 한우비육 조수입이 농가의 총 농업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4%로 한우비육만을 전문화한 농가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4-60 농가별 한우 비육 경영개요(6개월 기준)

농가별	기간중 사육두수		변동 두수		노동 시간		한우비육 조수입		한우비육 지출	
	(두·일)	두/반년	매입	매각	(h)	고용	원	(%)	원	(%)
농가-1	4,302	23.4	42	39	744	16	89,700,000	69.7	81,135,617	77.3
농가-2	10,979	60.7	40	47	904	-	101,302,700	99.4	83,114,947	89.5

주: 1) 한우비육조수입 % = 당년산 조수입÷(자가생산 농업수입-전년산 재고+재산적 수입 이외의 비생산 농업수입)×100

2) 한우비육 지출 % = 한우비육 지출÷(자가생산 농업지출-감가상각비+재산적 지출이외의 비생산 농업지출)×100

다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알아 볼수 없지만 한우비육을 주력작목으로 한 이들 두 농가간에는 그의 유형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농가-1은 매입한 암소중 일부를 초임 상태까지 비육시킨 후 매각하는 방법을 부분적으로 택하고 있는 반면 농가-2는 20두 내외의 번식우를 항상 사육하면서 그로부터 분만된 송아지를 비육하면서 일부는 송아지 뿐만이 아니라 큰 소까지도 그때그때의 시세에 따라 사고 파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시도되는 두 농가간의 비교는 이같은 유형간의 비교 일수도 있겠지만 단 두개의 사례농가만으로는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농가의 경영성과 분석결과를 놓고 두 농가가 상호 마주앉아 서로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면 서로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3.2. 한우비육의 수익성

한우비육만을 살펴보면 전체 농업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한 경우(표 4-54 참조)와는 반대로 농가-2의 수익성이 농가-1의 그것보다 높다. 즉, 전체 농업경영성과를 기초로 할 경우 소득률은 14.9%(농가-1) 對 8.9%(농가-2), 순수익율은 5.5%(농가-1) 對 3.9%(농가-2)로 농가-1이 앞섰으나 한우비육부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표 4-61>에서와 같이 소득률은 9.5%(농가-1) 對 18.0%(농가-2), 순수익률은 -0.3%(농가-1) 對 15.8%(농가-2)로 농가-2가 훨씬 앞섰다.

표 4-61 농가별 한우 비육의 수익성 지표(6개월 기준)

농가별	한우소득 (원)	자기자본 수익(원)	순 수 익 (원)	소득률 (%)	자기자본 수익률(%)	순수익 률(%)
농가-1	8,564,383	5,834,384	-266,336	9.5	6.0	-0.3
농가-2	18,187,753	16,774,801	13,052,185	18.0	20.3	15.7

특히, 농가-1의 한우비육 순수익률 -0.3%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스스로 지불하고 있는 이자의 연평균 이자율이 6.3%라는 점(표 4-54)에 비추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수익성은 설령 자가노동에 대한 대가만 보상받고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는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율 0%) 그의 자기자본 수익률 6%는 자신의 부채의 연평균 이자율 6.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반면 농가-2는 6개월간의 결산기간만으로도 자가노동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를 除하고도 1,305만원이라는 자신의 경영능력에 대한 보수를 실현했고, 그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 즉 순수익률은 15.8%로 자신의 부채의 연평균 이자율 4.5%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6.3.3. 한우비육의 생산성과 집약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두당 평균 소득, 즉 한우비육 소득(표 4-61)을 사육두수(두/반년, 표 4-60)로 나눈 사육두수당 소득은 농가-1이 36만6천원, 농가-2가 30만원으로 농가-1의 소득이 사육규모에 비해서 오히려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노동시간당 소득은 농가-2가 2만여원으로 농가-1의 11,500원의 1.7배 수준이고, 두당(두/반년) 평균 노동투입시간은 결산기간 6개월간에 농가-1이 31.8시간으로 농가-2의 14.9시간의 2배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62 농가별 한우 비육의 생산성 및 집약도 지표(6개월 기준)

구 분	두당평균 소득 (원/두)	노동시간당 소득 (원/시간)	두당평균 노동시간 (시간/두)
농 가 - 1	365,999	11,511	31.8
농 가 - 2	299,633	20,119	14.9

6.3.4. 한우비육의 두당 평균 생산비와 순수익

그때그때 한우를 사고 파는 형태의 한우비육 농가에 있어서는 여타의 농산물들에서와 같은 '생산원가', 즉 그의 두당 평균 생산원가를 산출하기 어렵다. 물론 1두 1두를 개체별로 구입, 비육, 판매하고 그의 내용을 일일히 개체별로 기록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의 계산이 다소 복잡할 뿐 비육단계별(일령별, 월령별 등) 생산(혹은 제품)원가 계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6개월의 짧은 기간중에 30~40 두의 소를 사고 팔고, 여기에 수태를 시키거나 혹은 자가에서 분만한 송아지를 비육하여 파는 농가들로부터 개체별 관리와 기록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산원가'를 밝히는 것보다는 6개월간의 결산기간중에 있었던 한우비육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일부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생산비' 측면에서, 일부는 '원가' 측면에서 산출한 것을 종합함으로서 두당 평균 생산비와 두당 평균 순수익의 대강을 밝혀보고자 했다. 다만 여기서는 두 사례농가에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상호간의 차이점으로부터 각각의 취약점과 개선을 필요로하는 부분을 찾아내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만족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보다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표 4-63>의 생산비 비목중 종축비는 기간중에 구입한 한우에 대한 '두당 평균 한우구입비'를 말하기 때문에 '원가(혹은 구입원가)'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두당 평균 판매단가'도 기간중에 판매한 한우에 대한 '두당 평균 한우 판매가격'이라는 점에서 이와 성격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외의 모든 비목들은 기간중의 지출을 기간중의 사육두수(두/반년)로 나누어 두당 평균으로 배분되었다. 이는 실제로 지출이 행해지지 않은 자가노력비 평가액과 자기자본 이자상당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택했다.

먼저 한우의 구입과 판매단가를 살펴보면, 농가-1은 두당 평균 179만원에 사서 216만원에 팔았고 이를 기준한 두당 평균 매매차액은 36만여원, 농가-2는 두당 평균 168만원에 사서 208만여원에 팔았고 그의 매매차액은 두

표 4-63 농가별 한우비육 두당 생산비 및 순수익

단위: 원/두

구 분	농 가 - 1	농 가 - 2
생 산 비	2,422,285	2,033,568
○ 종 축 비	1,794,881	1,680,000
○ 물 재 비	184,407	180,333
(사 료 비)	(171,083)	(173,562)
○ 고 용 노 력 비	2,564	-
○ 기타 지출생산비	14,103	12,208
○ 관리/유지비	48,949	76,421
지출생산비 합계	2,044,904	1,948,962
자가노력비평가액	116,667	23,278
(인 건 비)	(119,231)	(23,278)
자기자본 이자상당액	260,714	61,328
두당 평균 판매단가	2,161,538	2,083,887
두당 평균 매매차액	366,657	403,887
두당 평균 순수익	-260,747	50,319

주: 인건비 = 고용노력비+자가노력비 평가액

당 평균 40여 만원으로 농가-1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으나 매매차액은 오히려 적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농가-1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첫 수태를 시킨 후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다 튼튼한 암소를 구입했고, 초임의 암소는 그만큼 비싼 가격을 실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실제로 지출이 행해진 지출생산비는 농가-1이 두당 평균 204만여원으로 농가-2의 195만원에 비해서 9만 6천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 사료비는 농가-2가 2천 5백원 정도 사료비를 포함한 물재비 총액은 농가-1이 4천 1백원 정도가 각각 더 들었을 뿐이며, 그것도 6개월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가노력비 평가액은 11만 7천원(농가-1) 對 2만 3천원, 자기자본 이자상당액은 26만원(농가-1) 對 6만 1천원(농가-2),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11만 9천원(농가-1) 對 2만 3천원(농가-2)으로 농가-1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당 평균 노동시간의 차이 31.8시간(농가-1) 對 14.9시간(농가-2)에서 기인한 바가 크며,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가-1의 상대적으로 높은 地價 등으로 인한 영농자산액의 차이(1억 5천 56만원(농가-2) 對 2억 2천 820만원(농가-1))와 사육규모의 차이(23.4두/반년(농가-1) 對 60.7두/반년(농가-2))에서도 기인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영농자산액이나 사육규모의 변경보다는 투입노동시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두 농가간의 축사구조의 차이는 소요 노동시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농가-2는 자신의 100평짜리 축사를 1천 7백만원으로(평당 17만원), 농가-1는 자신의 50평짜리 축사를 2백만원으로(평당 4만원) 각각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부록의 한우비육 농가-1 및 -2의 대차대조표 참조).

제 5 장

요약 및 향후과제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농가는 자신의 농업경영활동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집계/결산하여 분석함으로서 스스로의 취약점과 개선을 필요로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일련의 작업을 반복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농업경영의 분석기법과 경영진단 체계의 확립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합의된 분석방법이나 기준이 아직은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충분한 편이 못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일부 농가들로하여금 장부를 기장토록하는 일로부터 그의 결과를 집계/결산/분석/진단하는 일까지를 실제로 실행해오면서 얻은 경험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제시한 사례연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영농후계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기장의사를 밝힌 농가들을 기장농가로 선정했고, 지난 32개월간(1992. 5~1994. 12) 3차례의 기장교육과 년 1회 이상의 농가방문을 통한 기장지도 및 기장독려에도 불구하고 장부의 기장을 농업경영 일과의 하나로 정착시킨 농가는 5개 농가에 불과할만큼 부진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농가들의 기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상당한 인내와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례농가들로 하여금 기장토록했던 양식이 단식부기였다는 점에서 농가의 기장양식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단식부기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기장양식을 농가에 보내주고 기장된 장부를 농가로부터 되돌려받는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장중단'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기장과 경영개선에 관한 교육은 물론 기장 현장인 농가를 방문하여 올바른 기장기준 및 방법의 채택여부, 기장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농가를 알면 알수록 그의 취약점 도출과 경영개선 방안이 정확하고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가가 모든 경영활동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장부의 기장이 '기장'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각각의 농가별로 집계/결산되고 분석/평가되어 그 결과를 각각의 농가들에게 되돌려주고 설명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농업경영)란 거의 모든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기장' 그 자체에 만족한다면 언젠가 한번만 기록해두면 충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왕에 기장된 것이라면 그의 성과를 평가, 분석함으로서 그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농가의 농업경영성과에 대한 집계/결산과 분석/진단은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가의 계속 경영체로서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농업경영개선'에 있다. 따라서 그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들은 경영주 당사자의 입장(사경제적 관점)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된 기준과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 물론 농림수산부의 농가경제 조사사업이나 생산비 조사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표준소득 조사사업에서는 일종의 합의된 방법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정책자료나 세무자료 또는 신용(혹은 담보력)자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경영주 이외의 입장(국민경제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그의 확대적용 여부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례농가들에게 적용한 농업경영분석의 방법과 기준, 그리고 계정의 구성과 계정과목의 분류 등은 이러한 논의와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기 보다는 이를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

겠다. 다만 집계와 결산이 가능하고 그의 성과를 분석, 진단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18개 경우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의 실용성에 대한 점검이 충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유형을 같이하는 농가들간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이를 또 다시 5가지의 유형, 즉 수도작, 사과, 양파, 시설딸기, 한우비육을 각각 주력작목으로 한 농가로 나누면 동일한 유형의 농가군(群)에는 2~4개 농가가 속하게 되고 이들 농가에 적용한 농업경영 분석의 방법과 기준, 계정의 구성과 계정과목의 분류 등이 그들의 실제의 경영성과와 실태를 정확히 표현하고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를 단순한 '가계'나 '가정'이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商品 供給者인 하나의 '경영체'로 간주한다면 그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분석, 진단하는 방법과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영분석의 방법이나 기준, 기법 등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全無한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시험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그의 실용성에 대한 점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영분석의 방법과 기준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2개월간의 농가들의 기장내용을 집계/결산하고 분석/진단한 결과는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농가의 농업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경영성과의 집계/결산과 분석은 '농가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도 '농가별'로 요약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별'이 모두 5개 유형에 15개 농가의 18개 결산기간에 이르고 이들은 또 다시 농가의 '농업경영 전체'와 '특정 부문(수도작, 사과, 양파, 시설딸기, 한우비육)'으로 나누었고 농가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은 물론 '농업경영 전체'의 수익성, 생산성, 활동성, 유동성/안전성, 성장성, 집약도, 영농자원 이용률의 7개 부분과 '부문별'의 수익성, 생산성, 집약도, 생산원가의 4개 부분에 이르기 때문에 그의 결과를 여기에 모두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농가의 계속경영체로서의 존립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농가의 농업경영의 수익성과 농가의 재정적 안전성에 관한 분석결과만을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한 농가의 수익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순수익률과 그 농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지불하고 있는 연평균 이자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비관적이다. 즉, 총 18개 결산 가능한 경우중 5개 경우만이 그의 순수익률이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과 같거나 높을 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수익률이 농업소득에서 자가노동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를 모두 除하고 남은 순수익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0"으로 간주한다면 적자경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의 가계비가 자가노동과 자기자본에 대한 대가 만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농가들은 자신의 부채에 대한 연평균 이자율 이상을 "목표 순수익률"로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농가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부채의 유동+유통자산에 대한 비율은 7개 경우가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농가는 부채의 대부분이 금리가 낮은 정책지원자금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모든 부채를 당장에 해결해야 할 경우 경영규모의 감축을 야기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매각을 각오해야 하고 경영규모의 감축이 수지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부채규모가 클수록 지출되어야 할 이자액이 많아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들 농가는 자신들의 부채규모를 항상 일정 수준 이하(유동+유통자산 이하의 수준)에 머물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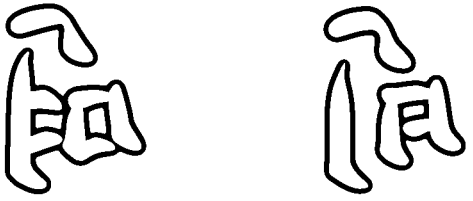
그러나 이상의 결과들은 우선 사례농가의 숫자가 크게 부족하고 이에 적용한 기장방식과 농업경영성과의 집계/결산 및 분석 방법과 기준과 절차 등이 검증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위한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의 현실은 농가호수, 즉 농업경영단위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별 경영규모가 커

지고 있어서 그의 전문 정예화와 농업경영의 상업화 및 기업화는 갈수록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가의 전문 정예화는 정책당국이 상업적 및 기업적 경영은 농가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농가의 전문 정예화는 농가의 전문 경영인화, 즉 농가의 '농장 경영주화'를 말하며, '농장 경영주화'는 농가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농장 경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며, 장부의 기장은 그의 시초에 불과하다. 또한 농가의 성장, 발전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끊임없는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농가의 경영개선은 자신의 취약점과 그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기장된 내용들이 집계/결산되어 분석/진단/평가되는 일련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각의 농가들이 각각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과 기준과 절차를 택해서 각각 기장하고 집계/결산하여 분석/평가하고 그의 결과에 따라서 그의 경영개선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성장 혹은 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우수한 경영성과를 얻을 수는 없었는지? 그런 농가가 있다면 자신의 어느 부분이 그보다 부진했기 때문인지? 등을 알아내는 데는 다른 농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방법이 더 유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과 방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과 다양한 농가의 유형에 적합하고 이에 활용할 수 있는 합의된 기장양식과 기준, 기장요령 및 방법, 농업경영성과의 집계/결산과 분석/진단의 방법과 기준과 절차 등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의 개발과 농가보급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부 록

부록 1. 기장양식

부록 2. 농가별, 결산기간별 재무제표



빈 면

부록1. 기장양식

가. 재산대장 양식

199 년도

농 업 경 영 조 사

(재 산 대 장)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가족사항(19 년 월 일 현재)

경영주와의 관계	성 명	연 령	노 동 능 력	생 년 월 일	비 고

(동거 가족에 한함)

2.재산대장(19 년 월 일 현재)

(1) 토 지

종류	내용(지번 등)	면 적	평가액	통작거리	구입년도	특 기 사 항
		평	원	m		

(2) 건　　물

종류	내용(구조 등)	규　모	평가액	최초설치년도	향후사용가능년수(추정)	특　기　사　항
		평	원			

(3) 대식물

작물명	품종	주수	평수	식재년도	평가액	향후경제수령(추정)	특　기　사　항
			평		원		

(4) 대가축

종 류	품 종	자 웅	축 령	두 수	단가액	향후경제수령(추정)	특 기 사 항
					원		

(5) 대농기구

종류	내용(형식, 규격, 제조회사등)	대수	평가액	구입년도	향후사용가능연수(추정)	사용연료	특 기 사 항
		대	원		원		

(6) 재고 농산물(미판매분)

종 류	내용(품명, 품종 등)	생산년도	수 량	단 가	평가액	특 기 사 항
					원	

(7) 재고 생산자재(구입물품)

종류	내용(형식, 규격, 제조회사등)	구 입 년 도	수량	단가	평가액	종류	내용(형식, 규격, 제조회사등)	구 입 년 도	수량	단가	평가액

(8) 소가죽

종류	품종	자웅	축령	마릿수	단가	평가액
						원

(9) 소기구

종류	품종	자웅	축령	마릿수	단가	평가액
						원

(10) 현금/준현금

종류	내용(예금의 명칭 등)	평가액	특 기 사 항

(11) 부 채

종 류	내용(자금의 명칭)	차입년도	현잔액	상환조건	특 기 사 항

(12) 받을 외상

종류	내용	외상거래처	매출일자	금액	평가액

((13) 갚을 외상

종류	내용	외상거래처	매출일자	금액	평가액

199 년( )월

농 업 경 영 일 계 부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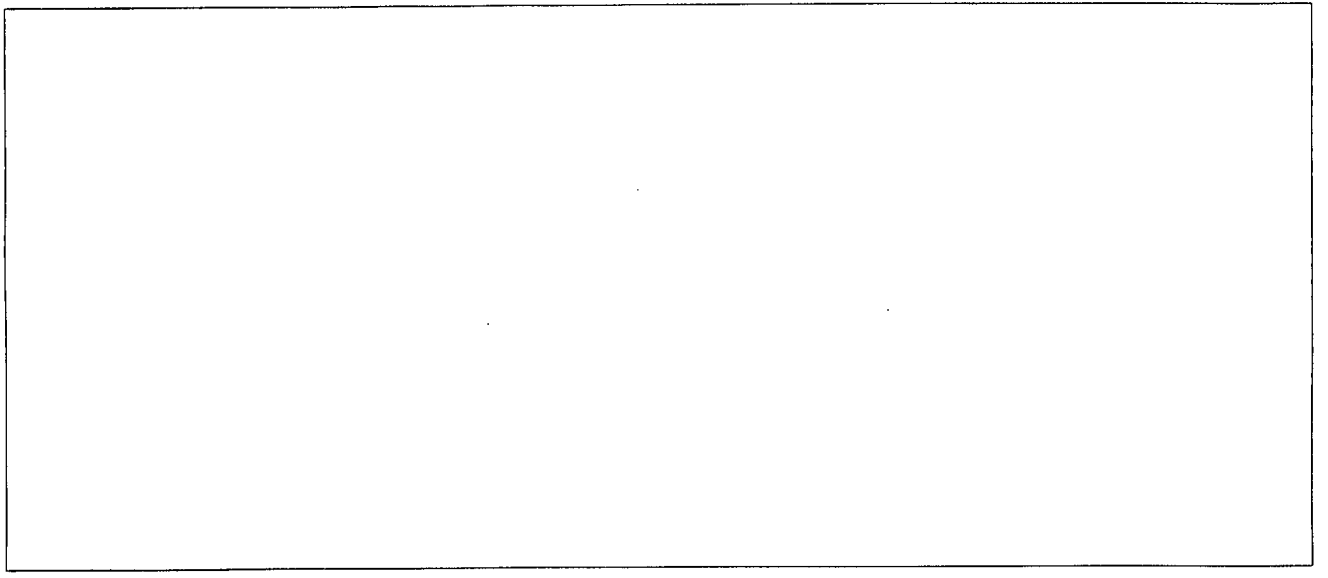
월 간 영 농 계 획

일 자	주 요 내 용	일 자	주 요 내 용
1일		16일	
2일		17일	
3일		18일	
4일		19일	
5일		20일	
6일		21일	
7일		22일	
8일		23일	
9일		24일	
10일		25일	
11일		26일	
12일		27일	
13일		28일	
14일		29일	
15일		30일	
		31일	

이 달의 영농 현황과 계획

1. 경영지 약도(월초의 현황)

직접경작하는 자가의 경영지(임차지를 포함)에 대하여 각각의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주택의 위치를 정하고 논, 밭, 과수원, 초지 등의 지번과 면적, 그리고 시설물 등을 나열하도록 합니다. 방위 표시와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도 표시합니다.



2. 경지 면적 및 재배작물의 현황(월초의 현황과 변동)

일련번호	지목	면적(평)	소유구분	작물명	변 동 상 황(일 자 및 내 용)

3. 가축 사양두수(월초의 현황과 변동)

일련번호	가 축 명	세부구분	마 릿 수	변 동 상 황(일 자 및 내 용)

농 업 경 영 일 계 부

(1) 영 농 일 기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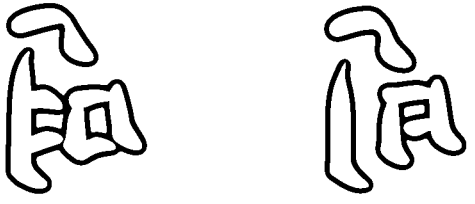
월 일 요일		날 씨	
오늘의 특기사항		내일의 계획	

(2) 현 금 · 현 물 거 래 장

내 용 (해당작목)	수 량	수 입	지 출	생산물가계소비액 (현물평가액)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3) 농 작 업 및 농 자 재 사 용 기 록 장

작목	작업내용	영농물재사용			노동력투입					농기구 사용			
		영농물재명(규격·단위)	사용량	사용액	가족노동		고용노동		노임지불액합계	농기계명(규격·성능)	농가농기계		타인농기계사용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시간	기름값	
				원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원		시간	원	원



빈 면

부록 2. 농가별, 결산기간별 재무제표

수도작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3. 1. 1)

《 대 차 대 조 표 》

수도작 농가-1 1993.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280,439,550	1.부 채	47,680,000
1.1.토지	264,214,550	1.1.중장기성 부채	47,680,000
1.1.1.논(18,450평)	264,214,550	1.1.1.농지구입자금	42,180,000
1.1.2.밭	-	1.1.2.농기계자금	5,500,000
1.2.농용건/축/시설물	3,840,000	1.2.단기성 부채	-
1.2.1.창고(15평)	3,840,000	1.2.1.영농자금	-
1.3.대동물	-	2.자기자본	268,912,710
1.4.대식물	-	2.1.자본금	255,177,710
		2.2.감가상각적립금	13,735,000
1.5.대농구	12,385,000		
1.5.1.콤바인('87)	3,500,000		
1.5.2.트랙터('88)	3,000,000		
1.5.3.경운기('80)	600,000		
1.5.4.이앙기('85)	504,000		
1.5.5.이앙기('92)	1,512,000		
1.5.6.원동기('85,2대)	375,000		
1.5.7.고압분무기('92)	225,000		
1.5.8.양수기모터('87)	125,000		
1.5.9.트레일러('87)	325,000		
1.5.10.트레일러('88)	390,000		
1.5.11.로터베이타('88)	480,000		
1.5.12.쟁기('92)	175,000		
1.5.13.철차류('88)	54,000		
1.5.14.육묘상자(2,240개)	1,120,000		
2.유동자산	12,263,160		
2.1.재고농산물(벼)	11,845,600		
2.2.재고생산자재	237,560		
2.3.소가축(개)	180,000		
3.유통자산	23,890,000		
3.1.현금및예저금	8,150,000		
3.2.적립금	14,000,000		
3.3.유가증권(국민주)	1,740,000		
영 농 자 산 합 계	316,592,710	영 농 자 본 합 계	316,592,71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2 회계년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3. 1.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1992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3.1.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수도작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3.1. 1~12. 31)

《 손 익 계 산 서 》

수도작 농가-1 1993. 1. 1~12.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9,144,318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65,881,976
1.1.수도작 지출	6,136,904	1.1.수도작(주작목) 수입	65,881,976
1.1.1.물재비	3,954,780	1.1.1.전년산	22,608,670
1.1.2.고용노력비	-	1.1.1.1.추곡수매	1,365,300
1.1.3.위탁작업비	2,182,124	1.1.1.2.시판	20,750,000
1.1.4.기타 지출생산비	-	1.1.1.3.자가소비	394,250
		1.1.1.4.부산물(짚, 쌀겨 등)	99,120
1.2.그외 농산물 지출	-		
		1.1.2.당년산(49,280kg)	43,273,306
1.3.관리/유지비	3,007,414	1.1.2.1.추곡수매	10,673,845
		1.1.2.2.시판	31,013,249
1.3.1.감가상각비	2,555,000	1.1.2.3.자가소비	851,662
1.3.2.유류/윤활유	344,414	1.1.2.4.부산물 판매	734,550
1.3.3.소모품/수선비	108,000	※ 벼 재고(차기이월)	(10,266,994)
1.3.4.농업용 전기료	-		
1.3.5.전화/통신비	-	1.2.그외 농산물 수입	-
1.3.6.조세/공과금	-		
1.3.7.농업관련 보험료	-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350,000
1.3.8.회비 등	-	2.1.수탁작업 수입	350,000
1.3.9.기타 관리/유지비	-	2.1.1.이앙작업	320,000
		2.1.2.방제/시비 작업	30,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1,904,900		
2.1.수탁작업 지출	5,640		
2.1.1.연료비	5,640		
2.2.영농차입금 이자	1,899,260		
2.2.1.농지구입자금	1,061,760		
2.2.2.농기계 자금	137,500		
2.2.3.일반대출	700,000		
농업지출 합계	11,049,218		
농업소득(경상이익)	55,182,758		
경 상 비 용 합 계	66,231,976	경 상 수 익 합 계	66,231,976
3.특별지출	2,740,000	3. 특별수익	2,000,000
3.1.영농투자지출	740,000	3.1.주택의 창고전용(가계부문에서 영농부문으로의 이전)	2,000,000
3.1.1.창고(주택의 전용)	2,000,000		
3.1.2.상토분쇄기	240,000		
3.1.3.농약/비료살포기	500,000		
지 출 합 계	13,788,218		
당 기 순 이 익	54,443,758		
합 계	68,231,976	합 계	68,231,976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원금(1993.1.1.-12.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12,220,000	1.영농자금 차입	10,000,000
1.1.농지구입자금	2,220,000	1.1.일반대출(농협)	10,000,000
1.2.일반대출(농협)	10,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12,220,000		
부 채 의 증 감	-2,222,758		
합 계	10,000,000	합 계	10,000,000

수도작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4. 1. 1)

《 대 차 대 조 표 》

수도작 농가-1 1994.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280,624,550	1.부채	45,460,000
1.1.토지	264,214,550	1.1.중장기성 부채	45,460,000
1.1.1.논(18,450평)	264,214,550	1.1.1.농지구입자금	39,960,000
1.1.2.밭	-	1.1.2.농기계자금	5,5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5,680,000	1.2.단기성 부채	-
1.2.1.창고(15평)	3,680,000	1.2.1.영농자금	-
1.2.2.간이창고(18평)	2,000,000	1.2.2.일반대출	-
1.3.대동물	-		
1.4.대식물	-	2.자기자본	351,871,820
		2.1.자본금	281,138,062
1.5.대농구	10,730,000	2.2.감가상각적립금	16,290,000
1.5.1.콤바인('87)	2,800,000	2.3당기순이익	54,443,758
1.5.2.트랙터('88)	2,500,000		
1.5.3.경운기('80)	400,000		
1.5.4.이앙기('85)	336,000		
1.5.5.이앙기('92)	1,344,000		
1.5.6.원동기('85,2대)	300,000		
1.5.7.고압분무기('92)	200,000		
1.5.8.양수기모터('87)	100,000		
1.5.9.트레일러('87)	260,000		
1.5.10.트레일러('88)	325,000		
1.5.11.로터베이타('88)	400,000		
1.5.12.쟁기('92)	140,000		
1.5.13.철차륜('88)	45,000		
1.5.14.육묘상자(2,240개)	840,000		
1.5.15.비료/농약 살포기	540,000		
1.5.16.상토분쇄기	200,000		
2.유동자산	80,657,270		
2.1.재고농산물(벼)	79,570,000		
2.2.재고생산자재	457,270		
2.3.소가축(개)	630,000		
3.유통자산	36,050,000		
3.1.현금 및 예저금	15,150,000		
3.2.적립금	19,000,000		
3.3.유가증권(국민주)	1,900,000		
영농자산합계	397,331,820	영농자본합계	397,331,820

수도작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4.1. 1~12. 31)

《 손 익 계 산 서 》

수도작 농가-1 1993. 1. 1~12.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9,851,92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59,643,450
1.1.수도작 지출	5,141,590	1.1.수도작(주작목) 수입	59,643,450
1.1.1.물재비	3,875,880	1.1.1.전년산	13,300,310
1.1.2.고용노력비	-	1.1.1.1.추곡수매	5,309,960
1.1.3.위탁작업비	1,265,710	1.1.1.2.시판	7,393,725
1.1.4.기타 지출생산비	-	1.1.1.3.자가소비	596,625
		1.1.1.4.부산물(짚, 쌀겨 등	-
1.2.그외 농산물 지출비	518,070		
1.2.1.보리 지출	518,070	1.1.2.당년산(50,465kg)	46,343,140
1.2.1.1.물재비	438,070	1.1.2.1.추곡수매	18,802,840
1.2.1.2.고용노력비	-	1.1.2.2.시판	27,046,000
1.2.1.3.위탁작업비	80,000	1.1.2.3.자가소비	418,000
1.2.1.4.기타 지출생산	-	1.1.2.4.부산물 판매	76,300
		※ 벼 재고(차기이월)	(5,840,000)
1.3.관리/유지비	4,192,260		
1.3.1.감가상각비	3,030,000	1.2.그외 농산물 수입	-
1.3.2.유류/윤활유	387,260		
1.3.3.소모품/수선비	775,0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
1.3.4.		2.1.수탁작업 수입	-
1.3.9.기타 관리/유지비	-	2.1.1.이앙작업	-
		2.1.2.방제/시비 작업	-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1,265,190		
2.1.수탁작업 지출	-		
2.2.영농차입금 이자	1,265,190		
2.2.1.농지구입자금	1,265,190		
농업지출 합계	11,117,110		
농업소득(경상이익)	48,526,340		
경 상 비 용 합 계	59,643,450	경 상 수 익 합 계	59,643,450
3.특별지출	21,055,500	3. 특별수익	1,000,000
3.1.영농투자지출	21,055,500	3.1.보조금(건조기 구입)	1,000,000
3.1.1.건조장 개축	1,502,500		
3.1.1.1.자재비	842,500		
3.1.1.2.인건비	360,000		
3.1.1.3.전기공사위탁비	300,000		
3.1.2.건조기 구입	3,113,000		
3.1.3.양수기 구입	180,000		
3.1.4.농지구입	16,260,000		
3.1.4.1.농지(1,200평)	16,000,000		
3.1.4.2.취득세 등	260,000		
지 출 합 계	32,172,610		
당 기 순 이 익	28,470,840		
합 계	60,643,450	합 계	60,643,45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원금(1993.1.1.-12.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2,220,000	1.영농자금 차입	3,500,000
1.1.농지구입자금	2,220,000	1.1.건조기 구입자금	2,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2,220,000	1.2.영농자금	1,500,000
부 채 의 증 감	+1,280,000		
합 계	3,500,000	합 계	3,500,000

수도작 농가-2의 대차대조표(1993. 1. 1)

《 대 차 대 조 표 》

수도작 농가-2 1994.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58,701,200	1.부채	24,175,000
1.1.토지	91,309,700	1.1.중장기성 부채	24,175,000
1.1.1.논(11,190평)	87,859,700	1.1.1.농지구입자금	10,000,000
1.1.2.밭(42평)	210,000	1.1.2.콤바인 구입자금	5,400,000
1.1.3.대지(창고/축사)	3,240,000	1.1.3.트랙터 구입자금	8,775,000
1.2.농업용 건/축/시설물	58,461,500	1.2.단기성 부채	-
1.2.1.정부양곡보관창고	58,461,500		
1.3.대동물	-	2.자기자본	168,189,420
	-		
1.4.대식물		2.1.자본금	137,277,420
		2.2.감가상각적립금	30,912,000
1.5.대농구	8,930,000		
1.5.1.콤바인('88)	1,400,000		
1.5.2.트랙터('90)	3,750,000		
1.5.3.경운기('85)	260,000		
1.5.4.이앙기('88)	300,000		
1.5.5.건조기('91)	1,720,000		
1.5.6.트럭('91)	1,500,000		
2.유동자산	14,583,220		
2.1.재고농산물(벼)	14,445,320		
2.2.재고생산자재	137,900		
3.유통자산	19,080,000		
3.1.현금 및 예저금	11,380,000		
3.2.적립금	7,700,000		
영농자산합계	192,364,420	영농자본합계	192,364,42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2 회계년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3. 1.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1992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3. 1.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수도작 농가-2의 손익계산서(1993.1. 1~12. 31)

《 손 익 계 산 서 》

수도작 농가-2 1993.1. 1~12.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14,511,599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30,267,960
1.1.수도작 지출	3,933,080	1.1.수도작(주작목) 수입	26,103,960
1.1.1.물재비	2,208,020	1.1.1.전년산	13,967,100
1.1.2.고용노력비	687,000	1.1.1.1.추곡수매	1,594,100
1.1.3.위탁작업비	858,060	1.1.1.2.시판	10,138,000
1.1.4.기타 지출생산비	180,000	1.1.1.3.자가소비	1,475,000
		1.1.1.4.부산물(짚, 쌀겨 등)	760,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2,486,670		
1.2.1.물재비	1,918,260	1.1.2.당년산(15,610kg)	12,136,860
1.2.2.고용노력비	182,000	1.1.2.1.추곡수매	7,457,000
1.2.3.위탁작업비	333,000	1.1.2.2.시판	3,248,860
1.2.4.기타 지출생산비	53,410	1.1.2.3.자가소비	1,410,000
		1.1.2.4.부산물 판매	21,000
1.3.관리/유지비	8,091,849	※ 벼 재고(차기이월)	(5,756,940)
1.3.1.감가상각비	5,298,500		
1.3.2.유류/윤활유	537,446	1.2.그외 농산물 수입	4,164,000
1.3.3.소모품 수선비	1,140,513	1.2.1.마늘	2,035,000
1.3.4.농업용 전기료	41,390	1.2.2.고추	100,000
1.3.5.전화 통신비	-	1.2.3.송아지 판매(2두)	2,000,000
1.3.6.조세 공과금	237,000	1.2.4.기타 농산물	29,000
1.3.7.농업관련 보험료	767,000	※ 재고(송아지 3두)	(4,000,000)
1.3.8.회비 등	70,000		
1.3.9.기타 관리.유지비	-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439,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1,310,706	2.1.수탁작업 수입	324,000
2.1.수탁작업 지출	30,000	2.1.1.노타리 작업	24,000
2.2.타가농산물 취급지출	100,000	2.1.2.콤바인 작업	140,000
2.3.영농차입금 이자	1,180,706	2.1.3.쌀 운반비	160,000
		2.2.타가농산물 취급수입	115,000
농업지출 합계	15,822,305		
농업소득(경상이익)	14,884,655		
경 상 비 용 합 계	30,706,960	경 상 수 익 합 계	30,706,960
3.특별지출	13,320,000	3. 특별수익	700,000
3.1.영농투자지출	13,320,000	3.1.오토바이 매각	700,000
3.1.1.우사 증개축	2,000,000		
3.1.2.한우구입(5두)	9,670,000		
3.1.3.오토바이 구입	1,000,000		
3.1.4.트랙터 로-더	650,000		
지 출 합 계	29,142,305		
당 기 순 이 익	2,264,655		
합 계	31,406,960	합 계	31,406,96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원금(1993.1.1.-12.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5,845,560	1.영농자금 차입	3,500,000
1.1.농지구입자금	555,560	1.1.영농자금	3,500,000
1.2.트랙터 구입자금	1,010,000		
1.3.콤바인 구입자금	780,000		
1.4.영농자금	3,5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5,845,560		
부 채 의 증 감	-2,345,560		
합 계	3,500,000	합 계	3,500,000

수도작 농가-2의 대차대조표(1994. 1. 1)

《 대 차 대 조 표 》

수도작 농가-2 1994.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67,452,700	1.부채	23,329,440
1.1.토지	91,309,700	1.1.중장기성 부채	23,329,440
1.1.1.논(11,190평)	87,859,700	1.1.1.농지 구입자금	9,444,440
1.1.2.밭(42평)	210,000	1.1.2.콤바인 구입자금	4,620,000
1.1.3.대지(창고/축사)	3,240,000	1.1.3.트랙터 구입자금	7,765,000
		1.1.4.객토 지원자금	1,5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58,923,000		
1.2.1.정부양곡창고	56,923,000	1.2.단기성 부채	-
1.2.2.우사(50평)	2,000,000		
1.3.대동물	10,000,000	2.자기자본	173,679,130
1.3.1.번식우(5두)	10,000,000		
		2.1.자본금	134,603,975
1.4.대식물	-	2.2.감가상각적립금	36,810,500
		2.3.당기순이익	2,264,655
1.5.대농구	7,220,000		
1.5.1.콤바인('88)	300,000		
1.5.2.트랙터('90)	3,000,000		
1.5.3.경운기('85)	130,000		
1.5.4.이앙기('88)	100,000		
1.5.5.건조기('91)	1,290,000		
1.5.6.트럭('91)	750,000		
1.5.7.오토바이('93)	1,000,000		
1.5.8.트랙터 로더('93)	650,000		
2.유동자산	11,525,870		
2.1.재고농산물	11,456,940		
2.1.1.벼(5,040kg)	5,756,940		
2.1.2.비육우(4두)	5,700,000		
2.2.재고생산자재	68,930		
3.유통자산	18,030,000		
3.1.현금 및 예저금	7,500,000		
3.2.적립금	10,530,000		
영농자산합계	197,008,570	영농자본합계	197,008,570

수도작 농가-2의 손익계산서(1994.1. 1~12. 31)

《 손 익 계 산 서 》

수도작 농가-2 1993. 1. 1~12.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21,449,29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51,394,805
1.1.수도작 지출	2,915,700	1.1.수도작(주작목) 수입	21,190,805
1.1.1.물재비	2,114,060	1.1.1.전년산	4,104,840
1.1.2.고용노력비	579,000	1.1.1.1.추곡수매	2,964,840
1.1.3.위탁작업비	70,000	1.1.1.2.시판	-
1.1.4.기타 지출생산비	152,640	1.1.1.3.자가소비	1,080,000
		1.1.1.4.부산물(짚, 쌀겨 등)	60,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11,075,480		
1.2.1.종축비(송아지6두)	7,950,000	1.1.2.당년산(27,800kg)	17,085,965
1.2.2.물재비	2,911,680	1.1.2.1.추곡수매	10,406,080
1.2.3.고용노력비	70,000	1.1.2.2.시판	5,039,885
1.2.4.위탁작업비	143,000	1.1.2.3.자가소비	1,500,000
		1.1.2.4.부산물 판매	140,000
1.3.관리/유지비	7,458,110	※ 벼 재고(차기이월)	(13,295,640)
1.3.1.감가상각비	5,418,500		
1.3.2.유류/윤활유	536,220	1.2.그외 농산물 수입	30,204,000
1.3.3.소모품/수선비	725,000		
1.3.4.농업용 전기료	38,760	1.2.1.비육/번식우 수입	30,180,000
1.3.5.전화/통신비	-	1.2.1.1.송아지(13두)	17,930,000
1.3.6.조세/공과금	174,630	1.2.1.2.비육우(6두)	12,250,000
1.3.7.농업관련 보험료	505,000		
1.3.8.회비 등	60,000	1.2.2.마늘	24,000
1.3.9.기타 관리/유지비	-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1,226,709		
2.1.수탁작업지출	-		
2.2.영농차입금 이자	1,226,709		
2.2.1.농지구입자금	304,870		
2.2.2.트랙터 구입자금	452,500		
2.2.3.콤바인 구입자금	274,230		
2.2.4.영농자금	50,000		
2.2.5.적금대출	144,109		
농업지출 합계	22,675,999		
농업소득(경상이익)	28,718,806		
경 상 비 용 합 계	51,394,805	경 상 수 익 합 계	51,394,805
3.특별지출	8,842,50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8,842,500		
3.1.1.한우구입(3두)	5,400,000		
3.1.2.우사 증개축	2,424,500		
3.1.3.농기계/설비 구입	1,018,000		
지 출 합 계	31,518,499		
당 기 순 이 익	19,876,306		
합 계	51,394,805	합 계	51,394,805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원금(1994. 1. 1~12. 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7,545,560	1.영농자금 차입	6,700,000
1.1.트랙터 구입자금	1,010,000	1.1.재토 지원자금	1,500,000
1.2.콤바인 구입자금	780,000	1.2.영농자금	1,200,000
1.3.농지 구입자금	555,560	1.3.일반대출	4,000,000
1.4.영농자금	1,200,000		
1.5.일반대출	4,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7,545,560		
부 채 의 증 감	- 845,560		
합 계	6,700,000	합 계	6,700,000

수도작 농가-3의 대차대조표(1994. 1. 1)

《 대 차 대 조 표 》

수도작 농가-3 1994.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87,539,200	1.부채	28,640,000
1.1.토지	61,000,000	1.1.중장기성 부채	23,640,000
1.1.1.논(3,190평)	57,000,000	1.1.1.후계자 자금	4,700,000
1.1.2.밭(400평)	4,000,000	1.1.2.콤바인('87)자금	4,000,000
		1.1.3.콤바인('92)자금	3,8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2,660,000	1.1.4.트랙터 자금	8,400,000
1.2.1.창고(10평)	1,680,000	1.1.5.건조기 자금	1,990,000
1.2.2.우사(3평)	980,000	1.1.6.관리기 자금	750,000
1.3.대동물	6,000,000	1.2.단기성 부채	5,000,000
1.3.1.번식우(3두)	6,000,000	1.2.1.영농자금	-
		1.2.2.일반대출	5,000,000
1.4.대식물	-		
1.5.대농구	17,879,200	2.자기자본	72,971,400
1.5.1.콤바인('92)	8,100,000		
1.5.2.트랙터('92)	7,425,000	2.1.자본금	62,765,000
1.5.3.경운기('85)	209,200	2.2.감가상각 적립금	10,206,400
1.5.4.관리기('93)	1,000,000		
1.5.5.건조기('92)	945,000		
1.5.6.예취기('92)	100,000		
1.5.7.분무기('89)	100,000		
2.유동자산	1,872,200		
2.1.재고농산물(벼)	1,758,200		
2.2.재고생산자재	114,000		
3.유통자산	12,200,000		
3.1.현금 및 예저금	3,700,000		
3.2.적립금	8,500,000		
영농자산합계	101,611,400	영농자본합계	101,611,40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3 회계년도)의 당기순이익이포함된 바, 이는 1994.1.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1993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4. 1.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수도작 농가-3의 손익계산서(1994. 1. 1~12. 31)

《 손 익 계 산 서 》

수도작 농가-3 1994. 1. 1~12.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18,043.76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35,463,860
1.1.수도작 지출	1,809,240	1.1.수도작(주작목) 수입	9,893,200
1.1.1.물재비	534,290	1.1.1.전년산	1,758,200
1.1.2.고용노력비	358,000	1.1.1.1.추곡수매	910,200
1.1.3.위탁작업비	-	1.1.1.2.시판	-
1.1.4.기타 지출생산비	916,950	1.1.1.3.자가소비	848,000
		1.1.1.4.부산물(짚, 쌀겨 등)	-
1.2.그외 농산물 지출	9,612,420		
1.2.1.물재비	3,917,370	1.1.2.당년산(11,000kg)	8,135,000
1.2.2.고용노력비	2,777,000	1.1.2.1.추곡수매	4,240,000
1.2.3.위탁작업비	45,000	1.1.2.2.시판	3,520,000
1.2.4.기타 지출생산비	2,873,050	1.1.2.3.자가소비	375,000
		1.1.2.4.부산물 판매	-
1.3.관리/유지비	6,622,100	※ 벼 재고(차기이월)	(2,100,000)
1.3.1.감가상각비	5,947,100		
1.3.2.유류/윤활유	419,500	1.2.그외 농산물 수입	25,570,660
1.3.3.소모품/수선비	255,500		
1.3.4.농업용 전기료	-	1.2.1.한우판매(1두)	2,200,000
·	-	1.2.2.하수오(약초)	3,450,000
·	-	1.2.3.건고추	6,399,600
·	-	1.2.4.담배(2,646kg)	13,521,06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1,933,0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2,405,000
2.1.수탁작업지출	126,000	2.1.수탁작업수입	2,405,000
2.2.영농차입금 이자	1,807,000		
2.2.1.후계자 자금	235,000		
2.2.2.트랙터 구입자금	420,000		
2.2.3.콤바인('87)자금	200,000		
2.2.4.콤바인('92)자금	190,000		
2.2.5.건조기 구입자금	99,500		
2.2.6.관리기 구입자금	37,500		
2.2.7.일반대출	625,000		
농업지출 합계	19,976,760		
농업소득(경상이익)	17,892,100		
경 상 비 용 합 계	37,868,860	경 상 수 익 합 계	37,868,860
3.특별지출	3,200,00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3,200,000		
3.1.1.밭 구입(258평)	3,200,000		
지 출 합 계	23,176,760		
당 기 순 이 익	14,692,100		
합 계	37,868,860	합 계	37,868,86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원금(1994.1.1.-12.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6,940,000	1.영농자금 차입	5,000,000
1.1.후계자 자금	940,000	1.1.일반대출	5,000,000
1.2.콤바인('87) 자금	1,000,000		
1.3.일반대출	5,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6,940,000		
부 채 의 증 감	-1,940,000		
합 계	5,000,000	합 계	5,000,000

수도작 농가-4의 대차대조표(1994. 1. 1)

《 대 차 대 조 표 》

수도작 농가-4 1994.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584,665,000	1.부채	95,500,000
1.1.토지	430,550,000	1.1.중장기성 부채	93,500,000
1.1.1.논(6,117평)	176,610,000	1.1.1.후계자 자금	7,500,000
1.1.2.밭(2,395평)	122,390,000	1.1.2.농기계 구입자금	11,000,000
1.1.3.대지(버섯사 등)	131,550,000	1.1.3.전업농 육성자금	50,000,000
		1.1.4.일반대출(3년)	25,0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120,000,000		
1.2.1.버섯재배사(136평)	80,000,000	1.2.단기성 부채	2,000,000
1.2.2.버섯재배사(200평)	20,000,000	1.2.1.갈을 외상	2,000,000
1.2.3.저온창고(5평)	10,000,000		
1.2.4.관리사(24평)	10,000,000		
		2.자기자본	575,886,050
1.3.대동물	-		
		2.1.자본금	555,339,200
1.4.대식물	-		
		2.2.감가상각 적립금	20,546,850
1.5.대농구	34,115,000		
1.5.1.트랙터('89)	8,775,000		
1.5.2.경운기('81)	275,000		
1.5.3.경운기('93)	1,260,000		
1.5.4.분무기('88)	200,000		
1.5.5.분무기('91)	300,000		
1.5.6.분무기('93)	400,000		
1.5.7.예취기('90)	150,000		
1.5.8.건조기('93)	1,555,000		
1.5.9.냉동기('93)	3,000,000		
1.5.10.살균기('89)	563,000		
1.5.11.살균기('91)	937,000		
1.5.12.온수보일러('87)	57,140		
1.5.13.온수보일러('89)	171,430		
1.5.14.온수보일러('90)	228,570		
1.5.15.온수보일러('92)	342,860		
1.5.16.스팀보일러('93)	5,000,000		
1.5.17.살균 솥('93)	5,000,000		
1.5.18.크린벤쿠('93)	700,000		
1.5.19.탈병기('93)	400,000		
1.5.20.입병기('93)	600,000		
1.5.21.환풍기('91/20)	300,000		
1.5.22.송풍기('93/4대)	400,000		
1.5.23.바-트('93/500)	750,000		
1.5.24.연료탱크(15개)	1,000,000		
1.5.25.농용 전기시설('93)	1,750,000		
2.유동자산	5,878,050		
2.1.재고농산물(벼)	1,860,000		
2.2.재고생산자재	3,818,050		
2.3.소가축	200,000		
3.유통자산	80,843,000		
3.1.현금 및 예저금	5,843,000		
3.2.적립금	75,000,000		
영농자산합계	671,386,050	영농자본합계	671,386,05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3 회계년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4. 1.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1993년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 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4. 1.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수도작 농가-4의 손익계산서(1994. 1. 1~12. 31)

《 손 익 계 산 서 》

수도작 농가-4 1994. 1. 1~12.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27,949,602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48,870,630
1.1.수도작 지출	1,350,480	1.1.수도작(주작목) 수입	14,346,000
1.1.1.물재비	1,180,480	1.1.1.전년산	-
1.1.2.고용노력비	170,000		
1.1.3.위탁작업비	-	1.1.2.당년산(12,720kg)	14,346,000
1.1.4.기타 지출생산비	12,390	1.1.2.1.추곡수매	14,346,000
		※ 벼 재고(차기이월)	(860,760)
1.2.그외 농산물 지출	14,166,272		
1.2.1.물재비	12,490,412	1.2.그외 농산물 수입	34,524,630
1.2.2.고용노력비	1,430,000		
1.2.3.위탁작업비	-	1.2.1.느타리 버섯 판매	34,524,630
1.2.4.기타 지출생산비	245,860		
1.3.관리/유지비	12,432,85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300,000
1.3.1.감가상각비	9,035,750	2.1.수탁작업 수입(콤바인)	150,000
1.3.2.유류/윤활유	3,058,100		
1.3.3.소모품/수선비	189,000		
1.3.4.회비 등	150,000	2.2.버섯특강 강사료 수입	150,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5,930,000		
2.1.수탁작업 지출	-		
2.2.영농차입금 이자	5,930,000		
2.2.1.후계자 자금	375,000		
2.2.2.농기계 구입자금	550,000		
2.2.3.전업농 육성자금	2,500,000		
2.2.4.영농자금	100,000		
2.2.5.일반대출	2,405,000		
농업지출 합계	33,879,602		
농업소득(경상이익)	15,291,028		
경 상 비 용 합 계	49,170,630	경 상 수 익 합 계	49,170,630
3.특별지출	3,971,800	3. 특별수익	54,800,000
3.1.영농투자지출	3,971,800	3.1.보조금 수입	54,800,000
3.1.1.창고/건조장 신축	3,521,800	3.1.1.벼 건조장 설치보조금	50,000,000
3.1.2.믹서기(느타리)	450,000	3.1.2.농기계창고 설치보조금	4,800,000
지 출 합 계	37,851,402		
당 기 순 이 익	66,119,228		
합 계	103,970,630	합 계	103,970,63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원금(1994.1.1.-12.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9,070,000	1.영농자금 차입	2,000,000
1.1.후계자 자금	1,500,000	1.1.영농자금	2,000,000
1.2.농기계 구입자금	3,750,000		
1.3.영농자금	2,000,000		
1.4.갚을 외상	2,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9,070,000		
부 채 의 증 감	-7,070,000		
합 계	2,000,000	합 계	2,000,000

사과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2. 5. 1)

《 대 차 대 조 표 》

사과 농가-1 1992. 5.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09,236,400	1.부채	14,820,000
1.1.토지	98,160,000	1.1.중장기성 부채	12,320,000
1.1.1.논(1,200평)	18,000,000	1.1.1.후계자 자금	12,320,000
1.1.2.밭	-		
1.1.3.과수원(3,346평)	80,160,000	1.2.단기성 부채	2,500,000
		1.2.1.영농자금	1,5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	1.2.2.일반대출	1,000,000
1.3.대식물	8,224,400		
1.3.1.사과(1,440주)	3,733,400	2.자기자본	132,325,700
1.3.2.자두(95주)	3,135,000		
1.3.3.감(10주)	1,100,000	2.1.자본금	125,780,900
1.3.4.모과(6주)	256,000		
		2.2.감가상각 적립금	6,544,800
1.4.대동물	-		
1.5.대농구	2,852,000		
1.5.1.경운기('81)	700,000		
1.5.2.관리기('86)	700,000		
1.5.3.탈곡기('90)	560,000		
1.5.4.이앙기('87)	100,000		
1.5.5.양수기('89)	64,800		
1.5.6.용접기('91)	60,000		
1.5.7.오토바이('91)	667,200		
2.유동자산	2,174,020		
2.1.재고농산물	-		
2.2.재고생산자재	24,020		
2.3.소가축	2,150,000		
3.유통자산	35,735,280		
3.1.현금 및 예저금	9,000,000		
3.2.적립금	26,000,000		
3.3.유가증권(국민주)	735,280		
영농자산합계	147,145,700	영농자본합계	147,145,70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1. 5. 1~1992. 4. 30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2. 5.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2. 5.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사과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2. 5. 1~1993. 4. 30)

《 손 익 계 산 서 》

사과 농가-1 1992. 5. 1~1993. 4. 30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3,826,071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16,063,820
1.1.사과 지출	1,296,196	1.1.사과(주작목) 수입	5,810,000
1.1.1.물재비	996,196	1.1.1.전년산	-
1.1.2.고용노력비	280,000		
1.1.3.위탁작업비	20,000	1.1.2.당년산(12,300kg)	5,810,000
1.1.4.기타 지출생산비	-	1.1.2.1.시판	5,810,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1,224,380	1.2.그외 농산물 수입	10,253,820
1.2.1.물재비	1,036,100	1.2.1.자두	4,804,500
1.2.2.고용노력비	56,000	1.2.2.감	1,326,000
1.2.3.위탁작업비	132,280	1.2.3.수도작	1,761,320
1.2.4.기타 지출생산비	-	1.2.4.흑염소 등	2,070,000
		1.2.5.기타 농산물	292,000
1.3.관리/유지비	1,305,495	※ 벼 재고(차기이월)	(1,370,000)
1.3.1.감가상각비	742,790		
1.3.2.유류/윤활유	240,425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3,583,500
1.3.3.소모품/수선비	145,000	2.1.수탁작업(전정) 수입	3,583,500
1.3.4.농용 전기료	43,570		
1.3.5.전화/통신비	71,710		
1.3.6.조세/공과금	32,000		
1.3.7.회비 등	30,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625,000		
2.1.영농차입금 이자	625,000		
농업지출 합계	4,451,071		
농업소득(경상이익)	15,196,249		
경 상 비 용 합 계	19,647,320	경 상 수 익 합 계	19,647,320
3.특별지출	721,50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721,500		
3.1.1.복숭아 묘목	136,500		
3.1.2.이앙기 등	585,000		
자 출 합 계	5,172,571		
당 기 순 이 익	14,474,749		
합 계	19,647,320	합 계	19,647,32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원금(1992.5.1.~1993.4..30.)

1.영농부채 원금상환	2,500,000	1. 영농자금 차입	
1.1.영농자금	1,500,000		
1.2.일반대출	1,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2,500,000		
부 채 의 증 감	-2,500,000		
합 계	-0-	합 계	-0-

사과 농가-2의 대차대조표(1992. 5. 1)

《 대 차 대 조 표 》

사과 농가-2 1992. 5.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677,852,500	1.부채	27,954,000
1.1.토지	630,372,500	1.1.중장기성 부채	27,954,000
1.1.1.논(4,210평)	119,372,500	1.1.1.트랙터 자금	18,700,000
1.1.2.과수원(5,110평)	511,000,000	1.1.2.경운기 구입자금	525,000
		1.1.3.관리기('88)	1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6,000,000	1.1.4.관리기('92)	400,000
1.2.1.창고('85)	6,000,000		
		1.2.단기성 부채	-
1.3.대동물	-		
1.4.대식물(토지에 포함시킴)		2.자기자본	682,842,500
1.5.대농구	41,480,000	2.1.자본금	675,676,410
1.5.1.트랙터('92)	25,000,000		
1.5.2.경운기('88)	72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7,166,090
1.5.3.관리기('92)	600,000		
1.5.4.관리기('88)	300,000		
1.5.5.SS분무기('90)	8,560,000		
1.5.6.트럭('90,1톤)	6,300,000		
2.유동자산	9,544,000		
2.1.재고농산물(벼)	6,700,000		
2.2.재고생산자재	2,844,000		
3.유통자산	23,400,000		
3.1.현금 및 예저금	23,000,000		
3.2.유가증권(국민주)	400,000		
영농자산합계	710,796,500	영농자본합계	710,796,50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1. 5. 1~1992. 4. 30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2. 5.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2. 5.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사과 농가-2의 손익계산서(1992. 5. 1~1993. 4. 30)

《 손 익 계 산 서 》

사과 농가-2 1992. 5. 1~1993. 4. 30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16,257,57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50,301,900
1.1.사과 지출	3,732,295	1.1사과(주작목) 수입	17,042,500
1.1.1.물재비	3,482,225	1.1.1.전년산	-
1.1.2.고용노력비	175,640		
1.1.3.위탁작업비	-	1.1.2.당년산(34,080kg)	17,042,500
1.1.4.기타 지출생산비	74,430	1.1.2.1.시판	17,014,500
		1.1.2.2.자가소비	28,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6,165,915		
1.2.1.물재비	4,290,115	1.2.그외 농산물 수입	33,259,400
1.2.2.고용노력비	1,780,800	1.2.1.자두	17,593,010
1.2.3.위탁작업비	95,000	1.2.2.감자	8,018,520
1.2.4.기타 지출생산비	-	1.2.3.대파	4,198,170
		1.2.4.수도작	419,500
1.3.관리/유지비	6,359,360	1.2.5.양파	1,411,500
1.3.1.감가상각비	5,320,870	1.2.6.기타 농산물	1,618,700
1.3.2.유류/윤활유	334,650	※ 벼 재고(차기이월)	(1,900,000)
1.3.3.소모품/수선비	74,500		
1.3.4.농용 전기료	73,75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1,067,800
1.3.5.전화/통신비	137,170	2.1.수탁작업 수입	830,000
1.3.6.조세/공과금	60,870	2.2.타가농산물 취급수입	237,800
1.3.7.농업관련 보험료	357,55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1,399,450		
2.1.영농차입금 이자	1,399,450		
농업지출 합계	17,657,020		
농업소득(경상이익)	33,712,680		
경 상 비 용 합 계	51,369,700	경 상 수 익 합 계	51,369,700
3.특별지출	67,620,00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67,620,000		
3.1.1.밭 구입(1,400평)	66,800,000		
3.1.2.농기계/설비 구입	605,000		
3.1.3.과수묘목	215,000		
지 출 합 계	85,277,020		
당 기 순 이 익	-33,907,320		
합 계	51,369,700	합 계	51,369,70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2.5.1.-1993.4.30.)

1.영농부채 원금상환	2,265,250	1.영농자금 차입	52,800,000
		1.1.전업농 육성자금	50,000,000
		1.2.객토 지원자금	8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2,265,250	1.3.영농자금	2,000,000
부 채 의 증 감	+50,534,750		
합 계	52,800,000	합 계	52,800,000

사과 농가-3의 대차대조표(1992. 5. 1)

《 대 차 대 조 표 》

사과 농가-3 1992. 5.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399,096,000	1.부채	8,000,000
1.1.토지	1,350,000,000	1.1.중장기성 부채	-
1.1.1.논(2,000평)	100,000,000		
1.1.2.밭(500평)	50,000,000	1.2.단기성 부채	8,000,000
1.1.3.과수원(3,700평)	1,200,000,000	1.2.1.일반대출	8,0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44,500,000		
1.2.1.축사('82/1,040평)	14,500,000	2.자기자본	1,400,328,700
1.2.2.창고('82/80평)	30,000,000		
		2.1.자본금	1,374,162,700
1.3.대동물(양봉 5군)	50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26,166,000
1.4.대식물(토지에 포함 시킴)			
1.5.대농구	4,096,000		
1.5.1.경운기('79)	50,000		
1.5.2.관리기('88)	140,000		
1.5.3.SS-분무기('84)	1,600,000		
1.5.4.예취기('85)	104,000		
1.5.5.트럭('90/1톤)	1,800,000		
1.5.6.선과기('90)	400,000		
2.유동자산	2,682,700		
2.1.재고농산물(벼)	2,504,700		
2.2.재고생산자재	178,000		
3.유통자산	6,550,000		
3.1.현금 및 예저금	1,720,000		
3.2.적립금	4,830,000		
영농자산합계	1,408,328,700	영농자본합계	1,408,328,70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1. 5. 1~1992. 4. 30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2. 5.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2. 5.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사과 농가-3의 손익계산서(1992. 5. 1～1993. 4. 30)

《 손 익 계 산 서 》

사과 농가-3 1992. 5. 1～1993. 4. 30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15,129,37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24,632,400
1.1.사과 지출	9,631,770	1.1사과(주작목) 수입	19,360,000
1.1.1.물재비	5,222,770	1.1.1.전년산	-
1.1.2.고용노력비	4,409,000	1.1.2.당년산(24,150kg)	19,360,000
1.1.3.위탁작업비	-	1.1.2.1.시판	19,360,000
1.1.4.기타 지출생산비	-		
1.2.그외 농산물 지출	1,714,600	1.2.그외 농산물 수입	5,272,400
1.2.1.물재비	614,600	1.2.1.수도작	4,932,400
1.2.2.고용노력비	125,000	1.2.1.1.전년산	2,200,000
1.2.3.위탁작업비	975,000	1.2.1.2.당년산	2,732,400
1.2.4.기타 지출생산비	-	1.2.1.2.1.수매	2,732,400
		※ 벼 재고(차기이월)	(870,200)
1.3.관리/유지비	3,783,000	1.2.2.표고버섯	340,000
1.3.1.감가상각비	3,124,000		
1.3.2.유류/윤활유	90,0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
1.3.3.소모품/수선비	95,000		
1.3.4.농용 전기료	79,000		
1.3.5.전화/통신비	35,000		
1.3.6.조세/공과금	320,000		
1.3.7.기타 관리/유지비	40,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1,004,000		
2.1.영농차입금 이자	1,004,000		
농업지출 합계	16,133,370		
농업소득(경상이익)	8,499,030		
경 상 비 용 합 계	24,632,400	경 상 수 익 합 계	24,632,400
3.특별지출	450,000	3.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450,000		
3.1.1.농기계/설비 구입	450,000		
지 출 합 계	16,583,370		
당 기 순 이 익	8,049,030		
합 계	24,632,400	합 계	24,632,40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2.5.1.-1993.4.30.)

1.영농부채 원금상환	460,000	1.영농자금 차입	3,000,000
		1.1.영농자금	3,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460,000		
부 채 의 증 감	+2,540,000		
합 계	3,000,000	합 계	3,000,000

사과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3. 1. 1)

《 대 차 대 조 표 》

사과 농가-1 1993.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08,743,600	1.부채	10,560,000
1.1.토지	98,160,000	1.1.중장기성 부채	10,560,000
1.1.1.논(1,200평)	18,000,000	1.1.1.후계자 자금	10,560,000
1.1.2.밭	-		
1.1.3.과수원(3,346평)	80,160,000	1.2.단기성 부채	-
1.2.농용 건/축/시설물	-		
		2.자기자본	135,120,020
1.3.대식물	7,907,200		
1.3.1.사과(1,440주)	3,616,700	2.1.자본금	127,796,700
1.3.2.자두(95주)	2,992,500		
1.3.3.감(10주)	1,05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7,323,320
1.3.4.모과(6주)	248,000		
1.4.대동물	-		
1.5.대농구	2,676,400		
1.5.1.경운기('81)	600,000		
1.5.2.관리기('86)	600,000		
1.5.3.탈곡기('90)	480,000		
1.5.4.이앙기('87)	50,000		
1.5.5.양수기('89)	57,600		
1.5.6.용접기('91)	55,000		
1.5.7.오토바이('91)	583,800		
1.5.8.분무기('92)	250,000		
2.유동자산	2,936,420		
2.1.재고농산물	1,370,000		
2.2.재고생산자재	21,420		
2.3.소가축	1,545,000		
3.유통자산	34,000,000		
3.1.현금 및 예저금	12,000,000		
3.2.적립금	22,000,000		
영농자산합계	145,680,020	영농자본합계	145,680,02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2. 1. 1~12. 31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2. 5.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2. 5.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사과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3. 1. 1~12. 31)

《 손 익 계 산 서 》

사과 농가-1 1993. 1. 1~12.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5,637,529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16,457,720
1.1.사과 지출	2,015,040	1.1.사과(주작목) 수입	6,600,200
1.1.1.물재비	1,584,540	1.1.1.전년산	-
1.1.2.고용노력비	310,500		
1.1.3.위탁작업비	-	1.1.2.당년산(11,420kg)	6,600,200
1.1.4.기타 지출생산비	120,000	1.1.2.1.시판	6,323,200
		1.1.2.2.자가소비	277,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2,517,399	※ 사과저장(차기 이월)	(2,300,000)
1.2.1.물재비	2,375,399		
1.2.2.고용노력비	142,000	1.2.그외 농산물 수입	9,857,520
1.2.3.위탁작업비	-	1.2.1.자두	4,695,480
1.2.4.기타 지출생산비	-	1.2.2.감	1,355,520
		1.2.3.수도작	2,869,020
1.3.관리/유지비	1,105,090	1.2.4.흑염소 등	670,000
1.3.1.감가상각비	778,510	1.2.5.콩/참깨/고추 등	267,500
1.3.2.유류/윤활유	124,580		
1.3.3.소모품/수선비	12,0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2,771,500
1.3.4.기타 관리/유지	190,000	2.1.수탁작업 수입(427h)	2,771,500
		2.1.1.사과 전정(393h)	2,550,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528,000	2.1.2.자두 전정(25h)	167,500
2.1.영농차입금 이자	528,000	2.1.3.복숭아 전정(9h)	54,000
농업지출 합계	6,165,529		
농업소득(경상이익)	13,063,691		
경 상 비 용 합 계	19,229,220	경 상 수 익 합 계	19,229,220
3.특별지출	16,120,700	3.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16,120,700		
3.1.1.차량(갤로퍼)	15,985,700		
3.1.2.묘목(복숭아,매실)	90,000		
3.1.3.토종 닭	45,000		
지 출 합 계	22,286,229		
당 기 순 이 익	-3,057,009		
합 계	19,229,220	합 계	19,229,22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3.1.1.-12.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1,760,000	1.영농자금 차입	-
상 환 원 금 합 계	1,760,000		
부 채 의 증 감	-1,760,000		
합 계	-0-	합 계	-0-

사과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4. 1. 1)

《 대 차 대 조 표 》

사과 농가-1 1994.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24,240,000	1.부채	8,800,000
1.1.토지	98,160,000	1.1.중장기성 부채	8,800,000
1.1.1.논(1,200평)	18,000,000	1.1.1.후계자 자금	8,800,000
1.1.2.밭	-		
1.1.3.과수원(3,346평)	80,160,000	1.2.단기성 부채	-
1.2.농용 건/축/시설물	-		
		2.자기자본	159,562,320
1.3.대식물	7,680,000		
1.3.1.사과(1,440주)	3,500,000	2.1.자본금	153,768,709
1.3.2.자두(95주)	2,850,000		
1.3.3.감(10주)	1,00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8,850,620
1.3.4.모과(6주)	240,000		
1.3.5.복숭아(30주)	90,000	2.3.당기순이익	-3,057,009
1.4.대동물	-		
1.5.대농구	18,400,000		
1.5.1.경운기('81)	500,000		
1.5.2.관리기('86)	500,000		
1.5.3.탈곡기('90)	400,000		
1.5.4.이앙기('93)	200,000		
1.5.5.양수기('89)	50,000		
1.5.6.용접기('91)	50,000		
1.5.7.오토바이('91)	500,000		
1.5.8.분무기('92)	214,300		
1.5.9.차량(갤로퍼)	15,985,700		
2.유동자산	9,122,320		
2.1.재고농산물	8,320,000		
2.2.재고생산자재	57,320		
2.3.소가축	745,000		
3.유통자산	35,000,000		
3.1.현금 및 예저금	5,000,000		
3.2.적립금	30,000,000		
영농자산합계	168,362,320	영농자본합계	168,362,320

사과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4. 1. 1~12. 31)

《 손 익 계 산 서 》

사과 농가-1 1994. 1. 1~12.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5,399,34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25,331,790
1.1.사과 지출	1,631,950	1.1.사과(주작목) 수입	5,761,930
1.1.1.물재비	1,253,950	1.1.1.전년산	3,149,000
1.1.2.고용노력비	318,000		
1.1.3.위탁작업비	-	1.1.2.당년산(6,240kg)	2,612,930
1.1.4.기타 지출생산비	60,000	1.1.2.1.시판	2,217,430
		1.1.2.2.가공용 납품	395,500
1.2.그외 농산물 지출	1,774,210	※ 사과저장(차기 이월)	(4,500,000
1.2.1.물재비	1,436,210		
1.2.2.고용노력비	338,000	1.2.그외 농산물 수입	19,569,860
1.2.3.위탁작업비	-	1.2.1.자두	14,287,100
1.2.4.기타 지출생산비	-	1.2.2.감	1,767,460
		1.2.3.수도작	1,040,000
1.3.관리/유지비	1,993,180	1.2.4.고추	1,290,000
1.3.1.감가상각비	1,527,300	1.2.5.참깨	780,000
1.3.2.유류/윤활유	87,310	1.2.6.콩/모과 등	405,300
1.3.3.소모품/수선비	166,570		
1.3.4.기타 관리/유지비	212,0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2,720,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360,000	2.1.수탁작업 수입(410h)	2,720,000
2.1.영농차입금 이자	360,000	2.1.1.사과 전정(346h)	2,300,000
		2.1.2.자두 전정(32h)	200,000
농업지출 합계	5,759,340	2.1.3.복숭아 전정(32h)	220,000
농업소득(경상이익)	22,292,450		
경 상 비 용 합 계	28,051,790	경 상 수 익 합 계	28,051,790
3.특별지출	3,922,000	3. 특별수익	852,500
3.1.영농투자지출	3,922,000	3.1.보조금	852,500
3.1.1.차량 할부금	2,003,700	3.1.1.배 묘목구입 보조금	577,500
3.1.2.복숭아 묘목(40주)	80,000	3.1.2.배 점적관수 시설보조금	275,000
3.1.3.배 묘목(330주)	577,500		
3.1.4.배 지주	985,800		
3.1.5.배 점적관수시설	275,000		
지 출 합 계	9,681,340		
당 기 순 이 익	19,222,950		
합 계	28,904,290	합 계	28,904,29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4.1.1.-12.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1,760,000	1.영농자금 차입	-
상 환 원 금 합 계	1,760,000		
부 채 의 증 감	-1,760,000		
합 계	-0-	합 계	-0-

양파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3. 3. 1)

《 대 차 대 조 표 》

양파 농가-1 1993.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95,642,240	1.부채	35,300,000
1.1.토지	67,370,000	1.1.중장기성 부채	29,300,000
1.1.1.논(2,230평)	67,370,000	1.1.1.농지구입자금	10,000,000
1.1.2.밭	-	1.1.2.후계자 육성자금	12,000,000
		1.1.3.트랙터 구입자금	7,3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2,200,000		
1.2.1.창고(30평)	2,200,000	1.2.단기성 부채	6,000,000
		1.2.1.영농자금	1,000,000
1.3.대식물(조성비)	10,662,240	1.2.2.적금대출	2,500,000
1.3.1.대추(130주)	10,662,240	1.2.3.공제대출	2,500,000
1.4.대동물(번식우)	5,200,000		
1.4.1.번식우(2두)	5,200,000	2.자기자본	68,104,380
1.5.대농구	10,210,000	2.1.자본금	61,399,094
1.5.1.트랙터('91)	8,200,000		
1.5.2.바인더('90)	1,20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6,705,286
1.5.3.경운기('81)	680,000		
1.5.4.분무기('82)	60,000		
1.5.5.양수기('82)	70,000		
2.유동자산	1,442,140		
2.1.재고농산물	1,291,140		
2.2.재고생산자재	31,000		
2.3.소가축	120,000		
3.유통자산	6,320,000		
3.1.현금 및 예저금	720,000		
3.2.적립금	5,600,000		
영농자산합계	103,404,380	영농자본합계	103,404,38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2. 3. 1~1993. 2. 28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3. 3.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3. 3.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양파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3. 3. 1~1994. 2. 28)

《 손 익 계 산 서 》

양파 농가-1 1993. 3. 1~1994. 2. 28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7,619,823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15,139,560
1.1.양파 지출	1,009,210	1.1.양파(주작목) 수입	10,718,200
1.1.1.물재비	539,510	1.1.1.전년산	-
1.1.2.고용노력비	469,700		
1.1.3.위탁작업비	-	1.1.2.당년산(42,660kg)	10,718,200
1.1.4.기타 지출생산비	-	1.1.2.1.시판	10,718,200
1.2.그외 농산물 지출	2,064,540	1.2.그외 농산물 수입	4,421,360
1.2.1.물재비	1,515,140	1.2.1.수도작 수입	2,396,220
1.2.2.고용노력비	201,800	1.2.2.마늘	1,800,000
1.2.3.위탁작업비	347,600	1.2.3.꿀 등	225,140
1.2.4.기타 지출생산비	-	※농산물 재고(차기이월)	(5,134,000)
		- 벼 재고(1,200kg) : 1,434,000	
		- 송아지(3두) : 3,600,000	
		- 염소(1두) : 100,000	
1.3.관리/유지비	4,546,073		
1.3.1.감가상각비	2,772,243		
1.3.2.유류/윤활유	540,140		
1.3.3.소모품/수선비	625,7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4,511,080
1.3.4.농용 전기료	42,810	2.1.수탁작업/농업노임	4,511,080
1.3.5.전화/통신비	61,300		
1.3.6.조세/공과금	64,880		
1.3.7.회비 등	439,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2,500,240		
2.1.영농차입금 이자	2,500,240		
2.1.1.후계자 육성자금	600,000		
2.1.2.트랙터 구입자금	365,000		
2.1.3.농지구입자금	672,230		
2.1.4.기타 단기성 부채	863,010		
농업지출 합계	10,120,063		
농업소득(경상이익)	9,530,577		
경 상 비 용 합 계	19,650,640	경 상 수 익 합 계	19,650,640
3.특별지출	5,643,80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5,643,800		
3.1.1.논 구입(107평)	2,300,000		
3.1.2.한우구입(1두)	1,720,000		
3.1.3.차량구입(1톤)	1,623,800		
지 출 합 계	15,763,863		
당 기 순 이 익	3,886,777		
합 계	19,650,640	합 계	19,650,64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3.3.1.-'94. 2.28.)

1.영농부채 원금상환	7,520,000	1.영농자금 차입	8,147,640
1.1.농지구입자금	1,520,000	1.1.일반대출(적금대출)	6,147,640
1.2.영농자금	1,000,000	1.2.일반대출(축협)	2,000,000
1.3.적금/공제대출	5,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7,520,000		
부 채 의 증 감	+ 627,640		
합 계	8,147,640	합 계	8,147,640

양파 농가-2의 대차대조표(1993. 3. 1)

《 대 차 대 조 표 》

양파 농가-2 1993. 3.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33,545,900	1.부채	14,600,000
1.1.토지	102,600,000	1.1.중장기성 부채	12,600,000
1.1.1.논(1,200평)	30,000,000	1.1.1.후계자 육성자금	5,800,000
1.1.2.밭(2,420평)	72,600,000	1.1.2.비닐하우스 시설자금	3,000,000
		1.1.3.온풍기 구입자금	2,35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24,250,000	1.1.4.건조기 구입자금	1,450,000
1.2.1.비닐하우스(500평)	23,750,000		
1.2.1.창고(5평)	500,000	1.2.단기성 부채	2,000,000
		1.2.1.마을금고 대출	2,000,000
1.3.대식물	-		
1.4.대동물	-	2.자기자본	133,407,220
1.5.대농구	6,695,900	2.1.자본금	125,575,600
1.5.1.경운기('85)	400,000		
1.5.2.관리기('88)	30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7,831,620
1.5.3.건조기('86)	1,200,000		
1.5.4.차량(1톤/'92)	4,795,900		
2.유동자산	3,361,320		
2.1.재고농산물	3,286,920		
2.2.재고생산자재	74,400		
3.유통자산	11,100,000		
3.1.현금 및 예저금	4,000,000		
3.2.적립금	7,100,000		
영농자산합계	148,007,220	영농자본합계	148,007,22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2. 3. 1~1993. 2. 28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3. 3.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3. 3.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양파 농가-2의 손익계산서(1993. 3. 1~1994. 2. 28)

《 손 익 계 산 서 》

양파 농가-2 1993. 3. 1~1994. 2. 28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10,959,347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20,015,520
1.1.양파 지출	526,500	1.1.양파(주작목) 수입	2,056,000
1.1.1.물재비	370,500	1.1.1.전년산	-
1.1.2.고용노력비	90,000		
1.1.3.위탁작업비	66,000	1.1.2.당년산(8,220kg)	2,056,000
1.1.4.기타 지출생산비	-	1.1.2.1.시판	2,056,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5,823,187	1.2.그외 농산물 수입	17,959,520
1.2.1.물재비	4,165,187	1.2.1.오이	6,497,200
1.2.2.고용노력비	1,228,000	1.2.2.건고추(666근)	3,996,000
1.2.3.위탁작업비	430,000	1.2.3.대파	3,300,000
1.2.4.기타 지출생산비	-	1.2.4.풋고추(867kg)	2,261,320
		1.2.5.고추모종(10,000주)	700,000
1.3.관리/유지비	4,609,660	1.2.6.참외(26상자))	3,600,000
1.3.1.감가상각비	3,370,060	1.2.7.쪽파(1.5kg×200단)	380,000
1.3.2.유류/윤활유	123,000	1.2.8.무	150,000
1.3.3.소모품/수선비	1,046,600	※ 벼 재고(차기 이월)	(2,295,360)
1.3.4.기타 관리/유지비	70,000	· (40kg×48가마)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550,0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
2.1.영농차입금 이자	550,000		
농업지출 합계	11,509,347		
농업소득(경상이익)	8,506,173		
경 상 비 용 합 계	20,015,520	경 상 수 익 합 계	20,015,520
3.특별지출	-	3.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		
지 출 합 계	11,509,347		
당 기 순 이 익	8,506,173		
합 계	20,015,520	합 계	20,015,52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3.3.1.-'94. 2.28.)

1.영농부채 원금상환	1,812,500	1.영농자금 차입	-
1.1.트랙터 구입자금	812,500		
1.2.영농자금	1,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1,812,500		
부 채 의 증 감	-1,812,500		
합 계	-0-	합 계	-0-

양파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3. 7. 1)

《 대 차 대 조 표 》

양파 농가-1 1993. 7.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97,270,000	1.부채	28,230,000
1.1.토지	69,470,000	1.1.중장기성 부채	27,780,000
1.1.1.논(2,230평)	69,470,000	1.1.1.농지구입자금	8,480,000
1.1.2.밭	-	1.1.2.후계자 육성자금	12,000,000
		1.1.3.트랙터 구입자금	7,3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2,100,000		
1.2.1.창고(30평)	2,100,000	1.2.단기성 부채	450,000
		1.2.1.영농자금	-
1.3.대식물	9,900,000	1.2.2.적금대출	-
1.3.1.대추(130주)	9,900,000	1.2.3.공제대출	-
		1.2.4.갚을 외상	450,000
1.4.대동물	6,900,000		
1.4.1.번식우(3두)	6,900,000		
		2.자기자본	81,770,000
1.5.대농구	8,900,000		
1.5.1.트랙터('91)	7,300,000	2.1.자본금	74,306,770
1.5.2.바인더('90)	1,000,000		
1.5.3.경운기('81)	50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7,463,230
1.5.4.분무기('82)	50,000		
1.5.5.양수기('82)	50,000		
2.유동자산	5,222,000		
2.1.재고농산물	5,034,000		
2.1.1.벼(1,200kg)	1,434,000		
2.1.2.송아지(3두)	3,600,000		
2.2.재고생산자재	78,000		
2.3.소가축	110,000		
3.유통자산	7,508,000		
3.1.현금 및 예저금	360,000		
3.2.적립금	7,148,000		
영농자산합계	110,000,000	영농자본합계	110,000,00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2. 7. 1~1993. 6. 30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3. 3.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3. 3.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양파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3.7. 141994. 6. 30)

《 손 익 계 산 서 》

양파 농가-1 1993. 7. 1~1994. 6. 30

지출		수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7,724,07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13,284,500
1.1.양파 지출	844,700	1.1.양파(주작목) 수입	1,024,500
1.1.1.물재비	528,500	1.1.1.전년산	1,024,500
1.1.2.고용노력비	316,200		
1.1.3.위탁작업비	-	1.1.2.당년산(38,860kg)	(13,514,000)
1.1.4.기타 지출생산비	-	1.1.2.1.시판	-
		※ 양파저장(차기 이월)	(13,514,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1,887,670	1.2.그외 농산물 수입	12,260,000
1.2.1.물재비	1,705,070	1.2.1.수도작 수입	6,160,000
1.2.2.고용노력비	90,000	1.2.2.마늘	2,500,000
1.2.3.위탁작업비	92,600	1.2.3.송아지 판매(3두)	3,600,000
1.2.4.기타 지출생산비	-	※농산물 재고(차기 이월)	(4,072,000)
		- 벼(280kg) : 322,000	
		- 마늘(2,530kg) : 3,750,000	
1.3.관리/유지비	4,991,700		
1.3.1.감가상각비	3,100,810		
1.3.2.유류/윤활유	396,540	2.비생산 농업수입	6,056,000
1.3.3.소모품/수선비	513,100	(영업외 수익)	
1.3.4.농용 전기료	51,740	2.1.수탁작업/농업노임	6,056,000
1.3.5.전화/통신비	71,130		
1.3.6.조세/공과금	64,880		
1.3.7.회비 등	793,5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2,325,210		
2.1.영농차입금 이자	2,325,210		
2.1.1.후계자 육성자금	600,000		
2.1.2.트랙터 구입자금	365,000		
2.1.3.농지구입자금	424,000		
2.1.4.공제 대출	329,110		
2.1.5.적금 대출	533,900		
2.1.6.마을금고 대출	23,200		
2.1.7.영농자금	50,000		
농업지출 합계	10,049,280		
농업소득(경상이익)	9,291,220		
경 상 비 용 합 계	19,340,500	경 상 수 익 합 계	19,340,500
3.특별지출	4,741,58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4,741,580		
3.1.1.건가/창고 신축	3,478,080		
3.1.2.차량 구입(1톤)	1,093,000		
3.1.3.논 지목변경료	170,000		
지 출 합 계	14,790,860		
당 기 순 이 익	4,549,640		
합 계	19,340,500	합 계	19,340,50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3.7.1.-'94. 6.30.)

1.영농부채 원금상환	10,397,000	1.영농자금 차입	6,600,000
1.1.농지구입자금	1,520,000	1.1.마을금고 대출	2,000,000
1.2.후계자 육성자금	2,400,000	1.2.공제대출	4,600,000
1.3.농기계 구입자금	977,000		
1.4.영농자금	1,000,000		
1.5.공제대출	2,500,000		
1.6.마을금고 대출	2,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10,397,000		
부 채 의 증 감	-3,797,000		
합 계	6,600,000	합 계	6,600,000

시설딸기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3. 3. 1)

《 대 차 대 조 표 》

시설딸기 농가-1 1993. 3.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12,491,000	1.부 채	50,225,000
1.1.토지	87,350,000	1.1.중장기성 부채	44,070,000
1.1.1.논(3,254평)	81,350,000	1.1.1.농지구입자금	28,000,000
1.1.2.밭(200평)	6,000,000	1.1.2.시설채소 시범 단지조성사업자금	15,0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23,450,000	1.1.3.농기계 자금	1,070,000
1.2.1.비닐하우스(2동/ 1,300평)	22,750,000	-	
1.2.2.창고(10평)	700,000	1.2.단기성 부채	6,155,000
		1.2.1.영농자금	4,000,000
1.3.대식물	-	1.2.2.일반대출	1,600,000
		1.2.3.갚을 외상	555,000
1.4.대동물	-		
1.5.대농구	1,691,000		
1.5.1.경운기('88)	504,000	2.자기자본	70,292,550
1.5.2.분무기('89)	50,000		
1.5.3.연무기('92)	262,500		
1.5.4.관리기('92)	875,000	2.1.자본금	58,274,050
2.유동자산	4,252,000		
		2.2.감가상각 적립금	12,018,500
2.1.재고농산물	2,056,050		
2.1.1.벼(40kg×45가마)	2,056,050		
2.2.재고생산자재	1,988,000		
2.3.소가축	208,000		
3.유통자산	4,564,000		
3.1.현금 및 예저금	1,200,000		
3.2.적립금	3,364,000		
영농자산합계	121,307,050	영농자본합계	121,307,05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2. 3. 1~1993. 2. 28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3. 3.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3. 3.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시설딸기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3. 3. 1~1994. 2. 28)

《 손 익 계 산 서 》

시설딸기 농가-1 1993. 3. 1~1994. 2. 28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23,118,86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43,324,975
1.1.딸기 지출	13,286,710	1.1.딸기(주작목) 수입	33,371,375
1.1.1.물재비	10,766,050	1.1.1.천년산	-
1.1.2.고용노력비	2,480,660		
1.1.3.위탁작업비	40,000	1.1.2.당년산(12,187kg)	33,371,375
1.1.4.기타 지출생산비	-	1.1.2.1.시판	31,851,375
		1.1.2.2.부산물/자가소비	1,040,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4,538,600	1.1.2.2.1.꿀(20되)	940,000
1.2.1.물재비	3,137,280	1.1.2.2.2.벌통 등	100,000
1.2.2.고용노력비	157,320	1.1.2.2.3.자가/선물소비	480,000
1.2.3.위탁작업비	720,000		
1.2.4.기타 지출생산비	524,000	1.2.그외 농산물 수입	9,953,600
		1.2.1.수도작 수입	3,119,000
1.3.관리/유지비	5,293,550	1.2.2.오이	3,036,100
1.3.1.감가상각비	3,651,000	1.2.3.채소 등	268,500
1.3.2.유류/윤활유	152,600	1.2.4.한우(송아지 1두)판매	1,530,000
1.3.3.소모품/수선비	494,500	1.2.5.번식우(1두) 판매	2,000,000
1.3.4.농용 전기료	452,770	※ 벼 재고(차기이월) (40kg×15가마)	(685,350)
1.3.5.전화/통신비	218,560		
1.3.6.조세/공과금	202,120		
1.3.7.회비 등	122,0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20,0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2,618,489	2.1.기타수입(농협 자문회의 거마비)	20,000
2.1.영농차입금 이자	2,618,489		
2.1.1.농지구입자금	1,400,000		
2.1.2.농기계자금('88)	37,500		
2.1.3.농기계자금('91)	16,000		
2.1.4.시설채소 시범 단지 조성자금	329,110 755,483		
2.1.5.영농자금	201,506		
2.1.6.일반대출	208,000		
농업지출 합계	25,737,349		
농업소득(경상이익)	17,607,626		
경 상 비 용 합 계	43,344,975	경 상 수 익 합 계	43,344,975
3.특별지출	22,317,80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22,317,800		
3.1.1.논 구입(439평)	10,975,000		
3.1.2.차량 구입(1톤)	5,957,000		
3.1.3.유기농퇴비장설치	4,209,200		
3.1.4.관정/관수시설	370,600		
3.1.5.논 객토 흙값	436,000		
지 출 합 계	48,055,149		
당 기 순 이 익	-4,710,174		
합 계	43,344,975	합 계	19,340,50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3.3.1.-'94. 2.28.)

1.영농부채 원금상환	5,756,670	1.영농자금 차입	14,000,000
1.1.농지구입자금	1,400,000	1.1.농지구입자금	10,000,000
1.2.영농자금	4,000,000	1.2.출하선도금	4,000,000
1.3.농기계 구입자금	198,330		
1.4.갚을 외상	555,000		
상 환 원 금 합 계	5,756,670		
부 채 의 증 감	-8,243,330		
합 계	14,000,000	합 계	14,000,000

시설딸기 농가-2의 대차대조표(1993. 3. 1)

《 대 차 대 조 표 》

시설딸기 농가-2 1993. 3.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13,575,100	1.부채	30,536,000
1.1.토지	88,150,000	1.1.중장기성 부채	17,536,000
1.1.1.논(1,750평)	43,750,000	1.1.1.비닐하우스 자금	11,000,000
1.1.2.밭(1,480평)	44,400,000	1.1.2.콤바인 구입자금	5,485,000
		1.1.3.이앙기 구입자금	825,000
1.2.농용 건/축/시설물	16,750,000	1.1.4.관리기 구입자금	226,000
1.2.1.비닐하우스(1동/1,100평)	16,500,000		
		1.2.단기성 부채	13,000,000
1.2.1.창고(5평)	250,000	1.2.1.영농자금	5,000,000
		1.2.2.사채	8,000,000
1.3.대식물	-		
1.4.대동물	-	2.자기자본	89,630,070
1.5.대농구	8,675,100	2.1.자본금	72,708,170
1.5.1.경운기('87)	330,000		
1.5.2.관리기('90)	443,100	2.2.감가상각 적립금	16,921,900
1.5.3.이앙기('91)	1,320,000		
1.5.4.콤바인('91)	6,582,000		
2.유동자산	833,970		
2.1.재고농산물	593,970		
2.1.1.벼(40kg×13가마)	593,970		
2.2.재고생산자재	88,000		
2.3.소가축	152,000		
3.유통자산	5,757,000		
3.1.현금 및 예저금	4,530,000		
3.2.적립금	1,227,000		
영농자산합계	120,166,070	영농자본합계	120,166,07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2. 3. 1~1993. 2. 28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3. 3.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3. 3.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시설딸기 농가-2의 손익계산서(1993. 3. 1~1994. 2. 28)

《 손 익 계 산 서 》

시설딸기 농가-2 1993. 3. 1~1994. 2. 28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17,245,75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20,894,780
1.1.딸기 지출	8,259,300	1.1.딸기(주작목) 수입	20,307,880
1.1.1.물재비	7,243,700	1.1.1.전년산	-
1.1.2.고용노력비	603,600		
1.1.3.위탁작업비	100,000	1.1.2.당년산	20,307,880
1.1.4.임차료	312,000	1.1.2.1.시판(9,540kg)	19,007,880
		1.1.2.2.딸기모종 판매	1,300,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1,168,260		
1.2.1.물재비	635,560	1.2.그외 농산물 수입	586,900
1.2.2.고용노력비	-	1.2.1.자가소비	586,900
1.2.3.위탁작업비	232,700	1.2.1.1.벼(40kg×10가마)	456,900
1.2.4.임차료	300,000	1.2.1.2.기타 농산물	130,000
1.3.관리/유지비	7,818,190		
1.3.1.감가상각비	5,307,3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2,010,000
1.3.2.유류/윤활유	560,800	2.1.수탁작업 수입	2,010,000
1.3.3.소모품/수선비	688,700	2.1.1.콤바인 작업	1,840,000
1.3.4.농용 전기료	93,200	2.1.2.이앙기 작업	140,000
1.3.5.전화/통신비	36,110	2.1.3.운송작업	30,000
1.3.6.조세/공과금	98,880		
1.3.7.회비 등	1,033,200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2,519,393		
2.1.영농차입금 이자	2,519,393		
2.1.1.사채	1,465,000		
2.1.2.하우스 시설자금	550,000		
2.1.3.콤바인 구입자금	274,250		
2.1.4.이앙기 구입자금	41,250		
2.1.5.관리기 구입자금	11,300		
2.1.6.영농자금	177,593		
농업지출 합계	19,765,143		
농업소득(경상이익)	3,139,637		
경 상 비 용 합 계	22,904,780	경 상 수 익 합 계	22,904,780
3.특별지출	12,406,85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12,406,850		
3.1.1.한우 구입(4두)	5,130,000		
3.1.2.차량(1톤) 구입	2,500,000		
3.1.3.지하수 관정시설	3,088,150		
3.1.4.수막재배시설	137,200		
3.1.5.하우스 개폐기 등	1,214,500		
3.1.6.볏짚 절단기 등	337,000		
지 출 합 계	32,171,993		
당 기 순 이 익	-9,267,213		
합 계	22,904,780	합 계	22,904,78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3.3.1.-'94. 2.28.)

1.영농부채 원금상환	13,000,000	1.영농자금 차입	8,000,000
1.1.영농자금	5,000,000	1.1.출하선도금	8,000,000
1.2.사채	8,0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13,000,000		
부 채 의 증 감	-5,000,000		
합 계	8,000,000	합 계	8,000,000

한우비육 농가-1의 대차대조표(1992. 5. 1)

《 대 차 대 조 표 》

한우비육 농가-1 1992. 5.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196,500,000	1.부채	8,500,000
1.1.토지	185,000,000	1.1.중장기성 부채	7,000,000
1.1.1.논(3,400평)	185,000,000	1.1.1.후계자 육성자금	1,000,000
1.1.2.밭	-	1.1.2.농기계 구입자금	6,0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3,000,000	1.2.단기성 부채	1,500,000
1.2.1.축사(50평)	2,000,000	1.2.1.상호부금 대출	1,500,000
1.2.2.간이창고(10평)	1,000,000		
1.3.대식물	-	2.자기자본	219,664,000
1.4.대동물	-	2.1.자본금	213,580,660
1.5.대농구	8,50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6,083,340
1.5.1.트랙터('89)	6,300,000		
1.5.2.콤바인('89)	1,000,000		
1.5.3.이앙기('91)	300,000		
1.5.4.경운기('88)	300,000		
1.5.5.관리기('90)	500,000		
1.5.6.건조기('91)	1,000,000		
1.5.7.예취기('92)	100,000		
2.유동자산	25,177,000		
2.1.재고농산물	25,177,000		
2.1.1.한우(4두)	5,400,000		
2.1.2.젖소 송아지(11두)	13,035,000		
2.1.3.생강(4,200kg)	6,742,000		
3.유통자산	6,487,000		
3.1.현금 및 예저금	4,000,000		
3.2.적립금	2,487,000		
영농자산합계	228,164,000	영농자본합계	228,164,00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1. 5. 1~1992. 4. 30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2. 5.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2. 5.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한우비육 농가-1의 손익계산서(1992. 5. 1~10. 31)

《 손 익 계 산 서 》

한우비육 농가-1 1992. 5. 1~10. 31

지 출		수 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104,642,125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121,149,000
1.1.한우비육 지출	80,016,350	1.1.한우비육 수입	84,300,000
1.1.1.한우구입비(42두)	75,385,000	1.1.1.한우(39두) 판매수입	84,300,000
1.1.2.물재비	4,241,350	※ 한우 재고증가(3두)	(5,400,000)
1.1.3.고용노력비	60,000		
1.1.4.위탁작업비	330,000	1.2.그외 농산물 수입	36,849,000
		1.2.1.젖소 송아지(17두)판매	24,855,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23,019,940	1.2.2.고추	4,642,000
1.2.1.젖소 송아지 구입비(17두)	20,130,000	1.2.3.생강	7,352,000
1.2.2.물재비	2,311,940	2.비생산 농업수입	2,102,000
1.2.3.고용노력비	578,000	(영업외 수익)	
		2.1.수탁작업 수입	2,102,000
1.3.관리/유지비	1,605,835	2.1.1.콤바인 작업	1,470,000
1.3.1.감가상각비	1,150,835	2.1.2.건조기(고추) 작업	592,000
1.3.2.유류/윤활유	337,000	2.1.3.이앙기 작업	40,000
1.3.3.소모품/수선비	118,000		
1.3.4.기타 관리/유지비	-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266,250		
2.1.영농차입금 이자	266,250		
농업지출 합계	104,908,375		
농업소득(경상이익)	18,342,625		
경 상 비 용 합 계	123,251,000	경 상 수 익 합 계	123,251,000
3.특별지출	6,390,00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6,390,000		
3.1.1.축사 신축자재/부지 토목공사	6,300,000		
3.1.2.양수기 모타	63,000		
3.1.3.농약통	27,000		
지 출 합 계	111,298,375		
당 기 순 이 익	11,952,625		
합 계	123,251,000	합 계	123,251,00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2.5.1.-10.31.)

1.영농부채 원금상환	3,200,000	1.영농자금 차입	-
1.1.후계자 육성자금	1,000,000		
1.2.농기계 구입자금	700,000		
1.3.상호부금 대출	1,5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3,200,000		
부 채 의 증 감	-3,200,000		
합 계	-0-	합 계	-0-

한우비육 농가-2의 대차대조표(1994. 1. 1)

《 대 차 대 조 표 》

한우비육 농가-2 1994. 1. 1

자 산		자 본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고정자산	91,210,000	1.부채	21,640,000
1.1.토지	30,000,000	1.1.중장기성 부채	15,800,000
1.1.1.논(1,600평)	20,000,000	1.1.1.후계자 육성자금	3,000,000
1.1.2.밭(1,000평)	10,000,000	1.1.2.농지 구입자금	4,800,000
		1.1.3.군 소득금고자금	8,000,000
1.2.농용 건/축/시설물	18,000,000		
1.2.1.축사(100평)	17,000,000	1.2.단기성 부채	5,840,000
1.2.2.창고(5평)	1,000,000	1.2.1.양축자금	5,000,000
		1.2.2.영농자금	840,000
1.3.대식물	-		
1.4.대동물	41,400,000	2.자기자본	128,920,000
1.4.1.번식우(23두)	41,400,000		
		2.1.자본금	105,730,000
1.5.대농구	1,810,000		
1.5.1.경운기('92)	1,600,000	2.2.감가상각 적립금	23,190,000
1.5.2.바인더('86)	210,000		
2.유동자산	58,400,000		
2.1.재고농산물	58,400,000		
2.1.1.한우(1년이상:16두)	35,200,000		
2.1.2.한우(1년미만:12두)	19,200,000		
2.1.3.송아지(3개월미만:5두)	4,000,000		
3.유통자산	950,000		
3.1.현금 및 예저금	950,000		
3.2.적립금	-		
영농자산합계	150,560,000	영농자본합계	150,560,000

주: 1) 자기자본중 "2.1. 자본금"에는 前期(1993. 1. 1~12. 31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바, 이는 1994. 1. 1부터 일계부 기장을 시작 하여, 그 이전의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밝혀 줄 손익계산서와 그 근거가 되는 "기록(일계부)"이 없어서, 이를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임.

2) 자기자본중 "2.2.감가상각적립금"은 자산대장(1994. 1. 1기준)으로부터 추산한 금액임.

한우비육 농가-2의 손익계산서(1994. 1. 1~6. 30)

《 손 익 계 산 서 》

한우비육 농가-2 1994. 1. 1~6. 30

지출		수입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1.자가생산 농업지출 (영업비용)	84,408,200	1.자가생산농업수입 (영업수익)	99,726,700
1.1.한우비육 지출	78,476,200	1.1.한우비육 수입	97,942,700
1.1.1.한우구입비(40두)	67,200,000	1.1.1.한우(45두) 판매수입	97,942,700
1.1.2.물재비	10,946,200	※ 한우 재고증가(2두)	(3,360,000)
1.1.3.고용노력비	-		
1.1.4.위탁작업비	330,000	1.2.그외 농산물 수입	1,784,000
		1.2.1.소가죽	1,320,000
1.2.그외 농산물 지출	1,105,000	1.2.2.마늘 등	464,000
1.2.1.물재비	575,000		
1.2.2.고용노력비	150,000	2.비생산 농업수입 (영업외 수익)	2,220,000
1.2.3.위탁작업비	380,000	2.1.소 매매(29두) 수입	2,220,000
1.3.관리/유지비	4,827,000		
1.3.1.감가상각비	4,185,000		
1.3.2.유류/윤활유	86,000		
1.3.3.소모품/수선비	16,000		
1.3.4.조세/공과금비	540,000		
1.3.5.기타 관리/유지비	-		
2.비생산 농업지출 (영업외 비용)	490,000		
2.1.영농차입금 이자	490,000		
농업지출 합계	92,831,200		
농업소득(경상이익)	9,115,500		
경 상 비 용 합 계	101,946,700	경 상 수 익 합 계	101,946,700
3.특별지출	3,283,000	3. 특별수익	-
3.1.영농투자지출	3,283,000		
3.1.1.축사 보수/시설 보강공사	1,300,000		
3.1.2.퇴비사 신축	1,550,000		
3.1.3.손수레 등	433,000		
지 출 합 계	96,114,200		
당 기 순 이 익	5,832,500		
합 계	101,946,700	합 계	101,946,700

※영농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상환 원금(1994.1.1.-6.30.)

1.영농부채 원금상환	4,160,000	1.영농자금 차입	-
1.1.후계자 육성자금	1,500,000		
1.2.농지구입자금	160,000		
1.3.양축자금	2,500,000		
상 환 원 금 합 계	4,160,000		
부 채 의 증 감	-4,160,000		
합 계	-0-	합 계	-0-

참 고 문 헌

강창규, 「최신 농업경영학」, 학우사, 1982.

구재서 외, 「신고 농업경영학」, 선진문화사, 1985.

金澤夏樹, 「농업경영학 강의」, 신동완, 강경선(역), 도서출판 풀빛, 1985.

김형화, "낙농경영에 있어서 그 종합지표의 작성과 경영평가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87.

김후근, "농업경영형태별 농업소득의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9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967.

농업경영연구소, 「精農家 농업경영 사례연구(양잠, 낙농)」, 농업경제연구 A-8호, 농업경영연구소, 1967.

_____, 「서울근교 낙농경영개선을 위한 사례연구」, 농업경제연구 A-9호, 농업경영연구소, 1970.

_____, 「영농모형별 소득추정(업태 및 규모별)」, 농업경제연구자료 제25호, 농업경영연구소, 1972.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요령」, 농림수산부, 1988.

_____, 「농가경제조사연보」, 농림수산부, 각년도.

농촌진흥청, 「농가 경영상담을 위한 원예작물 경영진단과 설계요령」, 농업경영 상담자료 제13호, 농촌진흥청, 1994.

_____, 「농축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요령」, 경영상담자료 제4호, 농촌진흥청, 1994.

_____,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력 투하시간」, 농업경영상담자료 제10호, 농촌진흥청, 1994.

_____, 「1993년도 농축산물표준소득」, 농업경영연구보고 제49호, 농촌진흥청, 1994.

농협중앙회 조사부, 「한국 농업경영의 유형과 지표」, 조사자료 69-8, 농협중앙회, 1969.

반성환, 「농업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 1985.

반성환 외, 「농업부기」,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신동완 외, 「영농진단과 설계방법의 전산화 기법에 관한 기초연구」, 산학협동 84-22, 농촌진흥청, 1984.

신용백, 「원가와 원가관리」, 한국경제신문사, 1994.

심영근, 「농업경영학 개론」, 선진문화사, 1985.

오세민, 「재무관리의 기초 -이론과 실제-」, 한국금융연수원, 1994.

이건희, 「현대 경영분석」, 대왕사, 1984.

이동호, "농업경영진단의 제방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18집 자연과학편, 전북대학교, 1976.

_____, "주성분 분석법에 의한 농업경영진단", 「농업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77.

_____, "다변량 분석법의 응용에 관한 고찰," 「농업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78.

이성주, 「최신 경영·경리실무」, 한국경영실무연구소, 1991.

이중웅 외, 「답작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수도작의 현황과 경영상의 제문제-」, 연구보고 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9.

이창우 외, 「농업부기학」, 학문사, 1985.

장영광, 「경영분석」, 매일경제신문사, 198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경영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각년도.

하병욱, "농가경제의 수지균형에 대한 조사," 「농업경제연구」, 제5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96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각년도.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한국산업은행, 각년도.

Bradford L.A., Johnson G.L., *Farm Management Analysis*, John Wiley & Sons, 1966.

Moore C.L., Jaedocke R.K., *Managerial Accounting*,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72.

Tolley H.R., Black J.D., Ezekiel M.J.B., "Input as related to Output in Farm Organization and Cost- and Production Studies," USDA Department

Bulletin No. 1277., 1924.

增田萬孝, 「農業經營診斷の原理」, 養賢堂, 1983.

常秋美作, 「農家經營と會計」, 農林統計協會, 1991.

新井 肇, 「複式農業簿記 -傳票會計の實務-」, 全國農業會議所, 1990.

_____, 「新版ちしい農業經營診斷」, 全國農業會議所, 1990.

大槻正男, 「農業生産費論考 農業簿記原理」, 昭和前記農政經濟名著集 16, 農山漁村文化協會, 1979.

大槻正男, 桑原正信, 菊地泰次, 「農業簿記精說」, 富民協會, 1972.

龜谷 是 外15人, 「現代農業經營分析論」, 富民協會, 1989.

九原基介, 「農業經營の診斷と計劃」, 富民社, 1957.

木村直雄, 「農業經營の診斷と設計」, 文敎書院, 1959.

熊谷 宏, 「農業經營・計算の小辭典」, 富民協會, 1981.

Aereboe Fr., *Allgemeine landwirtschaftliche Betriebslehre*, 6te. Aufl., 1923.

Arbeitskreis Betriebswirtschaft im Gartenbau e.V. Hannover, *Kennzahlen fuer den Betriebsvergleich*, Hannover, 1985.

Brandes W., Woermann E., *Landwirtschaftliche Betriebslehre Bd.1. u. 2*, Paul Parey, 1982.

HLBS(Hauptverband der landwirtschaftlichen Buchstellen u. Sachverstaendigen e.V. Bonn), *Begriffs-Systematik fuer die landwirtschaftliche u. garten -bauliche Betriebslehre*, HLBS-Schriftenreihe Heft 14, Verlag Pflug und Feder GmbH., Bonn, 1973.

Kirchgatter G., *Buchfuerungs- und Steuerrecht im Gartenbau*, Eugen Ulmer, 1979.

Schenk W., *Betriebsanalyse im Produktionsgartenbau*, Paul Parey, 1978.

Schmolke S., Deitermann M., *Industrielle Rechnungswesen -IKR-*, Winklers Verlag, 1979.

Schmolke S., Deitermann M., *Kaufmaennische Buchfuerung fuer Wirtschafts -schulen Teil 1 u. 2*, Winklers Verlag, 1977.

Schult E. *Bilanzanalyse*, Rudolf Haufe Verlag, 1991.

Steckel M., *Buchfuerung im landwirtschaftlichen Betrieb Teil A u. B*, Verlag

Pflug und Feder, 1970.

Vogler G., Mattes H., *Theorie und Praxis der Bilanzanalyse*, Erich Schmidt Verlag, 1976.

연구보고 R323

농가경영성과의 사례 연구

수도작, 사과, 시설딸기, 양파, 한우비육농가를 중심으로

찍은날 1995. 10. 펴낸날 1995. 10.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범 신 사 ☎720-9786~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